



麟蹄文化

2002년 第17輯



麟蹄文化院

麟蹄文化院

2002年 第17輯



—표지 사진 설명—
(수묵화)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의 “바람
불이” 일명 “쇠나드리”라고도
하는 곳으로 주위의 경관이 매
우 아름다운 곳으로서 인제문화
원 이사이며 화가인 최용건 씨
의 작품.



麟蹄文化院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 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년.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발간사



방 효 정
인제문화원 원장

우리 인제의 정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계승·발전시키는 지역 주민 모두의 옥고를 모아 “인제문화 제17집”을 발간하게 되었음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는 예로부터 고유의 미풍양속과 문화를 갈고 닦아 발전시켜 왔으며, 전통논리의 생활화로 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깨끗한 선비 정신을 면면히 이어와 우리 고장 구석구석마다 충효의 전각이 즐비한 유서깊은 의로운 고장입니다.

문화는 철학에서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또는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인 성과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끊임없이 열과 성을 다해 지역 문화사업에 충실해 오면서 더 나아가 금년에는 “인제옛목”사를 심도있게 재현함으로 전승보존 사업에도 큰 일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 책을 받아 새 정책을 펴서 첫 출을 써내려 갈 때 가졌던 단정한 다짐으로 우리 인제군이 문화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인제문화원이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발간되는 인제문화 17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제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귀한 옥고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집에 수고해준 직원에게도 거듭 감사를 전합니다.

祝

續 刊

내린문학 동인회장	김규중
내설악 사진동우회장	민종식
인제 미술인회장	최용건
내설악 수석회장	김명수
향토 민속보존회장	박해순
인제 서예인회장	김 향

2002

문화사업 화보





2002 정기 총회



이사회의



마을 농악기 보급



사진전



2002 문화학교 개강식



국악 강좌



서예 강좌



전통의례 강좌



풍물 강좌



음악(폴룻)교실 강좌



열린 음악회



문화유적지 순례(대전 뿌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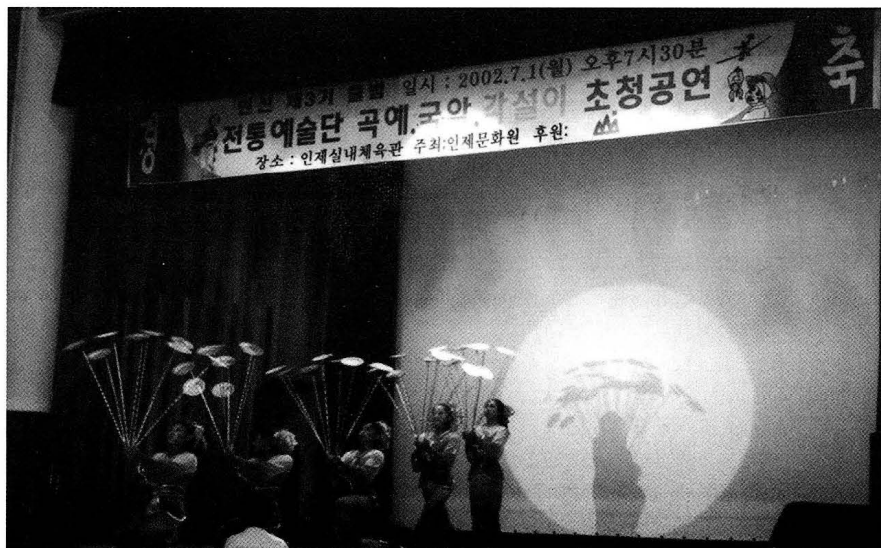
서예 임시전



스텐실 전시회



2002 강원도 사물놀이 개최주관



예술단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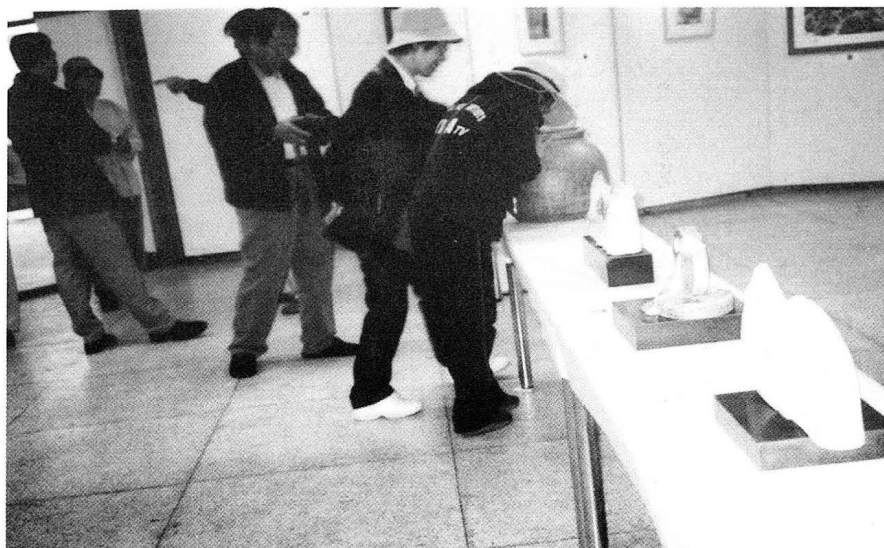
2002 뮤지컬 공연



모던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미술 전시회



조각 전시회



인제 뗏목 재현



향토자료사



해금강에서 강원도 문화원 사무국장과 함께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전국 문화원 가족과 함께

목 차

발간사 · 방효정

제1장 향토사

- 왕조시대의 인제 인물 120 · 최병헌/22
인제의 인물/23
- 인제 관내의 전적(典籍) · 최병헌/88
 - 1. 머리글/88
 - 2. 전적(典籍)의 종류/89
 - 3. 전적(典籍) 소장(所藏) 현황/90
 - 4. 맺는 글/108
- 입향조를 찾아서 · 최병헌/109
 - 1. 들어서면서/109
 - 2. 성씨별 입향조/110

제2장 기고문

- 지역 문화와 인제 문화 · 손흥기/116
 - 1. 문을 열며/116
 - 2. 지역 문화의 현주소/117
 - 3. 인제 문화예술의 오늘/119
 - 4.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122
 - 5. 문을 나서며/127
- 원로회를 창립하면서…… · 방효정/129
- 우리 “쌀”을 지키자! · 권원의/134
- 사슴방생운동본부 창립총회 인사말씀 · 오정진/138
- 中國(동북지방) 紀行文 · 이만철/147
- 꿈꾸는 內麟川으로의 여행 · 한용운/160

- 內麟川 너, 영원하라 · 오정진/162
- 내 고향 美山村에는 · 이정/167
- 內麟川 · 한용운/169
- 內麟川의 강변 · 한용운/172
- 내린천에서 번지점프의 묘미를 맛본다 · 김신향/173
- 유적지를 찾아서 · 최병헌/178
- 사랑과 칭찬의 대화 · 이만철/185

제3장 향토문예

- 〈향토문예 1〉 제6회 인제 서예임서전
 - 격려사 · 방효정/191
 - 초대의 글 · 김향/192
- 〈향토문예 2〉 제14회 인제 미술인회원전
 - 초대의 글 · 최용건/217
 - 축하의 글 · 김장준/218
 - 축하의 글 · 박삼래/219
 - 축하의 글 · 방효정/220
- 〈향토문예 1〉 수필, 시
- 〈향토문예 1〉 환경문예작품 공모입상작
 - 사랑의 감정 · 한용운/227
 - 삼홍미(三紅美) · 한용운/231
 - N.G.O 그들은 누구인가 · 최인철/235
 - 民 · 官 · 軍 화합의 필요성 · 최인철/239
 - 화합과 통일의 길 · 문부자/241
 - 인제의 사람들 · 문부자/243
 - 소중한 나의 가족들 · 이현애/246
 - 수마가 할퀴고 간 곳에 미소를(외 2) · 최인철/250
 - 산과 물 그리고 바위(외 3) · 한용운/254
 - 주부 독서회(외 3) · 정순덕/259
 - 우리 하나가 되어 · 이정우/263

은어 · 정혜진/265
마음이 예뻐야 지구도 좋대요 · 이송희/266
이슬 · 김연경/267
아름다운 점봉산 · 김상진/268
꽃들의 표정 · 박권균/269
개구리 · 최윤희/270
앞강 · 이종수/271
바람 · 안태금/272
지구의 의사 · 유희진/273
자연은…… · 김솔/275
〈수필〉
환경도 16강! · 김혜림/276
덕산 정수장과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찾아서 · 원고연/278
나보다 환경 먼저 · 박영미/283
환경 견학을 다녀와서 · 황변주/286
내 · 린 · 천 · 김재선/289
인북천 그 곳에는 · 이은희/293
우리들의 자연 · 김선정/295
환경을 살립시다 · 유현미/299
〈산문〉
환경보존 · 박서희/302
〈동화〉
숲 속의 동물나라 · 신다영/304
양철 도시 · 이다솜/306
외로운 소나무 · 이우란/310
임원 현황/314
직원 현황/315
인제문화원 회원 현황/316
편집후기/323

제1장 향토사

- 왕조시대의 인제 인물 120
- 인제 관내의 전적(典籍)
- 입향조를 찾아서

왕조시대의 인제 인물 120

최 병 현

인제와 관련된 인물들은 1986년에 간행된 『인제군지』 1996년에 간행한 『인제군사』, 그리고 『인제문화』지 등 기타 향토 사료집에 산발적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 관련 인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인제에서 출생하였거나 인제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사망한 인물들이 누구누구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순전히 인제에서 출생하였거나 이곳에서 정착하다가 이 땅에 묻힌 인물들만을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또 인물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필자의 편견이나 각 성씨 문중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족보에는 비록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이라 하더라도 묘지석이나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 제외시켰음을 미리 밝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또 인물들이 창사(倉史)에 길이 남을 명현(名賢)들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직분에 맞는 처세로 당시 사회에 공헌하였음은 실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만큼 문중(門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민 모두가 당해 인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충·효 정신의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제의 인물

고씨(高氏)

고택홍(高宅鴻) : 조선시대 사람으로 제주인(濟州人)이며, 자는 중규(仲達)다.

철종(哲宗) 계해(癸亥 1863)년에 인제에서 출생하였으며, 고종(高宗) 22년(1885)에 식년시(式年試)¹⁾에 3등으로 합격하였다.

부친은 재욱(在旭)이고, 위로는 진홍(鎭鴻), 진봉(鎭鵬) 두 형이 있고, 아래로는 아우 진봉(鎭鳳)이 있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인제문화 16집).

권씨(權氏)

권양성(權養性) : 조선시대 사람으로 안동인(安東人)이며, 자는 백함(伯涵)이다.

1) 식년시 : 12간지 중 자(子), 오(午), 묘(卯), 유(酉)의 해에 여는 정기시로 여기에는 초시, 복시, 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이 있었으며, 초시와 복시는 다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 고시하였다. 초시에는 관시(館試)와 한성시, 향시가 있었는데, 식년 전해의 9월에 실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성시와 향시는 사마시(司馬試) 향시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었으며, 관시는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성균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초시에 합격한 240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다시 고시하여 최종 33명을 선발하는 것이 복시로서 일명 회시(會試)라고도 하였는데, 이들 33명이 이른바 과거 급제자들이다. 그리고 복시에 급제한 33명이 다시 어전에서 주로 대책문(對策文)을 짓는 것이 곧 전시(殿試)인데, 여기에서 급제한 33명의 과차(科次 : 과는 갑, 을, 병, 과이고 차는 각 과내에서 등수)를 정하였다.

경종(景宗) 1년(1721)에 음보(蔭補)로 선공감역(繕工監役).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냈고, 영조(英祖) 때 인제현감(麟蹄縣監)²⁾, 김제군수, 한성부서윤, 백천현감 등을 거쳐, 영조 20년(1744)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가 되었다(인제군사, 인제문화 16집, 한국인의 족보).

김씨(金氏)

김경범(金敬範) : 고려시대 사람으로 효(孝)를 행하여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내렸다고만 전해온다(인제읍지, 관동읍지).

김노규(金魯奎) : 조선시대 사람으로 삼척인(三陟人)이며, 호는 죽사(竹史)다.

목사(牧使) 태국(泰國)의 후인(後人)으로만 전해오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종조(高宗朝) 통사랑(通仕郎)을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김동업(金東業) : 조선시대 사람으로 경주인(慶州人)이며, 자는 윤영(允永)이다.

철종(哲宗) 9년 무오(戊午 1858)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부인은 평해(平海) 황씨이며, 그의 묘소는 기린면 서리 오동곡(梧桐谷)에 있다.

동업의 선조들이 나라에 세운 공로가 인정되어 충훈부(忠勳府)에서는 잡역(雜役)과 군정(軍丁)을 면해 주라는 완문(完文)을 내렸는데,

2) 재임기간은 1725~1727년이다.

그의 후손인 광열(光烈 : 인제읍 상동리 거주)이 지금도 소장하고 있다.

完文

右完文方○給事以此江原道春川麒麟下竹川居幼學金商德商寬商億流浩養浩俊浩東文東煥東俊東業東立東烈卽忠淸道觀察使刑曹判書自粹子兵曹判書根子戶曹參議永源子策靖國功臣鷄城君任之後孫也.其先祖豐功諱烈昭裁麟閣其子孫世世收錄完給苗裔共享錦遠興國內終怡之意.列聖朝興勳臣敵血會盟作爲誓文祭去于天地此乃金石之約是○乙近來外邑不有法意.無難侵責乙每常式年修正世系之意入啓蒙允後幼會各爲者朝家優恤勳舊子孫之德意至矣盛矣亦有怠慢不法令守論罪之嚴教是向如乎其惑外邑不知法例之所重若有一毫侵之弊是官置依.判下內壽意永久勿侵還上烟戶雜役軍丁之意若以完文成給爲○乎以此受教申飾惡考○於常浚地方官爲稱本官地此事重施○特爲頒給諸般之役宜當事.

同治十三年 九月 日

忠勳府(手決)

완문(국역)

우 완문을 내리노라. 강원도 춘천 기린 하죽천에 사는 유학 김상덕, 상관, 상억, 유희, 양호, 준호, 동문, 동환, 동준, 동업, 동립, 동렬, 즉 충청도 관찰사 형조판서 自粹, 자 병조판서 根, 자 호조참의 永源, 자 정국공신으로 계성군에 봉해진 任의 후손이다.

그의 선조는 나라에 숨은 공로가 인정되어 麟閣³⁾에서는 자손세세 수록한 완문을 내리니 멀리 보면 나라의 흥함이라 함께 기뻐할 일이다.

열성조의 흥함을 勳臣들은 敵血로 會盟하고 誓文으로 남겼다.

세상에는 이런 굳은 약속이 있음에도 근래에 변방에서는 이를 본받지 않는 도다.

별일이 없는 한 책임을 물을 것이니 매 식년 단위로 세계를 수정하

3) 인각(麟閣) : 충훈부를 일컫는 말.

제1장 향토사

여 깨우치도록 하라.

사랑스런 마음으로 이르노니 각자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교활함이 대대로 훈공이 있는 집안의 자손된 덕임을 알라.

지극한 정성에도 태만히 하여 법령에 따르지 않으면 수령은 죄를 물어 가르치도록 하고, 혹 변방에서 法例의 소중함을 모르고 털끝 하나라도 범하거나, 해친다면 官에서 베풀지 말라.

이르노니, 영구히 還上하는 집안에는 雜役과 軍丁을 면해 주도록 완문을 내리노라.

이 수교는 여러 가지를 비추어 상고함에 있어 참고로 하고, 지방관은 본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 일을 중시하되, 특히 모든 일에 마땅히 사정을 살펴서 책임을 면해 주도록 하라(완문, 경주 김씨 선원세보, 인제문화 16집).

김복형(金復亨) : 조선시대 사람으로 순천인(順天人)이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냈으며 생, 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린면 서 2리 죽천령(竹川嶺 : 일명 오르막고개) 마루 터에 묘소가 있다.

묘비의 전, 후면에는 「절충장군호분부호군순천김공복형(折衝將軍虎賁副護軍順天金公復亨)/숙부인경주김씨(淑夫人慶州金氏)/숙부인 평산신씨묘(淑夫人平山申氏之墓)/단기사천삼백오년 중건 십대 종손 상규, 응규, 태규, 양규, 창규, 서좌합편(檀紀四千三百五年重建十代宗孫尙奎,應奎,兌奎,洋奎,昌奎西坐合窆)」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묘비는 강희(康熙) 15년(1676)에 건립한 것이었는데 6·25전화로 파손된 것을 묘의 측면에 매장하고, 문중에서 성금을 거출하여 1972년에 복원하였다(묘지석, 인제군사).

김상갑(金尙甲) : 조선시대 사람으로 경주인이며, 자는 일서(日瑞)

다.

통정대부(通政大夫) 요경(料慶)의 5세손으로 참봉을 지냈다.

부인은 영월(寧越) 엄씨이며, 그의 묘소는 기린면 서리 봉덕동(鳳德洞) 안골에 있다(완문, 경주 김씨 선원세보, 인제문화 16집).

김승수(金昇壽) : 조선시대 사람으로 삼척인(三陟人)이다.

고종조(高宗朝)에 통사랑(通仕郎)을 지낸 바 있는 노규(魯奎)의 아들로 학문이 밝아 한 때 그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인제군지, 인제군사).

김시진(金時珍) : 조선시대 사람으로 경주인(慶州人)이다.

생, 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경순왕(敬順王)의 4자인 대안군(大安君) 은설(殷說)의 30세손으로 인제의 경주 김씨 입향조(入鄕祖)다.

그의 부친 응청(應靑 : 자는 永春)은 기사(己巳 1509)년에 태어나서 임오(壬午 1642)년에 사망하였으며,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증직(贈職)되었고, 모친은 파평 윤씨로 무오년(戊午年 1498)에 출생하여 을묘년(1615)에 사망하였는데 묘소가 결성(結城)의 두정동(斗井洞)에 쌍분으로 모셔져 있는 것으로 보아, 추측하건대 입향 시기는 모름지기 임오(壬午 1642)년 그 후라고 할 수 있다.

입향 당시 그는 인제의 가리산리(加里山里)에 정착하였고, 지금도 그의 묘소가 인제읍 가리산리에 있다(완문, 경주 김씨 선원세보, 인제문화 16집).

김씨(金氏) : 조선시대 사람으로 강릉인(江陵人) 연조(演祚)의 딸이다.

김씨는 헌종(憲宗) 11년 을사(乙巳 1845)년에 출생하여, 고종(高

宗) 갑자(甲子 1864)년에 금령인(金寧人) 김형인(金炯仁)과 혼인하였으나, 고종 3년 병인(丙寅 1866)년에 남편과 사별하여 백수(白首)가 되도록 수절(守節)하였고, 특히 친정 부모를 멀리 하고 시부모를 극진히 섬겨 나라에서 효열부(孝烈婦)의 정려(旌閭)를 내렸다.

김씨는 광무(光武) 9년 을사(乙巳 1905)년에 사망하였는데, 순종(純宗) 2년 무신(戊申 1908)년에 강릉부사 이서구(李瑞求)와 관찰사(觀察使) 김성규(金星奎)가 지금의 상남면 미산 2리 양지동의 배미산(培美山) 기슭 도로변에 정려각(旌閭閣)을 건립하였다. 비각에는 아들 철규(澈圭)가 친필로 쓴 『효열부미인강릉김씨지각/공부자탄생 2475년8월진사철규(孝烈婦彌人江陵金氏之閣/孔夫子誕生二四七五年八月進士澈圭)』라는 현판이 있고, 비의 전, 후면에는 『부금령인김형인/효열부강릉김씨정려각비/자진사(夫金寧人金炯仁/孝烈婦江陵金氏旌閭閣碑/子進士)』, 『탁피혁행혼연기천재계재양불사이공종손진악근지(卓皮革行渾然基天載揭載揚不私以公宗孫鎭岳謹誌)』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려 원문은 380자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원문>

孝烈婦江陵金氏旌閭文

夫人之道莫過於孝烈而孝烈之大又莫如信事之節世能致其具淑之妾下載其卓行者未有過於十二月麟蹄郡內面美山里之江陵金氏也金氏演祚女金海人⁴⁾吏曹判書忠毅公白村先生諱文起后金炯仁妻以其柔婉之性眞淑之行孝姑敬君子克盡婦道上下咸稱矣其偶然疫疾竭力調治煎藥折天誠靡不到但天壽有限竟遭終天之痛哭逾制矢欲從殉顧老姑在堂幼長啼瀝且先世香火無人委托不忽就義...血強存葬祭如儀三燧盡禮事姑益誠教子以義一心守節終身無貳恒言夫苑未從爲事如而姑歿同歸云矣追及老姑喪事裳毀逾度絕穀泣血送終允百遺托家人至誠服日○然長逝嗚呼氏之眞節○行亘古今貫曰星令人不賢稟然感服所以儒論僉同將旌其嘉行之績而屬余以文余豈敢以無文受幸諱以不特增剛直君子太常紀籍云爾繼以銘曰卓芳節行日月爭先唯使其實名振四方天報純德家道永昌三尺丹○千秋流勞關逢因敦仲秋下洗統訓大夫秘書院生安東金炳興 (인제군지, 인제군사)

김씨(金氏) : 조선 말기 사람으로 김해인(金海人)이다.

김씨는 헌종(憲宗) 10년 갑진(甲辰 1844)년에 출생하여 16세가 되는 철종(哲宗) 11년 경신(庚申 1860)년에 기린면 방동리 도채동에 거주하는 정선 전씨(旌善全氏) 가문으로 출가하였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그의 나이 21세가 되는 고종(高宗) 2년 을축(乙丑 1865)년에 남편이 불치병으로 앓게 되자, 극진한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으나, 보람도 없이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김씨는 모든 상례(喪禮)를 법도에 맞게 함은 물론 3년간 시묘살이와 함께 백발이 될 때까지 온갖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정절을 지켰으며, 세상을 뜨기 전인 일제(日帝)시대 을묘(乙卯 1915)년에 조정에서 정려(旌閭)와 성균관 명륜장(成均館明倫狀)을 내렸다.

김씨는 생전 남편의 기일(忌日) 때마다 지령이 기름을 모아 불을 밝혔으며, 중년에 이르러서는 꿈에 남편이 나타나 환담을 나누었다는 일화도 전해 오고 있다.

김씨는 일제시대 무오(戊午 1918)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뒤 문중에서 정려각(旌閭閣)을 건립하였으나, 6·25사변 당시 불에 타 버려서 지금은 자취를 찾아 볼 수가 없다(인제군지, 인제군사).

김씨(金氏) : 조선시대 사람으로 삼척인(三陟人) 진국(振國)의 딸이다.

생, 몰 연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풍양 조씨(豐壤趙氏) 문중의 옥립(玉立)과 혼인하였다. 옥립은 당시 경기도 양주군 풍양현에 거주

-
- 4) 김해인(金海人) : 금령은 김해의 옛 이름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김해로 하면서 김수로왕 계(김해 김씨 계)와 김시흥 계(금령 김씨 계)로 분별해 왔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후손들이 번창해지자 구분이 어려워지므로 헌종(憲宗) 때에 이르러 금령군(金寧君) 김시흥(金時興)의 후에는 다시 김해의 옛 이름인 금령(金寧)으로 이관(移貫)하였다.

하였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인품이 고매하였으며,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냈다. 인조(仁祖) 14년 병자(丙子 1636)년 12월에 호란(胡亂)이 일어나자 관군을 통솔하여 분전(奮戰)하던 중 대세가 불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인제군(麟蹄郡) 인제읍 원대리(院垞里)로 은신하였으나, 호적(胡賊)들이 급습하여 김씨에게 남편의 소재를 밝히라고 양손에 쇠꼬챙이로 구멍을 내는 등 갖은 고문을 다 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으므로 마당에 장작을 쌓고 김씨를 올려 놓은 후에 불을 질렀지만, 갑자기 뇌성벽력(雷聲霹靂)을 치며 폭우가 쏟아져 호적(胡賊)들은 벼락을 맞아 죽었고, 김씨는 화염 속에서 생환할 수 있었으나 심한 화상(火傷)으로 신음하다가 10여일 후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기이한 기후현상은 김씨의 행실에 하늘이 감동한 처사라 하여, 마침내 인조(仁祖) 16년 무인(戊寅 1638)년에 정려(旌閭)를 내리게 되었고, 그로 하여 인제읍 원대리 내삼현에 열녀각(烈女閣)을 건립하였다. 비각(碑閣) 안에는 『유학조옥립처열여삼척김씨지문(幼學趙玉立妻烈女三陟金氏之門)』이라고 쓴 현판(懸板)만이 걸려 있다. 현재에도 원대리 내삼현에는 풍양 조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으며, 김씨의 묘소는 웃목(웃마을) 상묘곡에 있는데, 해마다 음력 10월 1일에는 가문의 연중행사로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다.

김씨에 대한 내용을 족보(族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公名玉立初居 江原道麟蹄郡麟蹄面院垞里內挿峴公姿相雄偉彭溟髯義好文武忠孝謙全人物也仁祖一四年丙子胡亂突發國政之勢衰弱外浸數十次公義拚奮發志願官軍統率胡賊大戰中元來大勢不利敗陳之勢故鄉隱身中胡兵決死的追蹟麟蹄院垞內挿峴小屋急襲公夫人金氏男便所在強要夫人絕對不服從胡兵大怒金氏兩手鐵絲極甚拷問金氏緘口不服從胡兵金氏全身投薪木契刑突然雷聲霹靂天地震動急降暴雨數十步之內皆咸殺金氏多幸天祐神助求命火復呻吟中十餘日後別世也官家共事實得所聞大王上告大王諸臣下命現地踏查王立偉積及金氏烈女心細細上告大王忠烈心感動烈女趙王立妾三陟金氏門下賜……」

(인제군지, 인제군사)

김씨(金氏) : 조선시대 사람으로 삼척인(三陟人) 희하(禧河)의 딸이다.

생, 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양천인(陽川人) 허희(許熙)와 혼인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요절(夭折)하자 평생을 수절하면서 어려운 집안살림 때문에 삶바느질을 해가며 자식의 교육에 힘써 의롭게 양육하였으며, 친척간에 화목을 도와 규문가(閨門家)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칭송이 자자하였다(인제군지, 인제군사).

김영배(金榮培) : 조선 말기 사람으로 김해인(金海人)이다.

고종(高宗) 14년 정축(丁丑 1877)년에 인제군 기린면 서리(西里) 양지촌(陽地村)에서 출생하였으며, 자가 정권(政權)이고, 호는 죽곡(竹谷)으로 김해 김씨 안경공(安敬公)의 15대 손이며, 부친은 현규(縣奎)이다.

관직은 안궁내부주사 의략장군행충휘부용사(安宮內府主事宜略將軍行忠諱副勇司)이며, 아들은 춘봉(春鳳)이다. 그는 공부자연원유림록(孔夫子淵源儒林錄)에 등재된 유학자로 평소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고, 부친의 사망 당시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넣음으로 해서 3일 간이나 수명을 연장시켰다. 향리(鄉里)에서는 물론이요, 관가(官家)에서 이를 가상하게 여겨 정려(旌閭)를 내렸다.

묘소는 기린면 서리에 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김윤희(金允浩) : 조선시대 말기 사람으로 경주인(慶州人)이다.

자는 중심(重深)이고, 호는 부계(富溪)인데 신묘(辛卯 1831)년에 태어났다.

제1장 향토사

효행이 지극하므로 철종(哲宗) 2년 신해(辛亥 1851)년에 강원도사(江原道使)가 포상을 상신하여 은전(恩典)을 받고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다.

그의 묘소는 인제군 남면 기령골에 있다(경주 김씨 선원세보, 인제문화 16집).

김춘호(金春浩) : 조선시대 사람으로 경주인(慶州人)이며, 가선대부(嘉善大夫) 만주(萬柱)의 4세손이다.

관직은 사헌부감찰겸의관(司憲府監察兼醫官)을 지냈다. 부인은 전주 이씨이며, 묘소는 인제군 남면 기령골에 있다(경주 김씨 선원세보, 인제문화 16집).

김환(金桓) : 조선시대 사람으로 김해인(金海人)이다.

고종(高宗) 10년 계유(癸酉 1873)년에 태어났으며, 자는 성여(聖汝)다.

고종 25년 무자(戊子 1888)년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부친은 성균관행전적(成均館行典籍)으로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이른 도준(道濬)이고, 아래로 근(根), 옥(郁) 두 아우가 있었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인제문화 16집).

박씨(朴氏)

박귀대(朴龜大) : 조선시대 사람으로 밀양인(密陽人)이다.

고종(高宗) 11년 갑술(甲戌 1874)년에 태어났으며, 자는 몽원(夢元)이다.

고종 31(1894)년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

다.

부친은 유학(幼學) 준좌(準左)이고, 아래로 봉대(鵬大), 을대(乙大), 기대(驥大) 세 아우가 있었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인제문화 16집).

박기주(朴基柱) : 조선시대 사람으로 밀양인 규정공(糾正公) 현(鉉)의 후손이다.

호는 일수(一樹)인데 경사(經史)를 깊이 연구하고 사마시(司馬試)에 합격은 하였으면서도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산수를 즐겨 오유(娛遊)하기를 즐겨 했다(인제군사).

박명근(朴明根)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春川人) 희선(希善)의 아들이다.

자는 시한(時漢)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냈다.

묘소는 기린면 진동리 평밭치 풀무골에 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박상규(朴尙奎)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春川人)이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증직(贈職)되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박신채(朴信彩)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이며, 인제(麟蹄)의 춘천 박씨 입향조(入鄉祖)다.

자는 인수(仁洙)이고, 호는 묵제(默齊)이다.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독서에 전념하였다.

부친 지원(之遠 : 자 誠謙)을 비롯한 그의 선대조(先代祖)는 춘천의

수지동(水芝洞)과 장본곡(獐本谷)에 살았으며, 그곳에 묘소가 있다.

입향(入鄕)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의 장남인 정초(廷礎)가 사망한 해는 갑신(甲申 1584)년으로 묘소가 기린면 서리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대략 갑신년(甲申年 1584) 전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처는 경주 이씨이고, 묘소는 기린면 방동리 두어미(斗於尾 : 두루미산)에 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박신현(朴信縣) : 조선시대 사람으로 인제인(麟蹄人) 동집(東集)의 아들이며, 자는 명지(命之)다.

영조(英祖) 25년 기사(己巳 1749)년에 문천(文川)에서 태어났으며, 정조(正祖) 22년 무오(戊午 1798)년에 그의 나이 49세 되는 해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였으나, 이미 양친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였다.

아래로 영현(令顯), 주현(周顯) 두 아우가 있었다(조선시대 사마방목).

박양동(朴陽東)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 박씨 시조 향(恒)의 27대손이다.

자는 신여(信女)인데, 평소 부모에게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한 바가 탁월하여 헌종(憲宗) 14년 무신(武申 1848)년에 정려(旌閭)를 내리고 통사랑(通仕郎)으로 동몽교관(童蒙教官)에 보임(補任)되었다.

고종(高宗) 28년 신묘(辛卯 1891)년에 사망하였는데, 묘소는 기린면 방동리 양원(羊園)에 있다.

그에 대한 정려(旌閭) 원문은 다음과 같다.

「麒麟面風憲爲牒報事 本面居人朴陽東常有至性孝思定省養奉二親之節世人無不耳濡以目染牟去三月良中其母偶得重病日○病重夜夜祝天而想回春侍病耶時有嘗翼以侍蘇完而百藥無蘇居無何其母氣絕無告出外斷脂以孝血灌口則○遞己而唏唏三聲仍爲甦生言又司飲三日以後其母嚴氏永爲世棄荷非純誠篤實烏能涅此乎此孝行之大略也本面民人等議發文狀并以牒報爲臥乎事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涓至牒呈者右牒呈城 主庚申五月初香 風憲嚴…」

(인제군사)

박양훈(朴陽勳) : 조선시대 사람으로 밀양인(密陽人) 규정공(糾正公) 현(鉉)의 후손으로 호는 덕암(德庵)이다.

생, 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인제군지).

박여국(朴汝國) : 조선시대 사람으로 밀양인 규정공 현(鉉)의 후손이며, 상훈(祥勳)의 아들이다.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이 뛰어났으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운 공을 인정받아 동몽교관(童蒙敎官)에 보임(補任)되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박용업(朴龍業)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春川人) 인한(仁漢)의 아들로 자는 무업(武業)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박원굉(朴元宏) : 고려시대 사람으로 춘천 박씨 시조(始祖) 항(恒)의 맏아들이다.

공민왕(恭愍王) 때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며, 고려(高麗) 말에 중앙최고 의정기관인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평장사(平章事)에 이

르렀다.

그의 아들 안구(安具)는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그의 묘소는 원래 기린면 하마로(下馬路)에 있었으나, 기린대(麒麟臺)가 주둔하면서 인근의 진산인 태봉(泰鳳)으로 이장(移葬)하고 아담한 제당을 건립하였다.

묘지 전면에는 『려조평장사박원굉지묘(麗朝平章事朴元宏之墓)』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장문으로 된 석문(石文)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태가 창연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인제군사, 한국인의 족보, 유적과 지명).

박율(朴律) : 고려시대 사람으로 밀성대군(密城大君) 언침(彦忱)의 후손이며 흠(洽)의 아들이다.

어떤 연유로 해서 그가 인제대군(麟蹄大君)에 봉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후손들이 그를 시조(始祖)로 하고, 인제(麟蹄)를 본관으로 세계(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그의 후손 항(恒)⁵⁾은 고려 인종(仁宗)시에 좌정승(左政丞)을 지냈고, 정사훈(定社勳)으로 영암군(靈巖君)에 봉해졌음으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영암(靈巖)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후손 한보(閑甫)는 문주(文州) 박씨의 시조가 되고, 한보의 아들 광(光)은 이성계(李成桂)의 조부(祖父)인 도조(度祖)의 장인으로 안변부원군(安邊府院君)을 지냈다(인제군사, 한국인의 족보, 인제 박씨 세보).

5) 항(恒) : 춘천 박씨의 시조 항(恒)과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 영암 박씨의 시조 항은 문의공(文義公)으로 밀성대군(密城大君) 언침의 10세 손이고, 춘천 박씨 시조 항은 자가 혁지(革之)요, 호는 문의공(文懿公)으로 강남대군(江南大君) 언지(彦智)의 11세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박응방(朴應邦) : 조선시대 사람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이었다(인제군지).

박인한(朴仁漢)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 상규(尙奎)의 아들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박자명(朴自明)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 희양(希陽)의 아들이는데,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박정초(朴廷礎)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이다.

자가 용걸(龍傑)인데, 남해현감(南海縣監)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인제군사).

박정한(朴政漢)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이다.

상규(尙奎)의 아들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박희선(朴希善)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이다.

용기(龍寄)의 아들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박희양(朴希陽) : 조선시대 사람으로 춘천인이다.

용기(龍寄)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형 용업(龍業)이 무자(無子)하여 양자(養子)로 입적(入籍)하였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묘지석, 춘천 박씨 세보).

소씨(邵氏)

소광빈(邵光賓) : 고려시대 사람으로 평산인(平山人)이다.

경상도 안찰사(慶尙道按察使)를 지냈다.

소씨(邵氏)의 시조(始祖)는 본래 주(周)나라 소공(召公)의 원손(遠孫)이라 하며, 소자(召字)가 전(轉)하여 소씨(邵氏)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와 활약한 인물로는 고려(高麗) 명종(明宗) 때 경상도 안찰사(慶尙道按察使)를 지낸 광빈(光賓)과 문종(文宗), 숙종(肅宗) 때 문하시중수태사(門下侍中守太師)를 지낸 태보(台輔) 등이 있는데, 그 소목계통(昭穆系統)은 밝히기가 어렵다.

소씨(邵氏)는 평산 소씨 외에도 남양(南陽), 인천(仁川)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본관(本貫)이 있다고 하나 그 시조나 분포상황에 대하여서는 알 길이 없다(인제군지, 한국인의 족보).

신씨(申氏)

신재병(申在秉) : 조선시대 사람으로 평산인(平山人)이며, 자는 문항(文恒)으로 광징(光徵)의 아들이다.

정조(正祖) 8년 갑진(甲辰 1784)년에 태어났으며, 44세가 되는 순조(純祖) 28년 무자(戊子 1828)년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였다.

아래로 재인(在寅), 재규(在奎) 두 아우가 있었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인제문화 16집).

신흠(申洽) : 조선시대 사람으로 평산인이다.

영월대도호부원주진영병마동첨절제사(寧越大都護府原州鎭營兵馬

同僉節制使) 통훈대부(通訓大夫)를 지냈다고 한다(인제군사, 인제군지).

심씨(沈氏)

심량민(沈良敏)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靑松人)이다. 덕부(德符)의 18세손으로 정하(正夏)⁶⁾의 둘째 아들이며, 자가 량수(良洙)다.

영조(英祖) 정축(丁丑 1757)년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에서 태어났다. 모친은 평창 이씨이고 처는 김해 김씨이다.

그는 절충부호군(折衝副護軍)을 지냈고, 형 잠민(潛敏)은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고 한다.

사망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묘소는 덕산리 춘우대(春雨臺)에 있다(청송 심씨 대동세보, 묘지석).

심봉호(沈逢浩)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 사극(思極)의 후손이며, 휘백(彙伯)의 아들이다. 부인은 전씨 이씨이다.

숙종(肅宗) 11년 을축(乙丑 1685)년에 태어났으나, 사망 연대는 알 수 없다. 인제읍 덕산리 한양동(漢陽洞)에 석비(石碑)가 있는데, 비 전면에는 『德山○饑饉水○○總人員萬世不忘碑(덕산○○기근수○○충인원만세불망비)』라 기록되어 있고, 후면에는 『康熙四十六年⁷⁾丁亥六月日建○沈逢浩(강희사십육년정해육월일건○심봉호)』라고 되어 있다.

현지 원로 분들의 구전과 비문의 일부를 풀이해 보면 수해로 인하여 굶주리고 있는 덕산리 주민들 모두에게 양곡을 나누어 주는 등 향리

6) 정하(正夏) : 수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고 한다.

7) 강희 46년 : 강희(康熙)는 청의 연호로 조선 숙종 33년에 해당되므로 서기로는 1707년이 된다.

(鄉里)인을 사랑하고 이웃간에 정의를 두텁게 하여 모두가 흠양(欽仰)하였고, 그의 은덕을 후세에 알리고자 주민들이 이 비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인제군사).

심삼상(沈三相)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이다.

덕부(德符)의 13세손이며, 이명(以溟)의 아들로 자는 태운(泰雲)이다.

현종(顯宗 1670년)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에서 태어났다.

모친은 충주 이씨이고, 처는 삼척 김씨이며, 효성이 극진하였는데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추증(追贈)되었다.

영조(英祖) 경진(庚辰 1760)년에 사망하였으며, 묘소는 덕산리에 있다(청송 심씨 대동세보, 묘지석).

심상하(沈相河)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 덕부의 19세손으로 자가 청여(淸汝)다.

순조(純祖) 갑자(甲子 1804)년에 인제군 남면 남전리(藍田里) 항동(項洞)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호민(浩敏)이고, 모친은 영일(迎日) 정씨이며, 아래로 누이가 있었다.

효심이 지극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증직(贈職)되었는데, 그의 처 양친 허씨 또한 효부로서 정려(旌閭)를 받았다.

그는 고종(高宗) 병술(丙戌 1886)년에 사망하고, 처 허씨는 고종 갑자(甲子 1864)년에 사망하였는데, 묘소는 남면 남전리 항동 면곡(免谷)에 있다(청송 심씨 인제공세보).

심승보(沈承保)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 덕부의 6세손이며, 인제(麟蹄)의 청송 심씨 입향조(入鄉祖)다.

자는 계창(啓昌)이고, 호는 인제(麟蹄)이다. 중종(中宗) 계미(癸未 1523)년에 한양에서 태어났다. 부는 부장(部將)을 지낸 자청(自淸)이고, 모는 경주 이씨이다. 위로는 형 승선(承善)이 있고, 아래로는 아우 승려(承呂)가 있다.

한때 선무랑(宣務郎)을 지냈으나, 벼슬에 뜻을 거두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특히 도학(道學)에 정통하였으며, 신선과 같이 일생을 명승지를 유람하며 유유자적(悠悠自適)하였는데, 인제에서 여러 해를 머무르는 동안 설악산의 절경에 심취되어 많은 시문(詩文)을 남겼다고 하며, 그런 연고로 호를 인제(麟蹄)라 하였다.

말년에는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머지않아 난세(亂世)가 계속될 것 같아 강원도 인제에 살 터를 정해 놓고 왔다. 그 곳은 앞으로 300년간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이름난 땅이다. 300년이 지나면 또 한번 난을 겪을 것이니, 그 전에 남쪽으로 다시 옮겨서 자손들이 창성(昌盛)할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 곳에 묻어 줄 것이고, 너희들도 때가 되거든 그 곳으로 가서 충·효와 근면을 근본으로 삼아, 학문을 익혀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고, 농경(農耕)을 생업으로 하며 벼슬길에 나서지 말라.” 하였다.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1574)년에 그가 떠나니 후손들이 유언(遺言)에 따라 강원도 인제군 동면(東面)⁸⁾ 원대리 비록동(飛鹿洞)에 다 묘소를 마련하였다. 둘째 아들 위(渭)는 자가 자운(子胤)이고, 호는 원대(圓臺)인데 선조(宣祖) 12년 을묘사화(乙卯士禍 1579)를 피하여 인제로 오게 되었다.

후손들은 승보(承保)의 유언을 좌우명으로 하여 대대로 인제에 뿌리 내리게 되었는데, 그 결과 후손 사인(思仁 : 13세손)과 효삼(孝

8) 동면(東面) : 현재의 원대리(院垞里)와 하추리(下楸里), 귀둔리(貴屯里) 지역으로, 당시에 하추리는 하추동(下楸洞)과 상추동(上楸洞)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귀둔리는 이탄리(耳呑里)라 하였다.

제1장 향토사

參 : 14세손), 상하(相河 : 23세손), 동섭(24세손)은 효행으로 첨중추(僉中樞), 동중추(同中樞),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고, 호민(浩敏 : 22세손)은 학행(學行)으로 명성을 높여 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고종(高宗) 7년 경오(庚午 1870)년에 나라에서 인제군 남면 관대리에 정문(旌門)을 세워주었는데, 그 뒤부터 이 집 가문을 “정문댁”이라 했다(청송 심씨 대동세보),

심연(沈演)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 덕부의 6세손으로 응삼(應參)의 아들이다.

자가 군함(君涵)이며,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다.

부인은 전주 최씨이며, 인조(仁祖) 을해(乙亥 1635)년에 출생하여, 숙종(肅宗) 신사(辛巳 1701)년에 사망하였다(인제군사, 청송 심씨 대동세보).

심이명(沈以溟)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이다.

덕부의 12세손이며, 유탉(宥澤)의 아들로 자는 석손(石孫)이다.

효종(孝宗) 경인(庚寅 1650)년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에서 태어났다. 모친은 전주 이씨이고, 처는 충주 이씨이며,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영조(英祖) 갑자(甲子 1744)년에 사망하였으며, 묘소는 덕산리 하촌(下村)에 있다(청송 심씨 대동세보, 묘지석).

심재택(沈載澤)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이다. 덕부의 후손으로 정준(正濬)의 아들이며, 자는 명서(明瑞)다. 순조(純祖) 경진(庚辰 1820)년에 태어났으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 모친은 밀양 박씨이고, 처는 평해 황씨이다. 사망 연

도는 알 수 없으나, 재택의 묘소는 대흥리(大興里) 후평(後坪)에 있고, 처 황씨의 묘소는 남면 정자리(亭子里) 기령골(祺永谷)에 있다(인제군사, 청송 심씨 대동세보).

심준학(沈俊鶴)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 덕부의 후손으로 휘중(彙仲)의 아들이며, 자는 준학(俊學)이다.

숙종(肅宗) 경진(庚辰 1700)년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에서 태어났으며, 무과(武科)에 합격하고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냈다.

사망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리빙스톤교 건너편에 석비(石碑)가 있다. 비문(碑文)에는 『折衝將軍沈公之淑夫人邊氏之墓/青松后人俊鶴/長子繼天/次子繼崇/三子士夫/崇禎紀元後庚申⁹⁾三月日立(절충장군심공지숙부인변씨지묘/청송후인준학/장자계천차자계송삼자사부/숭정기원후경신삼월일입)』이라고 새겨져 있다(인제군사, 청송 심씨 대동세보).

심천택(沈天澤)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이다.

덕부(德符)의 11세손이며, 효삼(孝參)의 아들로 자가 선극(善克)이다. 인조(仁祖) 을축(乙丑 1625)년에 인제군 남면 남전리 향동(項洞)에서 태어났다. 모친은 밀양 박씨이고, 처는 문화 유씨다.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으며, 숙종(肅宗) 을해(乙亥 1695)년에 사망하였는데, 묘소는 태어난 곳 향동에 있다(청송 심씨 대동세보).

심춘택(沈春澤)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 덕부의 후손으로 진원(鎭遠 : 자 敬運)의 장남이나, 사촌형 경원(敬遠 : 자 敬九)이 무자(無

9)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 숭정은 중국 명나라 연호(年號)로 숭정 기원은 인조(仁祖) 6년 무진(戊辰)에 해당되므로, 기원 후 경신(庚申)이라 하면 1680년이어야 하나, 출생 연대로 보아 타당치 않으므로 두 번째 경신년(庚申年)인 1740년으로 보아야 타당함.

子)하여 그의 양자가 되었다.

철종(哲宗) 임자(壬子 1852)년에 남면 관대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도하는 마음이 극진하였고, 일곱 살 때에 모친이 병환을 얻자 쾌차하기를 하늘에 빌며 손가락을 잘라 나오는 피를 모친께 흘려 넣어 수일간을 소생케 하였으며, 돌아가신 후에는 시묘살이 3년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나이 불과 10살 밖에 안되었을 때의 일이라 이를 가상히 여겨 관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비각도 세웠다고 하나 지금은 소멸되고 없다. 『강원도지』나 『청송 심씨 대동보』에 실려 있기를, 『以孝行事載三綱錄』(이효행사재삼강록)이라 기록되어 있다.

부인은 경주(慶州) 이씨이고, 그 후인으로 상하(相夏), 상은(相殷)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다.

사망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묘소는 북면 월학리(月鶴里) 송학동(松鶴洞)에 있다(강원도지, 인제군사, 청송 심씨 대동세보).

심효삼(沈孝參)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송인 덕부의 10세손이며, 자는 백원(百源)이다.

선조(宣祖) 을사(乙巳 1605)년에 인제읍 원대리 분토골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사인(思仁)이고, 모친은 전주 이씨이며, 처는 밀양 박씨이다. 효행을 인정받아 첨중추(僉中樞)에 증직(贈職)되었으나, 49세에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남면 남전리 항동(項洞)에 있다(청송 심씨 대동세보, 묘지석).

안씨(安氏)

안경순(安敬淳) : 조선시대 사람으로 순흥인(順興人)이다.

문성공(文成公) 유(裕)의 후손으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

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양씨(楊氏)

양교회(楊敎熙) : 조선 말기 사람으로 호는 학파(鶴波)이며, 청주인(淸州人)이다.

심지가 강직하고 신의가 두터운데다가 서예와 한학(漢學)에 능하였으며, 생전에 후세들의 육영사업에 진력하다가 세상을 뜨자, 그의 유덕(遺德)을 깊이 추모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성금으로 1930년 남면 김부리 비독재 기슭인 백자동(栢子洞) 길 옆에 불망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에는 『鶴波先生楊公敎熙傳學不忘碑/孔夫子誕降二千四百八十一年庚午九月一日(학과선생양공교회전학불망비/공부자탄강이천사백팔십일년경오구월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비각(碑閣) 우측에는 찬성장참판(贊成長參判) 이병관(李炳觀)이 쓴 『찬양문(讚揚文)』이 게시되어 있고, 좌측에는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김용관(金容觀), 박재극(朴在極), 한성조(韓聖朝), 백락언(白洛彦), 전인균(全仁均), 김동화(金東華), 양내욱(楊乃郁), 김재희(金在熙), 한상복(韓象福), 양창근(楊昌根), 박희철(朴熙鐵), 한윤수(韓允洙), 위승환(魏昇煥), 동태석(童泰錫), 현대승(玄大昇), 한경성(韓景成), 허도(許鍍), 최근춘(崔根春), 신○○(申○○), 허전(許銓)

(인제군지, 인제군사, 현지 답사).

엄씨(嚴氏)

엄공경(嚴恭敬) : 조선시대 말기 사람으로 기린면(麒麟面)이 춘천

도호부(春川都護府)의 속현(屬縣)으로 있을 당시 엄청나게 많은 공납품(貢納品)이 배당되어 현민(縣民)이 이를 납품하지 못하는 한편 기근(饑饉)에 처해 있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부사(府使)를 찾아가서 지방 실정과 열목어, 달피, 인삼 등 수십 종의 진사품(賑事品)에 대하여 능변(能辯)으로 구진(具陳)하여 현민이 면세(免稅)하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현민들이 기린면 진동리(鎭東里)에 불망비를 세웠다.

그의 형은 능참봉(陵參奉)을 지냈다고는 하나 확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석비).

임씨(林氏)

임필벽(林必壁) : 조선시대 사람으로 평택인(平澤人)이다.

고종조(高宗朝)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은 하지 않았다(인제군지).

유씨(柳, 兪氏)

유구열(柳龜烈) : 조선시대 사람으로 문화인(文化人)이다.

구열(龜烈)은 그의 초휘(初諱)이고, 재구(在龜)로 더 알려져 있다. 근우(根雨 자 亨順)의 차남으로 영조(英祖) 8년 임자(壬子 1732)년에 태어나 91세가 되는 순조(純祖) 22년 임오(壬午 1822)년에 사망하였다.

서사(筮仕)¹⁰로 조선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부인 신의왕후

10) 서사(筮仕) :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다시 대과(大科)에 응시하지 않고 관직에 봉직(奉職)함을 말한다.

(神懿王后)의 제능참봉(齊陵參奉)을 지내다가 호조참의(戶曹參議)로 발탁되었으며, 뒤에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수작(受酌)하였다. 특별히 식견이 높고, 표리(表裏)가 교결(皎潔)하며, 효우(孝友)가 출천(出天)하였다고 한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김해 김씨이고, 묘소는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직금(織錦)이 고개를 올라서면 나지막한 구릉인 의식동(衣食洞)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남리 하남초등학교 앞 국도변에는 비각(碑閣)이 있다.

이 비각은 그가 생존시에 이 고장의 가난한 유생(儒生)들에게 베풀어 준 선정(善政)의 뜻을 기리기 위한 거사비(去思碑)로 1911년에 건립되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유씨(柳氏) : 조선시대 사람으로 영천인(永川人) 이임수(李恁守)의 처인데 진주인(晉州人)이다.

남편 임수는 자헌대부 병조판서(資憲大夫兵曹判書)를 역임한 응수(應秀)의 12세손으로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었다.

유씨는 여인으로서의 정절을 지키고 효(孝)를 으뜸으로 삼았으며, 종사(宗祀)를 봉양함에 소홀함이 없었으나, 불행하게도 가산(家産)이 없고 생활이 궁핍하여 남편을 따라 관서(關西)의 황해도 등지를 떠돌아 다니던 중 남편은 담해(痰咳)의 병이 들어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가까운 친척마저 없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구걸을 하며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남편을 고향에 안장하였으나, 가진 것이 없어 제수(祭需)를 마련하지 못함에 곡을 하며 슬피 우니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듯 홀연히 물고기가 튀어나오고 꿩이 날아들어 정성껏 제사를 모실 수 있었다고 한다.

유씨는 백발이 되도록 개가(改嫁)하지 않고 절개를 지켜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내리고, 고종(高宗) 2년 을축(乙丑 1865)년에 남면 정자리 응봉(鷹峰)재 기슭에 열여비와 아울러 비각을 세웠는데 아쉽게도 6·25 당시 불타버렸다.

유씨의 표창완의문(表彰完議文)과 비문(碑文)의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烈婦柳氏褒彰完議文—

「本所建 孔夫子廟刊五倫行實以爲尊聖獎善而列郡單子筵續來到中謹按江原道有司及儒林薦狀則麟蹄郡南面亭子里烈行柳氏籍愛所倡義功臣資憲大夫兵判諡忠莊諱應秀十二世孫女原從○功臣正憲大夫工判○伯十四世孫永川人李恁守之妻也姿性眞見聞習熟及笄于歸孝事舅姑敬奉先祀小無欠禮時值歲歉又遭親喪家產空竭無所依托率妻子流離轉客于黃海道等地而因以痰咳累年委席及其危篤其妻柳氏撫屍號天及殯歛窆于堤上負兒還鄉則無強近之親返柩無策氏遺幼兒於親庭一身村村焉乞至于海州戴屍還鄉安窆先隴第當其夫忌辰以家勢貧窶無以祭奠悽愴哭泣之際忽有魚躍雉入之異俱僞祭需隣里咸歎豈非烈行之達于天而感於物者乎其卓昇之行登緒士論刻薦繡題積成卷軸而尚未聞揚始林之○○ 輿情之含恨愈久愈深云故本所聞而感之將以付鈐登梓使之立石建閣以爲褒彰而壽傳芳名廣○風教以永存不朽之意此完議文事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年 月日 孔夫子聖蹟圖五倫行實重刊所 都約長代辨朔立約長 都有司 都事 鄭殷采 約長判書 朴箕陽……京畿道都有司 承旨 李胤鍾…咸鏡道都有司主事 李達勳…」

—烈女晋州柳氏李恁守妻碑文—

「大瓦婦人之烈行 百善之首宜所固當行而至於行止則難故或有卓異之烈行必爲舉薦而褒揚之易不休歟今按江原道麟蹄郡南面亭子里烈女柳氏籍晋州原從功臣資憲大夫工曹判書韓伯后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諡忠莊諱應秀十二世孫永川人李恁守妻天姿素仁承襲姆教永友無全百行俱備于歸孝舅姑敬君子資養志體未嘗小懈時適歉荒不幸遭艱家產空乏生資無算與其夫流轉關西夫以痰咳累年因以終命猝當巨創葬尊無資乃殯堤上負兒還鄉焉乞面村戴尸安葬當其忌辰祭需辨不得虎泣蹈地誠感所格野雉飛入官營巡相題音積成卷軸尙欠棹楔之典故士議詢同將伐石立碑屬文于餘義不敢辭撫其實繼之銘柔婉其性 流轉關西 正乞取資 勒石紀蹟 介潔其行 喪其所天 戴尸返葬 名傳萬年

歲在乙丑(1925) 九月上浣

通政大夫前承政院在承地兼 經筵參贊官春秋官修撰官 達城后人 徐光弼 撰」

완의문(국역)

본 所가 공자묘에서 尊聖께서 선을 정려하심에 따라 오류행실을 새겨 왔는데 여러 군에서 單子가 연속 들어오고 있다.

그 중 강원도 유사급 유림의 추천장 즉 인제군 남면 정자리 烈行 유씨의 籍은 진주 창의공신 자헌대부 병조판서 諡 충장 諱 應秀의 12세 손녀로 원로공신 정현대부 공조판서 諱 伯의 14세손인 영천인 이임수의 처다.

성품이 곧고 보고 들어 배운 것이 많은 여인으로 시아비를 공경함에 효를 으뜸으로 하였으며, 先祀를 봉양함에 소홀함이 없었다. 喪을 당하고 나서는 家勢가 어렵고 생활이 궁핍하여 의탁할 곳조차 없어 온 식솔이 황해도 등 객지를 떠돌았는데, 남편이 痰咳로 수년을 병석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처 유씨는 구걸을 하여 장사지내고, 아이들과 고향에 돌아왔으나 가까운 친척조차 없어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혼자 海州로 가 남편의 시신을 거두어 돌아와 고향의 先塋에 안장하였다.

첫 기일을 맞았으나 가세가 빈궁하여 祭需를 마련하지 못하고 곡을 하며 슬피 우니 홀연히 물고기가 튀어나오고, 꿩이 날아들어와 그것으로 정성껏 제사를 모시니 인근 마을에 사는 이들이 감탄해마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오로지 하늘도 감동했음이니라.

그의 탁월한 행실이 알려지자 많은 선비들의 추천하는 서신이 헤아리기 어려울만큼 쌓이고, 士林들과 백성 모두가 흠모하여 탄식하니 본 소에서도 그 소문에 감동하여 장부에 올리고 石碑와 亭閣을 세워 표창함은 꽃다운 이름이 오래 기억되고, 넓은 숲에 이는 바람처럼 永存不朽하도록 完議하는 바이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윤씨(尹氏)

윤씨(尹氏) : 조선시대 사람으로 파평인(坡平人)이다.

인제읍 고사리 피아시 출신으로 강릉인(江陵人) 문장공(文壯公) 최공업(崔功業 자 孟福)의 후손인 상혁(相赫)의 처다.

윤씨는 헌종(憲宗) 5년 기해(己亥 1839)년에 출생하였으며, 광무(光武) 8년 갑진(甲辰 1904)년에 세상을 떴다. 최씨 문중으로 출가 온 윤씨는 장사를 하러 떠난 남편이 예순이 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자, 시숙(媿叔)을 장가보내 가문을 이루게 하고, 어려운 살림에도 오직 수절(守節)은 물론 삼을 삼아 베를 짜고 때로는 땀나무도 채취하면서 아들 유희(裕熙)의 교육을 위하여 삼천지교(三遷之敎)하는 등 일편단심으로 여생을 보냈다.

윤씨의 묘소는 인제읍 하추리에서 북동쪽 20여 리 지점인 농금덕(弄琴德)에 있으며, 생전의 헤아릴 수 없는 미담(美談)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1926년 정려각(旌閭閣)을 세웠다고 하나 전화(戰禍)로 인하여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윤씨의 표창완의문(表彰完議文)은 다음과 같다.

— 烈女坡平尹氏旌閭文 —

「本所瓶建 先聖廟重刊五倫行實以爲尊聖明倫而列郡筆子次第來到中卽接關東有司及多士薦章則該道內麟蹄郡麟蹄面古沙里故烈女婦坡平尹氏卽逸右相明齊先生諱○之后裔他年統及笄出嫁于江陵人文壯公江陵府院君后汝七子崔功業之門子歸以後琴瑟和諧才過八載夫君一出不歸陌頭之楊柳屢換玉窓之櫻桃頻發山重水復魚雁不來日居月諸星霜變遷人或有甘言誘之人生百年之間以鷺鳥之過眠前何必區區守節虛度芳時一聞此言頭髮上豎辭氣凜烈言者無聊而退興媿叔與蕩子獨守空閨雖曰健婦持門家產漸至難保而勤儉自治躬自採薪其於縫織傭賃無有不能一心冰霜矢靡適撫育稚兒三遷之敎日以勤摯崔氏一門賴以不墜年過六旬以終天年子正化孫永達能遵內訓本所聞而感歎付錄登梓使之建閣豎碑以傳芳名以圖不朽故此完議文事

孔天子誕降二千四月七七年六月日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重刊淵源儒林鄉約本所

都約長瓶立約長代辨先聖廟都有司鄭成熙…」

(인제군지, 인제군사)

윤태익(尹泰益) : 조선 말기 사람으로 호는 사해(史海)다.

파평인(坡平人)이며, 시중(侍中)을 지낸 관(權)의 후인으로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다(인제군지).

이씨(李氏)

이강원(李康原) : 조선시대 사람으로 전주인(全州人)이다.

고종(高宗) 31(1894)년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
가 되었다.

고종 11년 갑술(甲戌 1874)년에 태어났으며, 부친은 기백(起伯)이
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인제문화 16집).

이견의(李堅義) : 조선시대 사람으로 호는 회헌(晦軒)이고, 시호는
숙경(肅敬)이며 인제인이다.

인제 이씨 시조인 원철(原哲)의 증손인데, 세종(世宗) 11년 을유
(乙酉 1429)년에 생원으로 급제하여 예조정랑(禮曹正郎), 사헌부장
령(司憲府掌令),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을 거쳐 사예(司藝)로 있을
때 국서(國書)를 받들고 대마도(對馬島)에 들어가 도주(島主)의 죽음을
조문(弔問)했다. 그 후 지여산군사겸권농사(知礪山郡事兼勸農使)
를 지내고 전라도관찰사겸병마단련사(全羅道觀察使兼兵馬團練使)를
거쳐 보문관직제학(寶文館直提學)에 이르렀다.

인제(麟蹄) 이씨 족보에는 원종정사좌명공신(原從定社佐命功臣)이
라 기록되어 있으나, 공신록(功臣錄)에는 들어 있지 않다(한국인의
족보, 인제 이씨 족보갑편).

이경화(李景和) : 인제인(麟蹄人)이며, 고려(高麗)의 문신으로 숙종조(肅宗朝)에 문과 급제하여 첨추(僉樞)를 지냈다(강원도사, 방동인).

이경화(李景華) : 조선시대 사람으로 숙종(肅宗) 정묘(丁卯 1687)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첨추(僉樞)를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이규태(李奎泰) : 조선시대 사람으로 초명은 태규(泰奎)이며, 평창인(平昌人)이다.

고종(高宗) 25(1888)년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였다.

고종 11년 갑술(甲戌 1874)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부친 시영(時榮)은 고종 19(1882)년에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는데, 그 후 6년 뒤에 얻은 영광으로 불과 14세의 어린 나이였다.

아우 정규(鼎奎), 익규(益奎)가 있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인제문화 16집).

이노규(李魯奎) : 조선 후기 사람으로 효자(孝子)로 이름이 났다.

병중에 있는 부모의 약 시중을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 떨어진 피를 가지고 제단에 빌어 이미 끊어졌던 목숨을 소생시켰고, 여러 달 약을 구하려고 애를 쓰니 얼음 속에서 물고기가 절로 뛰어 나왔으며, 3년 동안 묘 옆에 초막(草幕)을 짓고 살 때 신령스런 샘이 저절로 솟아올랐다고 한다.

이는 오로지 하늘과 귀신이 감격했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였으며, 많은 선비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표창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고종(高宗) 11(1874)년에는 강원도 암행어사 유석(柳奭)이 또 이

를 보고하였으나 이미 그가 죽은 뒤여서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은전을 베풀어 표창하였다. 이렇게라도 표창의 뜻을 보이는 것은 풍속을 바로 세워 효행을 장려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고종실록, 인제문화 16집).

이대규(李大奎) : 조선시대 사람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이덕림(李德林) : 고려시대 사람으로 인제 이씨 시조(始祖)인 원철(原哲)의 아들이다. 관직은 가정대부삼사좌윤대광도첨의정승(嘉靖大夫三司左尹大匡都僉議政丞)을 지냈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연안 이씨(延安李氏)이며, 묘지는 인제(麟蹄)에 있다고 하나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인제문화 16집, 인제 이씨 족보).

이면옥(李冕郁) : 조선시대 사람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인제군지).

이명영(李明榮) : 조선시대 사람으로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냈다(인제군사).

이백(李伯) : 조선시대 사람으로 인제인(麟蹄人) 원철(原哲)의 손자이다.

관직은 강원도사(江原都事), 전의부정(典醫副正), 상장군(相將軍) 등을 역임하였다.

아들 견의(堅義)가 귀한 신분이 되어 사후(死後)에 자헌대부 이조판서(資憲大夫 吏曹判書)에 증직(贈職)되었다(인제문화 16집, 인제

이씨 족보, 한국인의 족보).

이상보(李尙輔) : 조선시대 사람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이상신(李尙新) : 조선시대 사람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다(인제군사).

이시영(李時榮) : 조선시대 사람이며, 자는 미유(美有)이고, 평창인(平昌人)이다.

고종(高宗) 19년 임오(壬午 1882)년에 증광시(增廣試)에 갑등(甲等)으로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광무(光武) 3년 기해(己亥 1899)년에는 군사 최고기관이었던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헌종(憲宗) 14년 무신(戊申 1848)년에 출생하였으며, 1939년에 사망하였다.

생존시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 1928년 9월에 동리 주민들이 인제읍 남초등학교 정문 어귀에 자선기념비를 건립하였다.

비의 전면에는 『正三品中樞院議官李公時榮慈善紀念碑/損義積仁/施澤於郡/恤窮賜貧/治德干隣(정삼품중추원의관이공시영자선기념비/손의적인/시택어군/홀공사빈/치덕간인)』이라 새기고, 후면에는 『昭和三年戊辰九月日 東里(소화삼년무진구월일 동리)』라고 새겨져 있었으나 현재는 훼손되어 그 자리에 남아 있지 않다.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을 보면 그는 한때 관동소모진군관(關東召募陳軍官)으로 있으면서 당시 군수였던 김태진(金太鎭)과 함께 동학운동(東學運動)을 저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부친은 현주(顯壽)이고, 위로는 회영(晦榮), 치영(致榮) 두 형이 있

고, 아래로는 아우 명영(明榮)이 있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인제문화 16집).

이시옥(李時玉) : 조선시대 사람으로 호가 포암(浦岩)이며, 평창인(平昌人)이다.

고려 개국공신(高麗 開國功臣)으로 광록대부대사마대장군(光祿大夫大司馬大將軍)이 되었다.

평창부원군(平昌府院君)에 봉(封)해진 윤장(潤張)의 후인으로 문학에 뛰어났으며,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인제군사, 한국인의 족보).

이시익(李時益) : 조선시대 사람으로 호가 남일(南逸)이며, 평창인(平昌人)이다.

윤장(潤張)의 후인으로 고종조(高宗朝)에 음서(蔭敍)¹¹⁾로 수능참봉(綏陵參奉)을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이영순(李泳淳) : 조선시대 사람으로 평창인(平昌人)이다.

본명은 영훈(泳薰)이고, 자는 여직(汝直)이며, 영순(泳淳)은 그의 초휘(初諱)다.

정조(正祖) 10년 병오(丙午 1786)년에 인제군 기린면(麒麟面)에서 태어났는데, 고려 태조 때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광록대부대사마대장군(光祿大夫大司馬大將軍)에 오르고, 백조 부원군(白鳥¹²⁾府院君)에 봉(封)해진 윤장(潤張)의 후손이다.

11) 음서(蔭敍) : 공신(功臣)이나 현직 당상관(堂上官)의 자손으로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계에 진출한 음사(蔭仕)와,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大科)를 보지 않고 관계에 봉직(奉職)한 음사를 통칭함.

12) 백조(白鳥) : 현재 평창(平昌)의 옛 이름.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 가사일을 열심히 도우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어른들에게도 예의를 다하며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성장해 가면서 그의 효심이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날 부친이 병환으로 눕게 된 후에 병에 좋다는 약을 백방으로 탐문하여 써 보았으나, 병은 점차 악화되어 사망 직전에 이르자 그는 단지주혈(斷指注血)로 부친의 생명을 백여 일간 연장하게 하였으나 끝내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묘소 옆에다 초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하며, 각각 3년씩 6년 동안을 시묘(侍墓)하였다.

그의 나이 37세가 되던 순조(純祖) 23년 임오(壬午 1822)년에 조정에서는 그가 부모에게 효도함이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함과 같으니 어찌 이런 사람이 혼하겠는가 하며 정문(旌門)을 내렸으며, 그 후 인근 마을 사람들이 정문택(旌門宅)이라 불렀다.

헌종(憲宗) 10년 갑진(甲辰 1844)년에 58세로 사망하였는데, 조정에서는 다시 그에게 이조참판겸판의금부사(吏曹參判兼判議禁府使)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증직(贈職)하였다. 또 그의 후손인 두모(斗模 1894~1962년)도 가풍을 이어받아 효행이 지극하여 1926년에 효행상을 받았다.

현재까지 효자 정려각이 기린면 현리 조롱고개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이전(移轉) 신축 중에 있다.

이옥녀(李玉女) : 조선 말기 사람으로 전주인(全州人)이며 상남면 상남리에 거주하는 민영통(閔泳統)의 부인이다.

그의 나이 열일곱 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죽자 3년 상을 치루고 첫 기일(忌日)에 음식을 끓고 마침내 남편의 뒤를 따라 죽었다.

그의 열행(烈行)이 조정에 알려지자 고종(高宗) 37년(1900) 10월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기린면 상남리 국도변에서 서북쪽으로 방아다리를 지나 약 10여 리 지점인 자포대 마을에 정려각이 있으며, 여기에는 송종언(宋鐘彦)의 글씨로 된 정려본기(旌閭本記)가 게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旌閭本記—

「閔泳統(1898~?)妻 李玉女年十七(1900~) 其夫死越三年初忌絶飲食積者日而殉朝嘉其節命旌閭其同里士人金容圭屬余爲記九三迭祭及言日女之忠於郡子之孝於親郎盡其職已牟記爲烈女之盡其職者豈易有戰昔衛共姜其夫餘以以靡他句矢○夏侯令女其夫曹死以斷髮爲信播於詩登於史爲百代卓異之節然斬一死正導率之化熙累治是以有以忠而旌以孝而旌旌以列而旌旌者比岩大大夫守禮家己自童○之時挾於耳稔於月以得之者○不神奇稱語者也今此李氏長子草歸嫁於士人去京師屢石○僻○年勸淺豈有而得目而得之者即以一種秉○大根於審奉舅姑以誠事君子以體前後左不逢其源及其天眼○客辨葬死人之所大惡者也李寧者不知然辨之者其心非有於天家也亦非要譽於黨閭間也學女子地止知有列而乙筭移此心以之事君則忠以之事親李氏之死爲其一閭而既死之後可以勵清節於百代也朝家之旌爲其婦李而旌旌之後可以樹凡聲於今也嗚呼世之百君子親此旌閭」

歲庚子陽日上澣日臺子

宋 鐘 彦記

국역

민통영의 처 이씨 나이 열일곱에 지아비가 죽자 3년 상을 치루고 첫 기일에 음식을 끊고, 마침내 남편의 뒤를 따라 죽으니 조정에서 그 정절을 가상히 여겨 열녀 정려각을 마을에 세우게 하니 사인(士人) 김용규(金用圭)라는 선비가 내게 그 기문(記文)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이 글을 지었으니 가로되 여자로서 그 남편에게 정절함은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함과 같아서 곧 그 근본을 다 함이니, 이렇듯 그 본분을 다하는 자가 어찌 쉽게 있으리오. 옛날에 위나라의 공강(共姜)은 지아비 여가 죽으니 따라 죽었고, 또 위(魏)의 하후령(夏侯令)의 딸은 그 지아비 조(曹)가 죽으니 머리털을 잘라서 다시 개과하지 않겠다는 신표(信標)를 삼았으니 이러한 일

이 시(詩)로 읊어져 전파되고, 역사의 기록에 올라서 백대(百代)에 두드러진 드문 정절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한 죽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바르게 일깨우고 거듭 밝히어 널리 본을 보임이니 이런 연유로 충신이나 효자에게 정려(旌閭)를 세우게 하듯이 열녀(烈女)에게도 정려각을 세우도록 함이 모두 같은 이치이다.

사대부로서 예절을 지키는 집안에서라면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행실에 관해 더러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해서 몸에 익히기도 할 것이나, 놀라운 일로 일컬을 것이 아니라고도 하겠지만 이에 이씨로 말하자면 시골에서 자라서 선비에게 시집을 갔으나 선비는 서울로 떠나갔으니, 깊은 산골에서 사는 어린 나이로 어찌 듣고 본바 있어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는 곧 타고난 그 큰 근본을 잘 지켜 왔음이니 시부모를 성심껏 모시고 남편을 섬겨 앞 뒤 모든 처사가 그 근원에서 같이 함이니, 이는 천성이 그러함이라 억지로 꾸며하지 못하는 일이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크게 꺼리는 바이니 어찌 그것을 분별해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한 그 고을이나 마을에서 칭송을 듣자고 한 죽음도 아니요. 다만 여자로서 배운 바가 정절을 지키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만약 이 마음을 그대로 옮겨 임금을 섬기면 곧 충성이 되고, 부모를 섬기면 효도가 되는 것이다.

이씨 부인은 죽음을 어찌 한낱 가엾은 일이라고만 하랴. 이미 한번 죽은 뒤에 가히 그 깨끗한 부녀(婦女)로서의 정절을 만대에 드러내 후세를 격려하는 본보기가 된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 이씨를 위해 열녀(烈女) 정려문(旌閭門)을 내리고, 정려각(旌閭閣)을 세워 그 정절을 높이 기리고, 훌륭한 사회기풍을 세워 오늘에 칭송함이 있게 되었다. 세상의 무릇 군자들은 이 정려각을 보고 몸소 본받도록 할 것이다(인제군사, 인제군지).

이용운(李龍雲) : 조선시대 사람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인제군사).

이용채(李龍彩) : 조선시대 사람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군자감(軍資監)을 지냈다(인제군사).

이원철(李原哲) : 고려시대 사람으로 인제(麟蹄) 이씨의 시조(始祖)다.

관직(官職)은 중추부원사 태사 광정대부 도첨의중찬 수문전대제학 문하평장사(中樞院府事 太師 匡靖大夫 都僉議中贊 修文殿大提學 門下平章事) 등을 역임하였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광산(光山) 김씨이다(인제문화 16집, 인제 이씨 족보).

이윤근(李潤根) : 조선시대 사람이나 생, 몰 연대나 출생지는 알 수 없다. 서화면 서화리 서화천(瑞和川) 건너편 능암(綾岩) 기슭인 재필골에 1925년에 건립된 효행정려비(孝行旌閭碑)가 위치하고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행이 하늘과 같이 지극하였고, 예의범절이 어론과 같았으며, 부친의 병구완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성으로 약을 달여 수발하였다. 또한 부친이 병환 중에 싱싱한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눈보라가 심한 강가에 나아가 얼음 위에 엎드려 울며 하늘에 기도하니 하늘도 감동한 듯 얼음이 갈라지며 잉어가 튀어나오므로 급히 잡아다가 달여 드렸고, 임종 시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으니 부친의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한다.

그의 생전에 이 사실을 조정에서 알게 되어 정려(旌閭)를 내렸으나, 비각(碑閣)은 건립하지 않았다.

정려완의문(旌閭完議文)과 포상장(褒賞狀)은 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고 전한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이은연(李恩淵) : 조선시대 사람으로 용인인(龍仁人)이다.

자는 윤부(胤夫)이고, 호는 운홍(雲鴻)이라 하였다가 뒤에 운학(雲鶴)으로 고쳤고, 휘는 사연(思淵), 정원(挺元), 승조(承祖)라고도 하며, 도호(道號)는 편운자(片雲子)다.

명종(明宗) 14(1559)년에 인제읍 덕적리(德積里) 현고촌(玄高村 : 현재는 고대라고 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창해(蒼海)이고, 어머니는 신평(新平) 이씨다.

그의 나이 열여섯이 되던 해에 출세에는 뜻이 없고 운림(雲林)에만 뜻이 있어 주역(周易)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높은 재주를 가졌을 뿐아니라 천시(天時)와 인사(人事), 만물의 이치를 달통하였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세상을 유람하며 지내다가 말년에는 무주 덕유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고 하는데 언제 사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생전에 행적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들이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고, 임진왜란(壬辰倭亂)과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예언하며 정확히 맞추는 등 식견(識見)이 높은 도인(導因)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러한 그의 신력(神力)을 보고 외국의 능호(能皓 : 호 洞見堂)라는 스님은 그를 신둔(神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인제군사, 용인 이씨 족보).

이응옥(李膺郁) : 조선시대 사람으로 한성부윤겸오위도총부총관(漢城府尹兼五衛都總府總官)을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이증운(李曾云) : 조선시대 사람으로 전주인(全州人)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의 후인으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다(인제군지).

이지선(李祉善) : 조선시대 사람으로 전주인(全州人) 형록(亨祿)의 증손이다.

예빈사(禮賓使)가 되었으며, 관직은 동중추(同中樞)에 이르렀다고 한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이창규(李昌奎) : 조선시대 사람으로 호가 동암(東庵)이다.

평창인(平昌人) 윤장(潤張)의 후인으로 수능참봉(綏陵參奉)을 지냈다(인제군사).

이창해(李蒼海) : 조선시대 사람으로 용인인(龍仁人)이다.

성종(成宗) 21년 경술(庚戌 1490)년에 예안현감(禮安縣監) 우윤공(右尹公)과 해주(海州) 오씨 사이에서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중종(中宗) 3년 무진(戊辰 1508)년에 제주도로 유람을 떠났다가 태풍을 만나 일본 동남쪽에 있는 지마도(志摩島)에 닿았다. 지마도주(志摩島主) 지원(持元)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사위가 되었다.

중종 15년 경진(庚辰 1520)년에 지원(持元)이 죽은 후에 도주(島主)가 되었다고 한다.

명종(明宗) 1년 병오(丙午 1546)년에 귀국하였는데, 부친이 “내가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네가 장자다. 아들이 없으니 장가를 들어야 할 것이다.” 하며, 간곡히 권하여 신평(新平) 이씨에게 장가들어 낳은 아들이 은연(恩淵)이라고 한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어렸을 때 유순정(柳順汀)의 집에 놀러갔다가 마침 성희안(成希顔), 박원종(朴元宗), 권균(權鈞), 안윤덕(安潤德) 등이 반정(反正)할 것을 의논하다가 신수영(愼守英)이 들어오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면서 비밀 문서를 빠트렸는데 재빨리 이를 감추

었다가 박원종에게 전해 주어 화를 면하게 되었는데, 중종(中宗)이 반정(反正)한 뒤에 그 공을 인정받아 『원종공신록(元從功臣錄)』에 등록되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원종공신록을 확인한 결과 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인제군사, 국조공신제명록).

이태성(李泰星) : 조선시대 사람으로 한성부좌윤오위도총부도총관(漢城府左尹五衛都總府都總官)을 지냈다(인제군사).

이현수(李顯壽) : 조선시대 사람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인제군사).

이홍렬(李弘烈) : 조선 말기 사람으로 경주인(慶州人)이다. 고성군 죽왕면(竹旺面) 도원리(桃源里)에서 1860년에 출생하였다.

이씨는 17세에 서화면 서화리 당촌(堂村) 마을로 시집와서 시부모를 봉양하던 중 시아버지와 남편이 중병으로 앓아 눕고 거동을 하지 못하자, 조석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며 정성을 다하여 약 시중을 들고 쾌차하기를 빌었으나 애쓴 보람도 없이 모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씨는 곧 장지(葬地)를 찾기 위하여 험한 산길을 일주일간이나 헤메었는데, 그 정성에 감응한 탓인지 호랑이가 신변을 호위하여 주었으며, 산 주인(山主人)도 이에 감탄하여 장지를 제공하였다 한다.

이씨는 또 남편을 따라 죽기를 결심하였으나, 강보에 쌓인 젖먹이 어린아이가 가까운 친척이나 돌볼 사람이 없으므로 결행하지 못하였는데, 가슴에 항상 비수(匕首)를 품고 수절하였으며, 온갖 미덕(美德)으로 아들을 가르켜 출세의 길을 터 주니, 향리(鄉里)의 선비들이 이를 조정에 알려 경학원 태학관(經學院太學館)에서 효열표창(孝烈表彰) 수여와 함께 정려(旌閭)를 내렸다.

서화면 서화리 서화천(瑞和川) 건너 능암(綾岩) 재피골에다 정려각을 건립하였었다고 하나 6·25의 전화(戰禍)로 소실되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인제군사).

이회영(李晦榮) : 조선 말기 사람으로 자는 천유(天有)이며, 평창인(平昌人)이다.

고종(高宗) 22(1885)년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였다.

1836년에 출생하였으며 부친은 현주(顯疇)이고, 아래로 시영(時榮), 휘영(暉榮), 명영(明榮)이 있다(인제문화 16집, 조선시대 사마방목).

장씨(張氏)

장두선(張斗善) : 조선시대 사람으로 인동인(仁同人)이며, 태사(太師) 정필(貞弼)의 후손이다.

수직(壽織)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정씨(鄭氏)

정도(鄭導) : 조선시대 사람으로 지금의 인제읍 상동리에서 태어났다.

학업에 진력하여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여지도서, 인제군지).

정립(鄭垚) : 조선시대 사람으로 자는 여수(汝秀)이고, 영일인(迎日人)이다.

선조(宣祖) 33(1600)년에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검열(檢閱), 지평(持平), 정언(正言)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이어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승진하였다.

광해군(光海君) 3(1611)년에는 집의(執意), 사간(司諫) 등을 지내고, 2년 뒤에는 승지(承旨)가 되었다.

다시 5년 뒤에는 병조참의(兵曹參議)와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지냈으며, 뒤에는 황연도(黃延道), 강원도(江原道), 충청도(忠淸道)의 관찰사(觀察使) 등을 지내다가 인조(仁祖)가 즉위(卽位)하자 도승지(都承旨)로서 광해군 때 제주(濟州)에 안치되었던 연흥부인(延興夫人)을 모시고 돌아왔다.

그 이듬해인 인조 2(1762)년에는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건너가서 덕천가광(德川家光)의 습위식(襲位式)에 참가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46명을 데리고 돌아와 공조참판(工曹參判)이 되었다(한국인의 족보).

정씨(鄭氏) : 조선 말기 사람으로 영일인(迎日人)이며, 1876년에 태어나 17세가 되던 해에 인제읍 덕산리 해주인(海州人) 최승수(崔承洙)와 혼인하였다.

남편 최승수의 나이는 18세였는데, 결혼한지 이틀만에 회양군(淮陽郡) 내금강산(內金剛山)의 장안사(長安寺)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떠났으나, 도중에 혹한(酷寒)과 눈보라로 불행하게도 동사(凍死)하고 말았다.

정씨(鄭氏)는 남편이 떠난 후 소식이 오기만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다가 장안사를 찾아갔으나 오지 않았다는 스님의 말씀에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오던 길을 되짚어 가며 남편을 찾았으나, 폭설로 인하여 찾지 못하고 이듬해 봄눈이 녹을 무렵 다시금 용기를 내 찾아 나섰다가 길가에서 책을 꺼안고 일어 죽은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씨는 남편의 시신을 거두어 장안사로 가서 화장하여 장사지내고

집으로 돌아와 재가(再嫁)하지 않고, 백발이 되도록 수절하자, 조정에서 열여정려(烈女旌閭)를 내리고, 1925년에는 인제읍 덕산리 양지 마을에 열여비를 건립하였으나 6·25 전화(戰禍)로 소실되고 지금은 자취를 찾아 볼 수가 없다(인제군사).

정우영(鄭遇永) : 조선시대 사람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인제군사).

정의원(鄭義元) : 조선시대 사람으로 호는 운헌(雲軒)이며, 영일인(迎日人)이다. 공조참판(工曹參判) 정립의 후인으로 첨중추(僉中樞)를 지냈으며, 수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동정하였다고 한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정응철(鄭應哲) : 조선 후기 사람으로 봉화인(奉化人)이다.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정도전(鄭道傳)의 후인으로 고종(高宗) 정묘(丁卯 1867)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며,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를 지냈다(인제군사, 한국인의 족보).

정희수(鄭噫洙) : 조선시대 사람으로 영일인(迎日人)이며, 가선대부(嘉善大夫) 의원(義元)의 아들이다.

인제 덕산리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품성이 인후하여 기한자(飢寒者)를 보면 진시구호(振施救護)¹³⁾하므로 향리(鄉里)에서는 그 덕행을 찬양하고, 송구비(頌口碑)를 건립하였으나 6·25 전화(戰禍)로 소실되었다(인제군사).

13) 진시구호(振施救護) : 물품을 주어 구제함.

조씨(曹·趙氏)

조복경(曹復卿) : 조선시대 사람으로 강릉인(江陵人)이다.

숙종조(肅宗朝)에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여 부사(府使)를 지냈다고 전해온다.

조씨(曹氏)는 본관(本貫)이 인천(仁川), 청양(靑陽), 안동(安東), 수성(壽城:지금의 대구), 청도(淸道), 진주(晋州), 창녕(昌寧), 창원(昌原), 화순(和順), 영암(靈岩), 함평(咸平), 장흥(長興), 영광(榮光), 결성(結城), 남평(南平), 광주(光州), 가흥(嘉興:지금의 진도), 평창(平昌), 강릉(江陵)으로 19개나 되었으나, 현재는 안동(安東)과 창령(昌寧) 2개의 본관만 전해온다.

조씨(曹氏)의 창시조(創始祖) 계룡(繼龍)은 신라(新羅) 진평왕(眞平王)의 사위이다. 그의 모친은 창령현(昌寧縣) 고암촌(鼓巖村)에서 한림학사(翰林學士) 이광옥(李光玉)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녀가 자라서 혼기에 이르렀을 때 우연히 복중에 청룡질(靑龍疾)을 얻어 백약이 무효하자 학사가 크게 염려하던 중 어느 신승(神僧)의 말에 따라 화왕산(火旺山) 용담(龍潭)에 가서 목욕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신기하게도 병은 완쾌되고 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금관을 쓰고 옥대(玉帶)를 두른 한 남자가 나타나 웃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동해 용왕님의 아들이다. 이 아이를 잘 기르면 뒤에 공후(公侯)가 될 인물이며, 자손도 번영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 후에 계룡을 낳았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겨드랑이 밑에 조(曹)자가 붉게 썩어져 있었다. 이것을 본 학사(學士)는 이상히 여겨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자 왕도 신기하게 여겨 성(姓)은 조(曹), 이름은 계룡(繼龍), 자는 인경(麟卿)이라 특사(特賜)하고 뒤에 부마(駙馬)를 삼음으로서 창성부원군(脹城府院君)에 봉해지고 벼슬이 보국대장군상

주국대도독총지휘제군사금자광록대부태자태사(輔國大將軍上柱國大都督總指揮諸軍事金紫光祿大夫太子太師)에 이름으로서, 후손들이 계룡을 시조로 하고, 세거지(世居地)인 창령(昌寧)을 본관으로 하였다고 전한다(인제군사, 한국인의 족보, 족보회상 40년사).

조옥립(曹玉立) : 조선시대 사람으로 풍양인(豐陽人)이다. 인제읍 내삽현(內插縣)에서 태어났으나 후에 경기도 양주군 풍양현으로 옮겨가 살았으며,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냈다.

인조(仁祖) 14(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관군을 통솔하여 적과 대치하여 분전(奮戰)하였으나 대세가 불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인 인제(麟蹄)의 원대리(院垞里)로 돌아와 은신하였다고 하는데, 호적(胡敵)들이 이곳까지 쫓아와 장군의 소재(所在)를 밝히려 하였고 그의 처 삼척 김씨의 양 손에 구멍을 뚫고, 화형(火刑)까지 시키려 하였으나, 김씨는 끝내 남편의 소재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김씨는 결국 10여 일이 지난 후에 심한 화독(火毒)으로 사망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인조(仁祖) 16(1638)년에 장군이 은거하던 인제읍 원대리에 열여문을 세웠다고 하며, 지금도 장군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 집성(集姓)을 이루어 살고 있고, 열여정문(烈女旌門)도 옛 모습을 갖추고 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인제읍지).

최씨(崔氏)

최경인(崔敬仁) : 조선시대 사람으로 자는 을인(乙仁)이며, 동주인(東州人 : 철원)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으며, 인제(麟蹄)의 입향조(入鄉祖)다.

그의 부친 성급(成給)은 참봉(參奉)을 지냈고, 아들 현종(顯宗 : 초명은 未宗이다)은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

동주 최씨 원외공파(員外公派)인 양(讓)의 12세손으로 그의 고조부는 강릉부(江陵府) 북연곡면(北連谷面) 물한동(物閑洞)에서 살았고, 증조부는 사천면(沙川面)에 살았는데, 입향 연대나 동기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4세손 한주(漢柱)가 인제 동면(東面 : 지금의 인제읍 하추리)에서 을유년(乙酉 1717)년에 1월 10일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략 1670년 전후라고 생각된다.

부인은 문화 유씨(文化柳氏)이고, 묘소는 인제읍 하추리 흑석동(黑石洞)에 있다(동주 최씨 대동보, 동주 최씨 판윤공파보).

최공철(崔孔哲) : 고려시대 사람으로 인제(麟蹄)의 서화 최씨(瑞和崔氏) 시조이다.

생, 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삼사우사(三司右事)를 지냈다고 한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서화 최씨의 시조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족세(族勢)가 비록 약하기는 하나 지금도 전국에 100여 명의 후손이 살고 있다(최씨 대동보감, 인제문화 15집).

최규태(崔逵泰) : 자는 달부(達夫)이며, 조선시대 사람으로 강릉인(江陵人)이다.

숙종(肅宗) 39년 계사(癸巳 1713)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진사(進士) 상호(相互)의 아들로 사간(司諫), 정언(正言)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을 지냈다(인제군사, 한국인의 족보).

최기석(崔箕錫) : 자는 경구(景九)이며, 조선시대 사람으로 해주인(海州人)이다.

고종(高宗) 1(1864)년에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다. 1842년에 출생하였으며, 부친은 최린(崔璘)이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최세국(崔世國) : 조선시대 사람으로 동주인(東州人)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 태흥(泰興)의 장남으로 영종(英宗) 무신(戊申)생이며, 사망 후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증직(贈職)되었다. 그의 묘소는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에 있으며, 부인은 남양 홍씨(南陽洪氏)다.

『인제군사』에는 정국(正國)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정자(正字)는 세자(世字)의 오기(誤記)다(인제군사, 동주 최씨 관윤공파보).

최승원(崔承元) : 조선시대 사람으로 강릉인(江陵人)이다.

충순위(忠順衛) 해(灌)의 후손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고 전한다(인제군사).

최영(崔瑛) : 조선시대 사람으로 자는 이옥(而玉)이며, 해주인(海州人)이다.

순조(純祖) 19(1819)년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였다.

1794년에 출생하였으며, 부친은택헌(宅憲)이고, 위로는 정(玨), 준(遵), 완(琬) 세 형이 있고, 아래로는 아우 진(璉)이 있다(조선시대 사마방목, 인제문화 16집).

최우태(崔宇泰) : 조선시대 사람으로 자는 회원(會元)이며, 강릉인(江陵人)이다.

숙종조(肅宗朝)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안산 현감(案山縣監)을 지냈다. 『한국인의 족보』에는 군수(郡守)를 지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인제군사, 한국인의 족보).

최유석(崔有碩) : 조선시대 사람으로 강릉인(江陵人)이다.

제1장 향토사

충순위(忠順衛) 해(瀝)의 후손으로 검정(檢正)을 지냈다(인제군사).

최유희(崔有希) : 조선시대 사람으로 강릉인(江陵人)이다.

충순위(忠順衛) 해(瀝)의 후손으로 첨지겸가선대부(僉知兼嘉善大夫)를 지냈다(인제군사).

최태흥(崔泰興) : 조선시대 사람으로 동주인(東州人)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 현종(顯宗)의 둘째 아들로 역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으며,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정선 김씨(旌善金氏)인데, 묘소가 인제읍 상추리(相楸里)에 있다(동주 최씨 판윤공파보).

최한득(崔漢得) : 조선시대 사람으로 동주인(東州人)이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세국(世國)의 아들로 영종조(英宗朝) 병술(丙戌 1766)년 생이며,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증직(贈職)되었다.

부인은 경주 최씨(慶州崔氏)이며, 사망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묘소는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에 있다(동주 최씨 판윤공파보).

최해철(崔海澈) : 조선시대 사람으로 전주인(全州人)이다.

성품이 명민(明敏)하고 식달(識達)하며, 학문이 남달리 박통(博通)한 인물로 유고(遺稿)가 있는 것으로 전한다(인제군사, 인제군지).

최행손(崔幸遜) : 조선시대 사람으로 자는 원서(元瑞)이며 동주인(東州人)이다. 순조조(純祖朝) 무인(戊寅 1818)년에 출생하였고, 정유(丁酉 1897)년에 사망하였는데,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증직(贈職)되었다.

부인은 강릉 최씨(江陵崔氏)이고, 그의 묘소는 인제읍 하추리 이주동(梨朱洞)에 있다(동주 최씨 판윤공파보).

최현종(崔顯宗) : 조선시대 사람으로 동주인(東州人)이며, 인제(麟蹄) 동주 최씨 입향도(入鄉祖)인 경인(敬仁)의 아들로 초명(初名)은 미종(未宗)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으며, 부인은 파평 윤씨(派平尹氏)이고, 그의 묘소는 인제읍 하추리 흑석동(黑石洞)에 있다(동주 최씨 판윤공파보).

한씨(韓氏)

한씨(韓氏)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주인(淸州人)이다.

평강인(平康人) 채민영(蔡民永)의 처로 남편 채민영이 중병으로 자리에 눕자 정성으로 간호하며, 쾌유되기를 하늘에 빌었으며, 남편이 죽은 후에도 오로지 남편만을 사모하며 묘소를 지켰고, 또 범 모양의 석물(石物)을 세워 보호하며 수절(守節)하였다.

이 소식이 널리 알려져 사림(士林)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바 있고, 당시 승지(承旨)였던 달성인(達城人) 서광필(徐光弼)이 비(碑)를 세워주었다(인제군사, 인제군지).

한진동(韓晉東) : 조선시대 사람으로 청주인(淸州人)이다.

본래는 개성(開城)에서 태어났으나, 인제(麟蹄)로 이사하여 유년(幼年)을 인제에서 보내고, 생진과(生進科)에 급제하였다.

순후한 인품으로 어렵게 사는 촌민(村民)들을 도와주고, 세금을 대납해 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었으므로 촌민들에 의하여 기린면 방동리(方東里) 오류동(五柳洞)에 불망비(不忘碑)가 세워졌다(인제군지, 인제군사).

허씨(許氏)

허씨(許氏) : 조선시대 사람으로 양천인(陽川人)이다.

인제군 남면 관대리에 거주하는 청송 심씨(靑松沈氏) 도총제공(都總諸公) 22대손인 호민(浩敏)의 아들 상하(相河)의 처로 양천인 부사(府使) 탁(鐸)의 여식(女息)이다.

허씨는 남달리 예의범절이 출중한 성품을 지녔는데, 허씨 나이 29세에 남편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시부(媿父)마저 병이 위중함에도 백약이 무효라 상심하여 마지않았으며, 시부(媿父)가 선어(鮮魚)를 원하였으나 엄동설한(嚴冬雪寒)이라 구할 길이 없었다.

그래도 허씨는 혹한(酷寒)의 추위도 무릅쓰고 관대리 강변에다 정화수(井華水)를 떠놓고 100일 기도를 드리자 효성에 감동한 듯 강의 얼음이 우연히 깨어져 물바가지를 넣으니 선어(鮮魚)가 튀어나왔다 한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허씨는 정성껏 시탕공진(侍湯供進)하므로 효력이 있었는지 연명(延命)하다가 세상을 떴다고 한다.

백발이 되도록 수절(守節)하며 여생을 보낸 허씨는 향리(鄉里) 사람들 모두 그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고 하여 명성이 자자하였다.

허씨가 사망한지 6년이 지난 뒤에 당시 인제현감 정숙조(鄭翺朝)가褒賞(포상)을 상신하여 1870년에 정려(旌閭)를 내리고, 남면 관대리 치구미에 허씨의 정려문을 세웠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6·25 전화(戰禍)로 소실되고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인제군사).

허상(許鎬) : 조선시대 사람으로 양천인(陽川人)이다.

문정공(文正公) 백(伯)의 후인인데, 음서(陰筮)로 춘천부사(春川府使)를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현씨(玄氏)

현덕경(玄德經) : 조선시대 사람으로 연안인(延安人)이다.

어머니 병환이 쾌차하기를 빌며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넣는 등 효행이 지극하여 관청에서 특별히 표창했다고 전한다(인제군지, 인제군사).

현맹인(玄孟仁) : 고려 말기 사람으로 우왕(禡王) 9년 계해(癸亥 1383)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며, 사간(司諫)을 지냈다.

조선(朝鮮) 태종조(太宗朝)에는 만호(萬戶)로 특점(特點)되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현속(玄束) : 고려 말기 사람으로 우왕조(禡王朝)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강릉부사(江陵府使) 및 전라감사(全羅監司)를 지냈다(인제군지, 인제군사).

제1장 향토사

高麗時代(文宗代)東班官職表(中央) (高麗史 百官誌에 依據)

[illegible]

[illegible]

제1장 향토사

高麗時代東班官職表

高麗時代 西班牙官職表 (高麗史 百官誌 依據)

忠 勇 四 衛	堅 銳 府	儀 仗 府	都 府 外	監 門 衛 一 領	千 牛 衛 常 領 一 領 一 領	金 吾 衛 精 勇 一 領 六 領	興 威 衛 精 勇 七 領 五 領	神 虎 衛 精 勇 一 領 五 領	左 右 衛 精 勇 一 〇 領 二 領	龍 虎 軍 二 領	鷹 揚 軍 一 領	府 衛 名
												正二品
												從二品
				上將軍	上將軍	上將軍	上將軍	上將軍	上將軍	上將軍	上將軍	正三品
				大將軍	大將軍	大將軍	大將軍	大將軍	大將軍	大將軍	大將軍	從三品
將軍 四				將軍	將軍	將軍	將軍	將軍	將軍	將軍	將軍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中郎將 一 二			中郎將 一	中郎將 二	中郎將 四	中郎將 一 四	中郎將 二 四	中郎將 一 四	中郎將 二 六	中郎將 四	中郎將 二	從五品
												正六品
郎將 一 二		郎將 一	郎將 三	郎將 五	郎將 一〇	郎將 三 五	郎將 六〇	郎將 三 五	郎將 六 五	郎將 一〇	郎將 二	從六品
				長史 一	長史 一	長史 一	長史 一	長史 一	長史 一			正七品
別將 二〇	別將 一	別將 一	別將 二	別將 五	別將 一〇	別將 三 五	別將 六〇	別將 三 五	別將 六 五	別將 一〇	別將 二	從七品
												正八品
散員 二〇		散員 二	散員 三	錄事 二 五	錄事 一〇	錄事 二 五	錄事 六〇	錄事 二 五	錄事 六 五	散員 一〇	散員 三	從八品
												正九品
尉 長 八〇	尉 二	尉 五	尉 四	尉 二〇	尉 四〇	尉 一 四〇	尉 二 四〇	尉 一 四〇	尉 二 六〇	尉 四〇	尉 二〇	從九品
隊 正 一 六〇	隊 正 四〇	隊 正 一〇	隊 正 數 四	隊 正 四〇	隊 正 八〇	隊 正 二 八〇	隊 正 四 八〇	隊 正 二 八〇	隊 正 五 二〇	隊 正 八〇	隊 正 四〇	

高麗時代西班牙官職表

高麗官職(位階)變遷表

[illegible]

高麗官職(位階)變遷表 (高麗史 百官志에 依함)

朝鮮時代東班官職表

[illegible]

朝鮮時代東班官職表

[illegible]

제1장 향토사

朝鮮時代東班官職表

官衙名	正一	從一	正二	從二	正三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內醫院	都提調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積善寺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掌樂院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觀象監	領事(一)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典醫監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司譯院	都提調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世宗	侍講院	傳師(一)	(提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昭格署	宗廟署	都提調	(提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社稷署	永祿	都提調	(提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典牲署	司畜署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惠民署	國處署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活人署	歸厚署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各殿	各殿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兵曹	都提調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密五街		(提調)	(調)	(調)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제1장 향토사

朝鮮時代東班官職表

地方	瓦署	造紙署	掌砲署	典司	修城司	繕工監	尚衣院	工曹	掌議院	刑曹	世子司	典設司	軍器寺	司僕寺	宗院	官衙名
					都提調								都提調			正一
	提	提	提	提	提	提	提									從一
	調	調	調	調	調	調	調	判書 (一)書 (二)判	判書 (一)書 (二)判	判書 (一)書 (二)判					知事 (一)	正二
	觀察使(大都護府使)							參議 (一)判	判書 (一)書 (二)判	參議 (一)判						從二
	牧尹	牧尹	牧尹				副提調 (一)	參議 (一)判	判書 (一)書 (二)判	參議 (一)判					都正 (中署)	正三堂上
	兵使	水使 兵馬節度使	牧使 兵馬節度使				正 (一)副正 (二)									正三堂下
		兵馬節度使	水軍使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朝鮮時代西班官職表

朝鮮時代 西班(武官) 官職表

[illegible]

朝鮮時代西班牙官職表

84 麟蹄文化

朝鮮官職 品階表(其一)

宗親・宗親妻儀賓各從一品以下亡一八六五年(高宗二年)부터 그品階의稱號가一般文官・武官妻의稱號와同一하게되었다(其二參照)

[illegible]

朝鮮官職 品階表(其二)

區分	東 班		西 班		外命婦(3)		東 班		西 班		土 官		西 班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正七品	從七品
上 堂	正一品 大匡輔國崇祿大夫(兼政)上輔國崇祿大夫(國舅)後期(王妃母)府夫人(王妃母)貞敬夫人(大服乳母)自敬夫人	從一品 崇祿大夫	正二品 正憲大夫	從二品 嘉善大夫(嘉善)後改	正三品 通政大夫	從三品 中直大夫	正四品 奉正大夫	從四品 領敍大夫	正五品 通德郎	從五品 奉直郎	正六品 承訓郎	從六品 宣教郎	正七品 務功郎	從七品 宣教郎
下 堂	正一品 折衝將軍	從一品 保功將軍	正二品 昭威將軍	從二品 昭威將軍	正三品 昭威將軍	從三品 昭威將軍	正四品 昭威將軍	從四品 昭威將軍	正五品 昭威將軍	從五品 昭威將軍	正六品 昭威將軍	從六品 昭威將軍	正七品 昭威將軍	從七品 昭威將軍
參 考	從九品 將仕郎	從八品 承仕郎	從七品 通仕郎	從六品 務功郎	從五品 宣教郎	從四品 承訓郎	從三品 宣教郎	從二品 宣教郎	從一品 宣教郎	從九品 將仕郎	從八品 承仕郎	從七品 通仕郎	從六品 務功郎	從五品 宣教郎

一、堂上正三品上階(通政大夫, 折衝將軍) 以上

二、堂上正三品下階(通政大夫, 崇祿將軍) 以下

三、堂上從六品以上

四、堂上正七品以下(參下에서 參上이 되는것을) 出六(正七) 正六

五、官職正式名稱(階·司·職)의 順序에 例하면 領議政은 大匡輔國崇祿大夫(階) 議政府(司) 領議政(職) 別稱參照

六、行日階高職年(例하면 從一品階을 가지이거 正二品職인 吏曹判書가 의

면) 掌政大夫行吏曹判書

七、守日階卑職高(例하면 從二品階을 가지이거 正二品職인 大提學의 의

면)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

八、官職의 任期日(任滿)이 例하면 大匡 六品以上은 九百日, 七品以下

는 四百五十日, 無祿官은 三百六十日

但, 地方官은 「瓜滿」·「瓜限」이 例하면 觀察使·都事는 三百六十日

(一年), 守令은 一千八百日(五年), 堂上官과 未架家 守令은 九百日

(二年半) 兵·水使와 處候·評事는 七百二十日(二年), 未架家 守令은 萬

戶는 九百日을 原則으로 하나, 後期에는 觀察使가 二十四期, 守令이

三十期 또는 六十期(三年)의 區別이 있는 等으로 고쳐졌다.

※ 未架家 家族은 守令 單身赴任함

九、贈諡(經國大典) 하나 하였고, 그 다음 諡號로 二品 이상의 高位官은 그 死後에

贈諡(經國大典) 하나 하였고, 그 다음 諡號로 二品 이상의 高位官은 그 死後에

贈諡(經國大典) 하나 하였고, 그 다음 諡號로 二品 이상의 高位官은 그 死後에

贈諡(經國大典) 하나 하였고, 그 다음 諡號로 二品 이상의 高位官은 그 死後에

贈諡(經國大典) 하나 하였고, 그 다음 諡號로 二品 이상의 高位官은 그 死後에

贈諡(經國大典) 하나 하였고, 그 다음 諡號로 二品 이상의 高位官은 그 死後에

贈諡(經國大典) 하나 하였고, 그 다음 諡號로 二品 이상의 高位官은 그 死後에

朝鮮朝 王室의 品階表

親 功 臣	王 妣 의 父	" (庶)	王世子의女(嫡)	" (庶)	王世子의子(嫡)	" (庶)	王 女(嫡)	" (庶)	王 子(嫡)	身 分
"	府 院 君	縣 主	郡 主	"	君	翁 主	公 主	君	大 君	封 號
"	正 一 品	正 三 品	正 二 品	"	初授正二品	"	"	"	無	品 階
貞 敬 夫 人	府 夫 人	僉 尉	副 尉	"	縣 夫 人	"	駙 馬 都 尉	郡 夫 人	府 夫 人	配 偶 者
"	正 一 品	正從三品	正三品	"	"	正從二品	正從一品	"	正 一 品	品 階
										身 分
監	副 令	令	副 守	守	副 正	正	都 正	"	君	封 號
正 六 品	從 五 品	正 五 品	從 四 品	正 四 品	從 三 品	正三堂下	正三堂上	正從二品	從 一 品	品 階
順 人	"	溫 人	"	惠 人	"	愼 人	愼 夫 人	貞 夫 人	貞 敬 夫 人	配 偶 者

朝鮮王室의 品階表

인제 관내의 전적(典籍)

최 병 현

1. 머리글

인제(麟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 기억될 만한 명현(明賢)들을 배출하지 못한 곳이다. 지금도 전문대학 하나 없는 곳이어서 고급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지에 나아가 수학한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귀향하고 싶어도 돌아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에 거처하는 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전무한 상태이고,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6·25를 거치면서 수많은 전화(戰禍)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전적(典籍)들을 찾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도 안해보고 '인제에는 전적이 없다'고 확정지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라 큰 기대는 갖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공직(公職)에 있을 당시에는 몇 차례 반상회보를 통하여 소장자(所藏者)들을 찾아보았지만,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직을 떠난 그 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집안에 고문서(古文書)나 고도서(古圖書)를 소장하고 있지 않느냐고 탐문(探聞)하였다. 그럴 때마다 실망스러운 것은 '6·25 때 피난 다니느라 다 잃어버렸다.', '두 켜짜이나 있었는데 몇해 전에 젊은애들이 귀신 나올 것 같다면서 불태워 버렸다.', '방 도배하는데 써 버렸다.'는 등의 대답들이었다.

이런 대답들을 들으면서 실망도 했지만 많은 양은 아니라도 있기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되었고, 세월이 더 지나기 전에 이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만나는 이마다 전적(典籍)의 소장 여부를 탐문할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약간의 실적이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鼓舞的)이었다. 나는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리라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전적(典籍)의 종류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도서(圖書)와 문서(文書)로 대별되고, 문서에는 완문(完文), 교지(教旨), 칙명(勅命), 차첩(差帖),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 간찰(簡札), 호구단자(戶口單子) 등이 있다.

완문(完文) : 완문이란 관에서 향교(鄉校)나 서원(書院), 문중(門中), 개인 등에게 발급해 주는 문서로서 증빙류(證憑類)에 속한다.

교지(教旨) : 교지란 임금의 문무관(文武官) 4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던 사령장(辭令狀)인데, 왕지(王旨)라고도 한다.

칙명(勅命) : 임금의 명령을 말하며, 칙령(勅令), 칙지(勅旨)라고도 한다.

차첩(差帖) : 차첩이란 칠품(七品) 이하의 관원(官員)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차정(差定), 물침(勿侵), 훈령(訓令) 등에 쓰인다. 차정은 임명(任命)의 뜻이 있고, 물침은 허가(許可)의 뜻이 있으며, 차정하는 첩은 차첩, 물금하는 첩은 물금첩(勿禁帖)이라고 한다.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 : 포창완의문이란 말 그대로 표창할 것을

입의(立議)한 문서로서 증빙류(證憑類)에 속한다.

호구단자(戶口單子) : 호구단자란 일종의 호적(戶籍)과 같은 문서로서 소차계장류(疏筭啓狀類)에 속한다.

3. 전적(典籍) 소장(所藏) 현황

김광열 소장(인제군 인제읍 상동 3리 TEL : 033)461-1881)

완문(完文)

발급자(發給者) : 충훈부(忠勳府)

수급자(受給者) : 경주김씨선원군파종가(慶州金氏璿源君派宗家)

간행년(刊行年) : 1874년 9월 일

규격(規格) : 가로 189cm, 세로 105cm

관인수(官印數) : 23(忠勳府 手決 1)

지질(紙質) : (楮紙)

내용 : 경주김씨선원군파종가에게 잡역(雜役)과 군정(軍丁)을 면제해 주는 문기(文記)

보존상태 : 양호

정봉이 소장(인제군 기린면 현 5리 5반 TEL : 033)461-5642)

고진진보 전집(古文眞寶 前集)

저자미상(著者未詳)

신축(辛丑)년 11월 가의(加衣)

내용 : 이백(李白)의 시 59수 외 도연명 등의 시를 수록

보존상태 : 양호

공부자성도속수오륜행실(孔夫子聖圖續修五倫行實)

정은채(鄭殷采) : 정성묵(鄭成默) 저작

대정 12년(大正 1923) 2월 30일 발행

내용 : 후학(後學) 영천(靈川) 신면휴(申冕休)의 발문(跋文), 선성세 계도(先聖世系圖), 선성수상(先聖水象) 안자종행(顏子從行)

보존상태 : 양호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

정은채(鄭殷采) : 정성묵(鄭成默) 저작

대정 13년(大正 1924) 11월 1일 발행

내용 : 충훈유현(忠勳遺賢), 자선(慈善), 공부자성학연원유림록(孔夫子聖學淵儒林錄), 현원(賢媛) 소개

보존상태 : 양호

용강집(蓉崗集) 1권

이리교(李利敎) 저작

광무 3년(光武 1899) 간행

내용 : 거가잡의(居家雜儀), 기당취법언(祈當取法焉), 자경계조(自警諸條), 잡기계(雜技戒) 등 수록

보존상태 : 양호

용강집(蓉崗集) 2권

이리교(李利敎) 저작

광무 3년(光武 1899) 간행

내용 : 광업(廣業), 독서법(讀書法), 제술법(製述法), 서법(書法)

제1장 향토사

등 수록, 별록(別錄)으로 지리변(地理辨), 양생변(養生辨),
리수변(里數辨), 의원변(醫原辨) 등을 수록
보존상태 : 일부 훼손

용강집(蓉崗集) 3권
이리교(李利敎) 저작
광무 3년(光武 1899) 간행
내용 : 도덕사(道德寺), 상량문 및 권선문(勸善文), 수성청절목(守
成廳節目), 용강시서(蓉崗詩序), 용강별업팔경(蓉崗別業八
景) 등 수록
보존상태 : 양호
특기 : 마지막 4행은 수필(手筆)로 개작(改作)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
공부자성적도오륜행실중간소(孔夫子聖蹟圖五倫行實重刊所) 편(編)
1책(冊 : 4장)
공부자탄강 2470년(1919)
관인수(官印數) : 4개
내용 : 평창인 이두모(李斗模)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조각(彫刻)
을 새기고, 정각(亭閣)을 세울 것을 입의한 문서
보존상태 : 양호
특기 : 표지를 비단으로 양장

염락풍아(濂洛風雅)
저자미상(著者未詳)
광무 2년(光武 1898) 4월 간행
내용 : 시사(詩詞), 율시(律詩), 부조(賦操), 락부(樂府), 제문(祭

文) 등

보존상태 : 양호

특기 : 1, 2권 합철

염락(廉洛)

저자미상(著者未詳)

광무 2년(光武 1898) 4월 간행

내용 : 시사(詩詞), 율시(律詩) 등 수록

보존상태 : 일부 훼손

특기 : 3, 4, 5권 합철

채옥(採玉)

저자미상(著者未詳)

내용 : 이백(李伯), 소동파(蘇東波), 이능(李陵) 등의 시문(詩文)
수록

보존상태 : 일부 훼손

특기 : 수필(手筆)

고문잡기(古文雜記)

저자미상(著者未詳)

갑오(甲午?) 4월 9일 가의(加衣)

내용 : 왕유(王維), 이백(李伯), 유자후(柳子厚), 장설(張說) 등의
시문(詩文) 수록

보존상태 : 양호

특기 : 수필(手筆)

동국명신록(東國名臣錄)

제1장 향토사

저자미상(著者未詳)

내용 : 성씨별 명신(名臣) 소개

보존상태 : 40% 훼손

특기 : 수필(手筆)

금낭(錦囊)

저자미상(著者未詳)

내용 : 시문(詩文) 수록

기미(己未) 11월 30일 가의(加衣)

보존상태 : 양호

특기 : 수필(手筆)

두율(杜律) 1권

저자미상(著者未詳)

내용 : 시문(詩文) 수록

보존상태 : 양호

두율(杜律) 2권

저자미상(著者未詳)

경자(庚子?) 5월 종편(終篇)

내용 : 시문(詩文) 수록

보존상태 : 양호

중용(中庸) 1, 2권

저자 및 간행 연도 미상(未詳)

보존상태 : 양호

김부연 소장(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TEL : 033)463-2061)

고문후집(古文後集)

이상태(李象台) 편저

간행년도 미상(未詳)

규격 : 가로 17cm, 세로 25cm

내용 : 적벽부(赤壁賦), 귀거래사(歸去來辭) 등 시문(詩文) 수록

보존상태 : 양호

특기 : 수필(手筆)

백촌유사(白村遺事) 권지초(券之初)

박승현(朴升鉉) 편저

규격 : 가로 21.5cm, 세로 32cm

내용 : 사실(事實), 유시(遺詩), 부록으로 행장(行狀), 익장(諡狀),
청익설(請諡說), 옥천유허비(沃川遺虛碑), 유허비추기(遺虛
碑追記), 유시차운(遺詩次韻) 등 수록

보존상태 : 양호

백촌유사(白村遺事) 권지이(券之二)

박승현(朴升鉉) 편저

규격 : 가로 21.5cm, 세로 32cm

내용 : 제발(題跋), 유시차운(遺詩次韻), 부영상공묘비문(附領相公
墓碑文), 영동현구읍지(永同縣舊邑誌), 익호정사(諡號政
事), 연익사실(延諡事實) 등 수록

보존상태 : 양호

제1장 향토사

양조진신보(兩朝摺紳譜) 권지일(券之一)

강문환(姜文煥) 편저

소화 2년(昭和 1927) 12월 15일 간행

규격 : 가로 20cm, 세로 31cm

내용 : 고종(高宗), 순종(純宗), 양조(兩朝)에서 벼슬을 한 사람들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현조(顯祖) 등을 소개

보존상태 : 양호

배해봉 소장(인제군 남면 신남 3리 1반 TEL : 033)461-6501)

완의문(完議文)

공부자성적도오륜행실중간소(監印 崔炯軾) 발(發)

열여(烈女) 유씨(柳氏 : 영천인 李愆守의 妻) 수(受)

대정 13년(大正 1924) 5월 성안(成案), 감인일(監印日) 6월 3일
1책(冊 : 4장)

관인수 : 4개

내용 : 열여(烈女) 유씨(柳氏)의 열행(烈行)을 기리기 위하여 비(碑)와 정각(亭閣)을 세울 것을 입의(立議)한 문서

보존상태 : 양호

대한제국가사관계(大韓帝國家舍官契)

지계아문총재(地契衙門總裁) 발(發)

이도명(李到明) 수(受)

광무 7년(光武 1903)

내용 : 이도명의 가사(家舍)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가사관리에 관한 규약으로 계목(契目)이 수록되어 있다. 3편을 인출하여 1편은 아문(衙門)에서, 2편은 영유자(領有者)가, 3편은 해당

지방관청에서 보관하였다.

보관상태 : 양호

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

경성궁동(京城宮洞) 경약소(京約所) 간행

광무 9년(光武 1905)

내용 : 충(忠), 효(孝), 열(烈), 의(義)급 유현일사(遺賢逸史) 소개

보관상태 : 양호

공부자성적도성학연원유림록(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

정은채(鄭殷采) 저작 발행

대정 13년(大正 1924) 2월 30일

서문(序文) 작성 월성후인(月城后人) 김정목(金正穆)

내용 : 도통원류도(道通源流圖), 성상(聖像), 신묘도(新廟圖), 레
기도(禮器圖), 악기도(樂器圖), 동방성학원류도(東方聖學源
流圖), 제찬품식(祭饌品式), 석존찬품(釋尊饌品), 동방유림
연원록(東方儒林淵源錄) 등 수록

특기 : 중간 부분의 활자(活字)체가 다름

보관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이증각(李曾珪)

인제현(麟蹄縣) 발(發)

이증각 수(受)

원본, 인제현, 고종 22(高宗 1885)년 사(寫)

1장 16행

행현감(行縣監) 수결(手決)

내용 : 을유(乙酉) 1월 일 남면 정자막 구호잔자 제9통 제5호 유학

(幼學) 이증옥 년 66 경진(庚辰)생 본 영천(永川)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대운(李大允)

함흥부(咸興府) 발(發)

이대운 수(受)

원본, 함흥부, 도광 2(道光 1822)년 사(寫)

1장, 20행

도감(都監) 박(朴) 수결(手決), 겸부윤(兼府尹) 행판관(行判官) 수결(手決)

내용 : 도광 2년 월 일 함흥부 고(考) 임오(壬午) 식년(式年) 호구 성적장내(成籍帳內) 제30 경천두리주(慶川杜里住) 제야라리(野羅里) 제1통 제5호 유학 이대운(李大允) 년 55 무자(戊子)생 본 영천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대운(李大允)

함흥부 발(發)

이대운 수(受)

원본, 함흥부, 도광 8(道光 1828)년 사(寫)

1장, 18행

도감(都監) 박(朴) 수결(手決), 겸부윤 행판관 수결(手決)

내용 : 도광 8년 월 일 함흥부 고 무자(戊子) 식년 호구성적장내 제27 경천두리주 제야라리(野羅里) 제3통 제5호 유학 이대운 년 61 무자(戊子)생 본 영천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대운(李大允)

함흥부 발(發)

이대운 수(受)

원본, 함흥부, 도광 5(道光 1825)년 사(寫)

1장, 22행

도감(都監) 이(李) 수결, 검부윤 행판관 수결(手決)

내용 : 도광 5년 월 일 함흥부 고 을유(乙酉) 식년 호구성적장내
제30 경천두리주 제8 야라리(野羅里) 제1통 제5호 유학 이
대운 년 58 무자(戊子)생 본 영천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대운(李大允)

함흥부 발(發)

이대운 수(受)

원본, 함흥부, 도광 11(道光 1833)년 사(寫)

1장, 18행

도감(都監) 박(李) 수결, 검부윤 행판관 수결(手決)

내용 : 도광 11년 월 일 함흥부 고 신묘(辛卯) 식년 호구성적장내
제27 경천두리주 제7 야라리(野羅里) 제3통 제5호 유학 이
대운 년 64 무자(戊子)생 본 영천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대운(李大允)

함흥부 발(發)

이대운 수(受)

원본, 함흥부, 도광 14(道光 1834)년 사(寫)

1장, 16행

제1장 향토사

도감(都監) 전(全) 수결, 검부윤 행판관 수결(手決)

내용 : 도광 14년 월 일 함흥부 고 갑오(甲午) 식년 호구성적장내
제27 경천두리주 제7 야라리(野羅里) 제3통 제5호 유학 이
대운 년 67 무자(戊子)생 본 영천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대운(李大允)

함흥부 발(發)

이대운 수(受)

원본, 함흥부, 도광 17(道光 1837)년 사(寫)
1장, 17행

도감(都監) 한(韓) 수결, 검부윤 행판관 수결(手決)

내용 : 도광 17년 월 일 함흥부 고 정유(丁酉) 식년 호구성적장내
제30 경천두리주 제8 경흥리(慶興里) 제3통 제5호 유학 이
대운 년 70 무자(戊子)생 본 영천
보존상태 : 양호

최창호 소장(인제군 북면 원통 5리 1반 TEL : 033)4671-3358)

교지(教旨) 김익항(金益瓚), 고신(告身)

국왕(國王) 발(發)

김익항(金益瓚) 수(受)

원본, 고종 17(高宗 1880) 사(寫)

1장 8행, 가로 75cm, 세로 56cm

보인(寶印) : 시명지보(施命之寶)

내용 : 교지(教旨)/김익항 증(贈)/통정대부(通政大夫)/공조참의
(工曹參議)/자(者)/광서(光緒) 6년 월 일/가선대부동지중

추부사오○○(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五○○)/조고의법전
중증(祖考依法典從贈)

보존상태 : 양호

교지(教旨) 김씨(金氏 : 金益璜의 처), 고신(告身)

국왕(國王) 발(發)

김씨(金氏) 수(受)

원본, 고종 17(高宗 1880) 사(寫)

1장 7행, 가로 75cm, 세로 56cm

보인(寶印) : 시명지보(施命之寶)

내용 : 교지(教旨)/유인(儒人) 김씨(金氏)/증(贈) 숙부인(淑夫人)/
자(者)/광서(光緒) 6년 월 일/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오○
○(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五○○)/조비의법전중부직(祖
妣依法典從夫職)

보존상태 : 양호

칙명(勅命) 김익황(金益璜), 고신(告身)

국왕(國王) 발(發)

김익황(金益璜)? 수(受)

원본, 광무 7(光武 1903) 9월 사(寫)

1장 8행, 가로 64cm, 세로 44cm

관인(官印) : 궁내부인(宮內府印)

내용 : 칙명(勅命)/종이품(從二品)/임사헌부감찰(任司憲府監察)/
승겸이조참의(陞兼吏曹參議)/서진임관삼등(敍秦任官三
等)/자(者)/광서(光緒) 7년 9월 일/의정부찬정궁내대신이
근명(議政府贊政宮內大臣李根命)

보존상태 : 양호

칙명(勅命) 김씨(金氏), 고신(告身)

국왕(國王) 발(發)

김씨(金氏)? 수(受)

원본, 광무 9(光武 1905) 6월 사(寫)

1장 4행, 가로 63cm, 세로 43cm

관인(官印) : 궁내부인(宮內府印)

내용 : 칙명(勅命)/봉숙부인자(封淑夫人者)/광무(光武) 9년 6월
일/법전중부직(依法典從夫職)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김중인(金重寅)

춘천부(春川府) 발(發)

김중인(金重寅) 수(受)

원본, 춘천부, 건륭 57(乾隆 1792) 사(寫)

1장 9행, 가로 47cm, 세로 54cm

행부사(行府使) 수결(手決), 관인(官印) 및 주협일자개인(周挾壹
字改印)

내용 : 건륭(乾隆) 57년 월 일 춘천부 고(考) 임자(壬子) 성적호
구장내(成籍戶口帳內) 기린면 현동 5리(縣東里) 제6통 2호
유학 김중인(金重寅)년 36 정축(丁丑)생 본 김해(金海)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김익황(金益黃)

춘천부(春川府) 발(發)

김익황 수(受)

원본, 춘천부, 함풍 8(咸豐 1858) 사(寫)

1장 13행, 가로 37.5cm, 세로 40cm

행부사 수결(手決), 관인(官印) 및 주협일자개인(周挾壹字改印)

내용 : 함풍(咸豐) 8년 월 일 춘천부 고(考) 무오(戊午) 성적호구
기린면 현동리 제40통 일호 유학 김익황(金益璜) 년 38 신사
(辛巳)생 본 김해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김익황(金益黃)

강원도 양양부(襄陽府) 발(發)

김익황 수(受)

원본, 양양부, 동치 12(同治 1873) 사(寫)

1장 14행, 가로 61cm, 세로 50cm

행부사 수결(手決), 관인(官印) 및 주협일자개인(周挾壹字改印)

내용 : 동치(同治) 12년 월 일 강원도 양양부 고(考) 계유(癸酉)
성적호구장내주 서면(西面) 영덕리(盈德里) 제7호 유학 김
익황(金益璜) 년 53 신사(辛巳)생 본 김해

보존상태 : 양호

호구단자(戶口單子) 김익황(金益黃)

강원도 양양부(襄陽府) 발(發)

김익황 수(受)

원본, 양양부, 광서 5(光緒 1879) 사(寫)

1장 14행, 가로 54cm, 세로 53cm

행부사 수결(手決), 관인(官印) 및 주협일자개인(周挾壹字改印)

내용 : 광서(光緒) 5년 1월 일 강원도 양양부 고(考) 기묘(己卯)
식년(式年) 성적호구장내 주(住) 서면(西面) 영덕리(盈德
里) 제1호 유학 김익황(金益璜) 년 59 신사(辛巳)생 본 김해

제1장 향토사

보존상태 : 양호한 편이나 접히는 부분이 일부 손상

김해 김씨 사적(金海金氏事蹟)

저자 및 간행년 미상(未詳)

내용 : 김해 김씨 시조(始祖), 개국공(開國公)의 사적(事蹟)수록

보존상태 : 양호

차첩(差帖) 김홍팔(金弘八)

이보국(李輔國) 발

김홍팔 수(受)

병수(丙戌 1886?) 1월 일

1장 10행, 가로 38cm, 세로 24cm

내용 : 김홍팔(金弘八)을 장막처(幟幕處) 감독관으로 택정(擇定)하는 사령서(辭令書)

특기 : 서명(署名)이나 관인(官印)이 없고, 문양(紋樣)으로 된 원형인(圓形印)이 찍혀 있다.

주(注) : 김홍팔(金弘八)은 김해인 김익황(金益璜)의 자(字)다. 호구단자에는 김익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김해 김씨 세계』에는 현장(顯章)으로 표기하고 있다.

김해 김씨 세계(金海金氏世界)

김현장(金顯章) 편저

광서 9(光緒 1883)년 3월 초출(抄出)

규격 : 가로 15.5cm, 세로 16cm

내용 : 김해 김씨 세계 수록

보존상태 : 보통

특기 : 말미(末尾)에 최근의 인물을 추가로 수록

기린면 서리 노인회 소장

대한제국가사관계(大韓帝國家舍官契)

지계아문총재(地契衙門總裁) 발(發)

박덕일(朴德一) 수(受)

광무 7년(光武 1903) 1월

규격 : 가로 19cm, 세로 25cm

내용 : 박덕일의 가사(家舍)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가사관리에 관한 규약으로 계목(契目)이 수록되어 있다. 3편을 인출하여 1편은 아문(衙門)에서, 2편은 영유자(領有者)가, 3편은 해당 지방관청에서 보관하였다.

보관상태 : 양호

대한제국田畝관계(大韓帝國家舍官契)

지계아문총재(地契衙門總裁) 발(發)

박덕일(朴德一) 수(受)

광무 6년(光武 1902) 12월

규격 : 가로 19cm, 세로 25cm(6건)

내용 : 박덕일의 전답(田畝)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가사관리에 관한 규약으로 계목(契目)이 수록되어 있다. 3편을 인출하여 1편은 아문(衙門)에서, 2편은 영유자(領有者)가, 3편은 해당 지방관청에서 보관하였다.

보관상태 : 양호

기린면서리민적(麒麟面西里民籍)

편자 및 간행년 미상(未詳)

제1장 향토사

규격 : 가로 19cm, 세로 28cm(402쪽, 쪽당 4인)

작성방법 : 규정서식에 수필로 작성

내용 : 서리민의 호적부(戶籍簿)

보존상태 : 양호

원종문 소장(인제군 인제읍 상동 4리 TEL : 033)461-2954)

교지(教旨) 원의상(元義常), 고신(告身)

국왕(國王)

원의상(元義常) 수(受)

원본, 광서 10(光緒 1884) 2월 5일 사(寫)

관인 : 1개

1장 9행, 가로 57cm, 세로 46cm

내용 : 교지/통정대부(通政大夫)/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겸
경연참찬(兼經筵參贊)/관자원의상(官者元義常)/광서(光
緒)10년2월5일/가선대부행용겸위부호군겸오위장(嘉善大
夫行龍兼衛副護軍兼五衛將)/조의법전추(祖依法典追)/증
(贈)

보존상태 : 양호

특기 : 가필(加筆)

교지(教旨) 김씨(金氏 : 원의상의 처), 고신(告身)

국왕(國王) 발(發)

김씨(金氏) 수(受)

원본, 광서 10(光緒 1884) 2월 5일 사(寫)

1장 7행, 가로 57cm, 세로 46cm

관인 : 1개

내용 : 교지/유인김씨(儒人金氏)/증숙인자(贈淑人者)/광서(光緒)10년2월5일/가선대부행용겸위부호군겸오위장(嘉善大夫行龍兼衛副護軍兼五衛將)/증조비의법전추(曾祖妣依法典追)/증(贈)

보존상태 : 양호

최병헌 소장(인제군 인제읍 상동 4리 TEL : 033)461-0788)

초간독(草簡牘)

편자 및 간행 연도 미상(未詳)

규격 : 가로 19cm, 세로 29ccm

내용 : 재상(宰相), 유수(留守), 수령(守令) 등 많은 사람들의 서찰(書札)과 편자의 부자(父子) 형제들간의 서산문(書簡文) 수록

인쇄판

특기 : 첫째 쪽과 마지막 쪽에 편자의 각인(刻印)이 찍혀 있으나, 판독이 불가함

보존상태 : 양호

동명(東鳴)

편자 미상

임인(壬寅 1902)년 4월 13일 가의(加衣)

규격 : 가로 14.5cm, 세로 20cm

내용 : 이백(李白), 이동필(李東弼), 박화원(朴和源), 유언호(俞彦鎬) 등의 시문(詩文) 수록

수필(手筆)

보존상태 : 양호

천기대요(天機大要)

편자 미상

정유(丁酉 1897)년 12월 가의(加衣)

규격 : 가로 15cm, 세로 22.5cm

원본 및 증보판 상하 합철(合綴)

인쇄판

보존상태 : 보통

4. 맺는 글

소개한 전적(典籍) 외에도 최창호가 소장하고 있는 김해 김씨가(金海金氏家) 문서로서 서찰 8건과, 차첩(差帖) 2건이 있으나, 우둔(愚鈍)한 관계로 판독이 어려워 소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기회를 보아서 소개하기로 한다.

관내에 소장되어 있는 이러한 전적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당시의 사회상이나, 이 지방의 인물(人物), 또는 향토사(鄉土史)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소장자(所藏者)들의 무관심으로 멸실(滅失)되거나 훼손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미력하나마 힘닿는 데까지 숨겨진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료(史料)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듯, 아무리 고귀한 보물이라 하더라도 혼자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한낱 보통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들어 내놓고 여러 사람에게 자랑할 때 비로소 그 진가(眞價)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 인제 관내에 이러한 문적(文籍)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자랑삼고, 귀한 자료를 공유(共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고자 한다.

입향조(入鄕祖)를 찾아서(1)

최 병 헌

1. 들어서면서

한 지방의 세거씨족(世居氏族)과 입향조(入鄕祖)를 논한다는 것은 그 족세(族勢)가 얼마이어야 하고, 입향(入鄕)한 연대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과거에는 족세가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성(姓)씨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입향 연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번성한 성씨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1995년에 간행한 『강원도사』를 기준으로 해서 인제의 세거씨족을 살펴보고, 입향조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강원도사』에 수록된 인제의 세거씨족을 살펴보면, 청송(靑松) 심씨, 경주(慶州) 김씨, 삼척(三陟) 김씨, 평창(平昌) 이씨, 밀양(密陽) 박씨, 해주(海州) 최씨, 영일(迎日) 정씨, 선산(善山) 길씨, 강릉(江陵) 박씨, 김해(金海) 김씨, 강릉 함씨, 파평(波平) 윤씨, 옥천(玉川) 김씨, 풍양(豐陽) 조씨, 밀양(密陽) 손씨, 용인(龍仁) 허씨, 예안(禮安) 김씨로 17개의 성(姓)씨가 있으며, 입향조에 관한 기록은 없고, 다만 입향되어 있는 씨족들의 명조(名祖)만 밝혀 놓았다. 따라서 이들 성씨들에 대해서만 입향조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성씨별 입향조

1) 청송 심씨

가. 시조 및 본관의 유래

청송 심씨의 시조는 홍부(洪孚)인데 자는 홍일(洪一)이다. 고려조(高麗朝)에는 문림왕(文林王), 위위사승(衛尉寺丞)을 역임하였으며, 4세손인 덕부(德符)는 고려 충숙왕(忠肅王) 때에 왜관의 침입을 평정하였고,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증흥(中興) 9공신(功臣)의 한 사람으로 충근랑절의찬좌명벽상삼한삼중대광문하시중(忠勤亮節翊贊佐命壁相三韓三重大匡門下侍中)이 되어 청성군(靑城郡: 청송의 옛이름) 충의백(忠義伯)에 봉(封)해지자 그 후손들이 본관을 청송(靑松)이라 하였다.

나. 입향조

청송 심씨의 인제 입향조는 덕부의 6세손인 승보(承保)다. 승보는 자가 계창(啓昌)이고, 호는 인제(麟蹄)다. 중종(中宗) 계미(癸未 1523)년에 한양에서 부장(部將)을 지낸 자청(自淸)과 경주 이씨 사이에서 3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한때 선무랑(宣務郎)을 지냈으나 벼슬에 뜻을 거두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특히 도학(道學)에 정통하였으며, 신선과 같이 일생을 명승지를 유람하며 유유자적(悠悠自適)하였는데, 인제에서 여러 해를 머무는 동안 설악산의 절경에 심취되어 많은 시문(詩文)을 남겼다고 하며, 그런 연고로 호를 인제(麟蹄)라 하였다고 한다.

말년에는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머지않아 난세(亂世)가 계속될 것 같아 강원도 인제에 살 터를 정해 놓고 왔다. 그 곳은

앞으로 300년간 후손들이 번성할 이름난 땅이다. 300년이 지나면 또 한번 난을 겪을 것이니, 그 전에 남쪽으로 다시 옮겨서 자손들이 창성할 곳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 곳에 묻어 줄 것이고, 너희들도 때가 되거든 그 곳으로 가서 충·효와 근면을 근본으로 삼아 학문을 익혀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고, 농경(農耕)을 생업으로 하며 벼슬길에 나서지 말라.” 하였다.

선조(宣祖) 7년 갑술(甲戌 1574)년에 그가 떠나니 후손들이 유언에 따라 강원도 인제군 동면(東面 : 지금의 인제읍) 원대리 비록동(飛鹿洞)에다 묘소를 마련하였다. 둘째 아들 위(渭)는 자가 자운(子胤)이고, 호는 원대(圓臺)인데 선조 12년 을묘사화(乙卯士禍 1579)를 피하여 인제로 오게 되었다.

다. 인물

량민(良敏) : 절충부호군(折衝副護軍)을 지냈다.

잠민(潛敏) : 수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

삼상(三相) : 수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

상하(相河) : 효심이 지극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증직되었다.

연(演) :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냈다.

이명(以溟) : 수직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재택(載澤)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냈다.

준학(俊鶴) :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냈다.

천택(天澤) :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춘택(春澤) : 효자(孝子)로 삼강록(三綱錄)에 기록되었다.

효삼(孝參) : 효행을 인정받아 첨중추(僉中樞)에 증직되었다.

사인(思仁) : 이름난 효자였다.

동섭(東燮) : 효행을 인정받아 이저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호민(浩敏) :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냈다.

2) 경주 김씨

가. 시조 및 본관의 유래

경주 김씨는 신라(新羅) 왕실의 박(朴)씨, 석(昔)씨와 더불어 삼성(三姓) 가운데 하나다. 시조 알지(閼智)는 탈해왕(脫解王) 9년에 금성(金星) 서쪽 계림(鷄林)의 한 나무 끝에 걸려 있던 금궤(金櫃)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탈해왕은 이를 매우 기뻐하며 금궤에서 태어났다 하여 김씨 성을 하사하였고, “하늘이 내려 주신 아들”이라 하여 정성을 다하여 길렀다.

김씨가 처음으로 신라 왕위에 오른 것은 알지의 7세손부터였으며,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에 이르기까지 무려 38명이 연금상계(連錦相繼)하여 선원세계(璿源世界)를 계승하였다.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손국(遜國)하자 그의 아들 9형제 중 장남인 일(鎰)은 망국의 한을 안고 입산하였고, 2자 굉(鎧)은 나주 김씨(羅州金氏), 3자 명중(鳴鍾)은 경주 김씨(慶州金氏) 영분공파(永芬公派), 4자 은설(殷說)은 경주 김씨 은설공파(殷說公派), 5자 석(錫)은 의성 김씨(義城金氏), 6자 건(鍵)은 강릉 김씨(江陵金氏) 7자 선(鐔)은 언양 김씨(彦陽金氏), 8자 추(錘)는 삼척 김씨(三陟金氏), 9자 덕지(德摯)는 울산 김씨(蔚山金氏) 등의 1세조(世祖)가 되어 각각 계세(繼世)하고 있다. 경주 김씨는 그러니까 경순왕의 제3자인 명중과 제4자인 은설로부터 기원이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번성해짐에 따라 현달(顯達)하는 인물, 또는 세거(世居) 지역을 중심으로 분파(分派)되었다.

나. 입향조

경주 김씨의 인제 입향조는 경순왕의 제4자인 대안군(大安君)은 은

설의 30세손인 시진(時珍)이다. 생, 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결성(結城: 지금의 충남 홍성군)의 두정동(斗井洞)에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낸 응청(應靑)과 파평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입향 연대나 동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의 부친 응청이 임오(壬午 1642)년에 사망하였는데 묘소가 결성에 있고, 시진(時珍)의 묘소는 인제의 가리산리(加里山里)에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보면, 임오(壬午 1642)년 그 후라고 할 수 있다.

다. 인물

동업(東業): 철종(哲宗) 무오(戊午 1858)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상갑(尙甲): 참봉(參奉)을 지냈다.

윤희(允浩): 효행을 인정받아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되었다.

춘호(春浩): 사헌부감찰겸의관(司憲府監察兼醫官)을 지냈다.

제2장 기고문

- 지역 문화와 인제 문화
- 원로회를 창립하면서……
- 우리 “쌀”을 지키자!
- 사슴방생운동본부 창립총회 인사말씀
- 中國(동북지방) 紀行文
- 꿈꾸는 內麟川으로의 여행
- 내린천에서 번지점프의 묘미를 맛본다
- 유적지를 찾아서
- 사람과 칭찬의 대화

지역 문화와 인재 문화

- 지역 문화와 인재 문화의 발전방향 -

손 흥 기

문학평론가(내린천 예술인회 회장)

1. 문을 열며

- 새로운 가능성은 변방에서 비롯된다

새 천년이 시작된 21세기가 문화의 세기임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소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어하는 '향유의 시대'이다. 이제 문화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화적 환경과 기회를 창출하고 향유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격적인 민권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문화정책에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제 지방 자치단체들은 문화를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욕구도 경제적, 사회적 성취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문화적 삶의 향수(享受)를 추구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지방 자치단체도 과거와 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풍요만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던 발전의 개념을 지향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의 육성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또한 문화정책의 가치 또한 과거의 문화적인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등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예술을 지역의 정체성 및 이미지 창출, 문화관광의 활성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경쟁력 차원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화예술공간이 서울과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은 문화적인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지역 문화의 현주소이다. 특히 군 면적의 70%가 산간벽지이며 민통선에 인접한 최전방 지역으로서, 문화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인제 문화 환경의 현주소이다.

본 글에서는 오늘날 지역 문화의 현주소를 개괄적으로 점검해 보고, 인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지역 문화의 현주소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요즘 어딜 가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이 말처럼 문화관광부가 21세기 주요 정책의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산업의 추진, 또는 그 진흥정책들과 함께 지방화 시대 이후 그 지역에 토대를 둔 지역 문화 인지들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잠재적인 힘들이 지역의 문화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들에 고무된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복지정책과 맞물려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는 것에 대하여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한 피테의 말을 새삼 인용할 필요도 없이 문화의 꽃은 지역 문화이다. 국가 중심의 국부론(國富論)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향부론(鄉富論)이 운위되고 있는 시대에 향

부론의 원천은 바로 지역 문화이다. 지역 문화는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싹을 틔우고 꽃피울 수 있다. 그러나 표준어가 사투리를 말살했듯이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중심주의가 지역 문화를 촌티(?)나는 사투리 버전 정도로 전락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그 동안 중앙의 <표준성>, <동일성>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러온 획일적인 문화 권력이 낳은 폐해이다. 따라서 중앙의 획일적인 문화권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다양성을 무기로 하는 지역 문화는 그 동안에도 홀대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방 문화인가

지역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일을 통해 지역이 문화 공동체로서 자기 고유의 색깔을 가지는 것은 곧 민족 문화의 전체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나 다름없다. 지역 문화는 지리적으로 특정 공간의 문화로서 소위 중앙 문화나 국가 문화에 종속되는 지방 문화 혹은 부분 문화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화·표준화되어 있는 도시 문화의 한계와 달리 지역 문화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민족적인 문화로서 한국 문화의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지역 문화는 당대 문화의 현상보다 전통 문화의 다양한 층위를 지층처럼 잘 갈무리 하고 있다. 대도시에는 외래 문화와 대중 문화가 범람하지만 지역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자취를 감춘 전통 문화의 유산들이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문화는 민족 문화의 발전과정을 보여 주는 문화사로서 전통 문화와는 층위를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지역 문화의 중요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제 문화예술의 오늘

내설악의 관문인 인제는 만해 한용운 시인의 사랑의 증도가 「님의 침묵」을 집필한 백담사가 있느며, 「세월이 가면」의 시인 박인환의 활짝 피우지 못한 시심을 잉태한 곳이다. 또한 우리 나라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내린천과 ‘한반도 허파’라고 불리는 천혜의 환경·생태의 보고인 내설악이 병풍처럼 둘러 쌓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유산을 바탕으로 레프팅과 산악자전거, 모터사이클 등과 더불어 체험, 모험 관광지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군 면적의 70%가 산간오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민통선에 인접한 최전방 지역으로서, 문화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 또한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형적, 사회 문화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에는 문학, 미술, 사진, 공예, 수석, 서예 등 많은 예술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장르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문학

현재 인제 관내에는 내린문학회(회장 김규중)와 내린천 예술인회(회장 손흥기), 그리고 인제 주부 독서회(회장 정순덕)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8년도에 창립된 <내린문학회>는 현재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박인환의 문학적 성과를 조명하고 추모하는 <박인환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박인환 문화제>는 박인환 문학상 시상을 비롯하여 박인환의 추모 백일장, 동화구연대회, 시낭송대회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문학의 향기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문학의 꿈을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연간지로 <내린문학>을 발행하여 회원들은 물론 향토문인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하고 있다.

<내린천 예술인회>는 지난 97년 내린천 댐건설 반대운동에서 보여준 인제 군민의 성숙한 환경의식을 높이 기리고 천혜의 환경보고인 내설악, 내린천을 영구히 보존하고 가꾸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설된 단체이다.

‘환경과 예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만남의 자리’라는 주제로 창작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린천예술인회는 내린천댐 반대운동 당시 임의 단체인 <내린천 댐건설 반대 전국 문인 대책회의>를 해소하고 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창립된 예술인들의 모임이다.

<내린천예술인회>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영화, 만화 등 갈래와 지역을 초월하여 자연과 인제를 사랑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내린천 반대운동기념 <생명·환경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생명환경예술제는 <환경부장관상패, 전국 여성환경백일장>을 비롯하여 생태계 사진전, 환경 미술전, 향토작가 초대전, 환경시 낭송회, 생태체험기행 등을 개최하고 있다. 향후의 계획은 환경과 생명을 주제로 한 종합예술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문예창작활동을 통해 환경보존에 앞장선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녹색예술인상>(가칭)의 제정, 환경그림 그리기, 전국 학생환경백일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과 예술을 주제로 한 종합 계간지 <녹색예술>의 창간을 준비하고 있다.

<인제 주부 독서회>는 관내 유일한 여성들의 문화예술 단체로 지난 99년 창립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목받는 단체이다.

인제 도서관 주부 독서교실을 모태로 출발한 이 모임은 <책 읽는 엄마가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선정한 책을 읽고 <독서토론>, <작가와의 대화>, 창작의 고향을 찾아 떠나는 <문학기

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를 초빙하여 <문예창작강좌>를 통해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1년 간 회원들이 틈틈이 써 온 습작품들을 정리해서 <다시 그리움을 노래하자>를 3집째 출간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를 통해 가족 간의, 그리고 계층과 연령을 초월하여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여성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은 물론 자아성취와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오늘날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술

지난 88년도에 창립된 <인제미술인회>(회장 최용건)는 지역의 토박이 미술인과 내설악의 아름다움을 찾아 등지 뜬 외지 정착 미술인들 20여 명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인제미술인전은 지방의 미술인전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중앙의 어떤 전시회 못지 않게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매년 가을이면 관내 학생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오지마을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미술전>은 군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3) 서예

60여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인제서회>(회장 고운 김향)는 지난 97년부터 정기 회원전인 인제 서회 임서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인제문화원에서 서예 교실을 운영하며 서예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 향유에 큰 건인차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다.

4) 풍물

전통놀이 문화와 국악의 불모지였던 인제군에 사물놀이를 보급·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제사물놀이회>(회장 김종호)는 현재 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은 매주 인제문화원에서 풍물강습을 통하여 우리의 소리를 전파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사물놀이반을 집중 지원하여 상징적인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다. 특히 관내의 각종 행사에 공연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에 활력소를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내설악 수석회, 내설악 사진동우회, 설악분원 연구회 등이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인제 군민의 종합문화제전인 <합강문화제>에 작품 발표회를 갖고 있으나 동호회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에 대한 향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제문화원과 인제도서관이 있다. 현재 인제문화원 문화학교에서는 서예, 풍물, 국악, 퀼트, 스텐실,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인제 도서관에서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 수목화교실, 주부독서교실, 종이접기 교실들을 개설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 문화의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문화인들을 배출해내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4.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제에는 다종다양한 장르의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문제제

기는 크게 <문화예술단체들의 내부 문제>와 문화예술에 대한 <환경조성 문제>, <행정지원 문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문화예술 단체들의 내부 문제

인제 관내에는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들 문화예술단들의 성격은 대체로 친목위주이거나 동호인 수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논리적인 체계, 혹은 역량(전문적인 적자원)의 부족이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각 단체들은 각기 목적에 맞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사업들은 고립적이고 산발, 분산적인 개최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인제 문화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각 단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의 최소한의 협의체인 <인제예술인 단체연합>(가칭)을 구성하여 1년 간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교류 및 상부상조하는 문화풍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각 단체의 행사를 통합 개최 혹은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미술과 사진의 만남전, 시와 미술(사진)전이라든지, 조각과 사진의 만남, 국악과 시의 만남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연대 행사를 통하여 비용의 절감은 물론, 동호회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단체를 견인해 내고 체계화할 수 있으며, 문화적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사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효과 또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자체의 행정지원 문제

문화예술활동에서 창작물 발표 및 활동 프로그램을 사회화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일 것이다. 문화예술활동이라고 하면 대체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재정지원은 물론 행정지원에 인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다른 지자체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문화예술을 통해서 당장의 어떠한 수치상의 부가가치나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미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화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의 발상이 전환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이다.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한 인제군(대체적인 강원도의 군 단위의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의 가난한 살림으로는 의욕이나 제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는 인제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고 지방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문화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원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일 년간 5천만 원씩을 출연하여 총 3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의 조성계획은 액수의 다소를 떠나 인제 문화예술을 위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원을 보내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한 인제 문화의 앞날은 지극히 낙관적이며 희망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위 기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인

제문화재단)〈가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덧붙이고 싶다. 이 재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이며, 기금 사용의 심사 및 집행 등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연구하는 단체로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3) 문화적 환경조성 문제

문화예술은 혼자만의 창작이나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토양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화적인 환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물론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문화적인 환경조성은 〈유통과 수요의 측면〉과 〈외부 예술단체와의 연대·교류〉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유통의 측면

유통이란 문화예술 창작물(내용물)의 발표와 소통 방법을 말한다. 문화의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① 문화예술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에 합당한 공간과 기술 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등을 들 수 있으며,

② 이미 작품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작가,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조적인 작품활동의 지원을 위한 정보, 전문적인 지식, 자본의 제공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매체인 〈문화예술단체연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수요의 측면

-문제는 문화민주주의이다

모든 문화예술은 창작자와 수요자(享受者, 관객, 독자)의 만남에서 꽃을 피우며 그 존재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의 향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민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우선 교양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각종 질 높은 문화내용들을 접촉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접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화 내용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키워나가야 하며, 이러한 소임은 문화예술의 생산자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양을 키워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기층대중들의 의식과 정서를 고양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 문화욕구가 없는 대중들에게 문화욕구를 유발해 내고 감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하며 단계적으로 향유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② 문화의 개발성은 오늘날 문화는 윌리엄스가 주장했듯이 삶의 문법이자 '총재적 생활양식'이 되고 있다. 대부분 잘난 사람들의 잘난 문화나 예술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문화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을 자신들의 문예작품을 소비해 주는 한갓 문화소비자 혹은 구경꾼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끌어들이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문화향수가 부족한 시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마련과 문화기획 구상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행사는 문화인이 독점하고 예술활동은 예술가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문화인의 문화가 아니라 일상인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작가들이 작품만이 예술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작품도 소중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문화인이자 작가이며 예술가라는 인식 아래,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중적인 지역 문화활동을 지향(指向)해야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소수의 생산자나 고급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대중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삶의 마당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즉 소수의 엘리트적인 <고급문화>의 확산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구성단위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대중들의 의식과 정서를 담아내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시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예술단체와의 연대 · 교류의 측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지역 문화의 가장 큰 맹점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부족과 열악한 재정, 그리고 문화예술의 한 축을 형성하는 문화의 향수자(관객, 독자 등)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외부지역의 문화단체와 손잡기(연대)를 통해 빈약한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공동 경비투자로 부족한 재정의 충당도 가능할 것이며, 이렇게 만든 작품은 함께 손잡은 지역을 오가며 전시 · 공연함으로써(교류) 예술인에게는 창작의욕을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접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문을 나서며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의 지방 문화는 아직까지 변방의 문화, 혹은 주변부 문화로 폄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지역의 문화는 더 이상 중앙의 들러리 문화일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문화를 추동해 가는 역동적인 문화로서의 자긍심과 동시에 이를 개발하고 전파해야 할 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제 문화예술은 지역의 열악한 지리적, 사회 문화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부침(浮沈)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한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과 문화예술이 양적·질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개별적이며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규합, 체계화하는 구심점으로 <문화예술 단체연합>같은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예술 발전의 토양은 무엇보다도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그러한 문화적인 환경의 조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생산자들은 끼리들만의 유희나 전시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함께 동참시키고 공유하는 가운데 인제 지역 문화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부족, 열악한 재정 등의 극복을 위해 외부 예술단체와의 제휴와 연대,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오늘의 대중들은 이제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되기보다 주체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중들의 문화욕구도 주체적이며 참여적이고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들의 욕구는 지극히 정당하며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문화예술의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들 모두의 신성한 의무이며 과제일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와 명쾌한 대안이 있을 것이나 제한된 지면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발제자의 역량의 한계로 접근조차 하지 못한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기며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원로회를 창립하면서……



방 호 정

인제군 원로회 회장

현 세대 노인들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를 살아온 분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은 가족과 국가를 위해 평생 동안 희생의 노력을 해오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세대이기도 하다.

노후생활을 위해 재산을 모아 둔 노인도 별로 없고 은퇴 후 정부나 회사에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도 없는 편이다.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들의 도움 속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나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기도 한다.

그 가운데 노인네들에게는 노후생활에 맞는 물리적인 환경의 조성 및 적응에도 큰 관심이 있다. 사회적 위치와 영역에서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를 유지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처리하며 사회에서 어른구실을 하고 가정에서는 자녀 또는 손녀들과 원만한 관계로 어른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세대차에 임하면서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이해하고

지식과 생활을 배워 향상하고자 노력해 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알고자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자 한다.

지난 날 우리 인제 지역 노인 원로님들의 대부분은 노년기에 알맞은 일들을 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후 몇 분의 자주적인 만남으로 결국은 원로회를 구성하는데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에 마음 먹은대로 크게 기대는 못하지만 각자의 희망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끝으로 지난 11월 1일을 기하여 인제군 원로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 주민의 성원 속에 사회적인 역할에 깊이 적응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개 회 사

먼저 오늘 저희 인제군 원로회 설립 총회에 참석해 주신 김장준 군수님과 박삼래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인철 경찰서장님과 박경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고령화시대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의 인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명 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현대문명의 의료기술과 사회발전에 따른 축복이라 볼 수 있겠으나 노후생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의 증가는 오히려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별거, 배우자 및 친구들의 사망, 은퇴 후 갖게 되는 역할 상실감과 수입 절감에서 오는 무력감, 고독감 등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심리적인 고립과 소외라는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현대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적 지리적 이동은 노인 세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며 무엇인가 국가, 사회에서 유익한 생산적인 일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동시에 노인들은 여러 사람의 관계유지를 원하며 특히 가족,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제2장 기고문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를 비롯한 관내 몇 분이 뜻을 같이 하여 원로회 발기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지난 10월 9일 이곳 문화사랑방에서 8명이 다시 함께 하여 정관안을 작성하였고 10월 23일 다시 정관 안을 재정리하여 오늘에 이르러 회원 22명으로 설립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번영과 특히 노인복지 향상에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기관사회단체장님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다시 우리 원로회원들은 다시 각오를 갖고 다짐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보탬이 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성원과 지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제군 원로회 창립총회

인제군 원로회 회원 명단

(가나다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김덕주	북면 한계리 348-8	463-3383
김상현	인제읍 상동 2리 4반	461-0309
김은필	기린면 현 1리 5반	461-5155
김춘봉	임제읍 합강 1리	461-2663
김학수	남면 신남 2리 3반	461-6210
남상묵	인제읍 남북리	461-0660
마용봉	기린면 서 1리 1반	461-5611
박수환	인제읍 상동 3리 3반	011-9799-8600
박주국	기린면 서 1리 4반	461-5645
방효정	인제읍 남북리 612-8	011-369-0888
심영만	상남면 상남리 115-5	461-6714
심재필	인제읍 상동 4리	461-2235
손천유	북면 원통리 841-2	461-3342
이석형	북면 원통 3리 1반	461-3132
이형학	북면 원통 2리 1반	461-6651
여상우	북면 원통리 731	461-3059
원현성	북면 월학 3리	462-3864
최영운	인제읍 상동 1리	461-2370
이광근	북면 원통 5리 1반	461-3665
이원모	기린면 현 5리	461-5158
정형석	북면 한계 3리 1반	463-3203
심병관	서화면 서화 2리 3반	463-4310

우리 “쌀”을 지키자!



권 원 의

인제 농협 협동조합 조합장

쌀이 남아 돌고 있다. 쌀 없애기에 골몰해야 하는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다. 연세 높은 어른들은 지금도 밥알이 버려지는 것을 보면 하늘이 벌을 준다고 질색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며 역사 이래 먹고 살아온 고귀한 쌀이 어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태산같이 믿고 영위해온 대본이 아닌가?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쌀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지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부도 이제 믿지 못하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시점에 와 있다.

우리 쌀은 꼭 지켜야 한다!

우리 국민의 주식 쌀은 곧 생명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쌀 농사는 생명산업이다. 만약 우리가 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쌀 산업은 무너지고, 쌀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곧 쌀 농업기반인 논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될 때 4,800만 우리국민은 수입 농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외국에 맡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찌 우리의 먹거리를 외국에 맡길 수 있겠는가?

만약 앞으로 언젠가 세계 전쟁이 발발했다거나, 또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 식량을 무기로 삼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식량수입이 불가능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럴 때 우리 국민은 꼼짝없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민 여러분!

우리 쌀을 지킵시다!

이제 이 귀중한 쌀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몫입니다.

정부는 지킬 수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가 수입농산물을 사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리 쌀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입니다.

4,800만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화·개방화 물결에 밀려 우리의 고향,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지금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이대로 버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쌀밥 먹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패턴이 점차 서구화되어 가면서 다른 음식을 즐겨 먹고 있기 때문입니

다.

밀가루 제품인 라면·국수·짜장면·빵·햄버거·피자 기타 인스턴트 식품에 맛들여져 쌀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만증에 걸리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도 예외가 이닙니다. 고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성인병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식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쌀밥을 애용하면 비만증·성인병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쌀이 남아도는 원인은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밀가루가 주범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제 군민 여러분!

쌀밥을 애용합시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감소추세를 보면 1970년에 136.4kg, 1980년에 132.7kg, 1990년에 119.6kg, 2001년에는 88.9kg으로 1970년 대비 무려 47.5kg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하루 평균 쌀밥 2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 3끼 중 1끼는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식사하는 양도 과거에 비하면 반 이하로 줄었으니 쌀이 남아돌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 총 쌀 생산량을 보면, 연평균 약 3,650만석이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량은 3,200만석 정도 된다. 따라서 연간 450만석이 남으며, UR협상 결과 수입되는 양은, 금년에 약 100만석, 따라서 연간 550만석 정도가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우리 나라 국민 모두가 현재 쌀 소비량에 25% 정도(1인당 연간 110kg)만 더 소비하면, 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쌀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을 갖는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제 군민 여러분!

쌀밥을 애용합시다!

신토불이(身土不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엔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맞다는 뜻입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해서 우리 건강 지
키고, 우리 쌀·우리 농업·농촌을 지킵시다.

2002년 11월 일

인사 말씀

오 정 진

사슴방생운동본부 회장

희망찬 임오년 새해 벽두에 성숙된 시민의식의 결정체로 사슴방생운동본부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고 가슴 설레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로지 내 고장과 겨레의 앞날을 위해서 멸종된 사슴을 되살려 내려고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터잡아 살고 있는 이 인제 땅은 야생 사슴이 득실거리던 사슴의 고장입니다.

『麟蹄』라는 글자를 뜯어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麟』자가 사슴 『鹿』변에 쓰여졌고 발족 『蹄』가 아닙니다.

地名 자체가 사슴의 고장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최근 향토사 연구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사슴 밀렵을 감시하는 관리임명사령서가 몇 장 발견되었습니다.

그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893년 정월에 “이보국”이라는 관리가 “김홍팔”에게 내린 사령장으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인제군 남면 소개우리 장막처에 사슴밀렵감시관으로 임명한다는 주문과 일원을 살살히 살피 함정에 빠진 사슴을 돌려보내고, 이들 밀렵꾼들은 감시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기잡이를 하고 가는 척하고 농성을 부리니 잘 살피라」는 행동지침까지 적혀 있습니다.

구한말 고종치하 군란과 정변이 자주 일어나고, 민비가 왜놈들의 칼

에 살해되어 장작더미 위에 불태워지는 와중에도 국책으로 사슴을 보호해 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슴을 보호했을까요?

우리처럼 사슴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마 또 없을 것입니다.

지상과 천상의 다리를 놓는 영험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신라 왕관의 사슴 문양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십장생으로 믿었습니다. 토착신앙인 신선사상이지요, 어디 그 뿐입니까.

국내 사육사슴 15만 두의 녹용이 부족해 세계 녹용 생산량의 80%를 수입하는 選好民族이기 때문에 국운이 쇠잔해 가는 구한말까지도 사슴을 국책으로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江山에서 사슴이 멸종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이지요. 왜놈들은 소위 한일합병 이래 한반도에서 만주에 이르기까지 사시사철 사냥터로 마구잡이로 잡아치워, 한일합병 후 20여 년에 아주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대대로 소중히 여기던 사슴을 설악산 국립공원에 되살리고자 모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면 이 사슴방생운동본부창립은 실로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그 뜻은 깊습니다.

첫째, 멸종된 種을 되살려서 적극적인 환경보호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人間과 自然은 하나입니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중한 대자연의 일부인 야생동 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00평방 킬로미터의 광활하고 울창한 잡목림에 늘어서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이 비어 있습니다.

호랑이, 사슴은 이미 70여년 전에 멸종되고 반달곰, 사향, 노루, 산양도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그 흔하던 토끼마저 보기 힘들고 멧돼지, 고라니도 울무 등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단합하여, 자동이체된 기금으로 사슴을 사다 방생하고, 골짜기마다 답사하여 이를 보호하노라면, 다른 동물들도 자연히 함께 돌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생 동물보호를 정부가 아무리 소리높여 외쳐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하면 그 운동은 겉돌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점을 간추려 요약하면 사슴복원사업은 결국 모든 야생 동물보호운동으로 확산되어 적극적인 환경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악산 국립공원에 사슴을 방생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고장의 지역 개발사업이며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경제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담계곡이나 장수대지구에 야생 사슴의 무리가 뛰놀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30년 걸리겠습니다만, 우리의 힘으로 캐나다의 “알콘 퀴”이나 미국의 “엘로우 스톤” 또는 일본의 “나라” 국립공원처럼 만들자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지역 개발사업입니까?

셋째, 사슴 복원사업은 하나의 광복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놈치하에서 멸종된 사슴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은 분명히 우리의 얼을 되찾는 광복운동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구한말 고종치하에서 이 고장 요소에 야생사슴을 보호하는 초소를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령서가 최근 향토사 연구과정에서 최병헌 시인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써, 제가 지금 주장하는 사슴복원이 하나의 광복운동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야생 사슴이 뛰놀던 한일합병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사업은 분명히 광복운동입니다.

넷째로 이 야생 사슴복원사업은 설악산 중심으로 잡목수림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고장을 거점으로 백두대간을 사슴목장화해서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 주자는 것입니다.

사슴 살리기에 적합한 산지를 텅텅 비워놓고 울타리 속의 사슴을 사료로 사다 먹이고 풀을 배다 사육하는 것이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드넓은 산야에 드러 내놓고 먹이면 얼마나 경제적이며, 신토불이의 녹용 또한 우리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업에 뜻을 같이해 이 자리에 모이신 동지 여러분! 우리 이 고장의 발전과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민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엄청난 사슴복원사업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혼연일체가 되어 역할을 분담해 일사불란하게 협동해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大學” 생태학연구소 명예회장이신 “유진 오덤”의 생태학에도 이점이 누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120여 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갖게 되는 이 협회가 결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강력한 협동심을 발휘해서 1차로 5개년 간의 설악산국립공원에 야생화를 위한 사슴 종자 심기를 끝내고, 이 경험을 토대로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 전 인제 지역에 확대 실시되면, 사슴 방생은 대체로 끝나고 이를 잘 보호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왕에 뜻을 세워 뭉친 사슴 방생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초지일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향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22일

사슴 5(放生에 부쳐)

똑같이 축복된
하나의 生命으로 태어나
남의 손아귀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안쓰러운 것이 또 있으랴

탐욕의 화신 “호모 사피엔스”
그들만
이 초록의 행성에 넘쳐나
분탕질 치는데

철망에 갇혀
사료나 씹으며
푸른 전설이 메아리 치는
네 본향 청산을 바라만 보고 있구나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 돌려 보내마
가거라
大自然의 드넓은 품으로

죄없이 착하기만 한
너 사슴아!

2002. 5. 29

사슴 6(생태복원 시민운동)

경북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에
뛰노는 사슴의 무리
선사시대 조상들이
사슴과 함께 생활했다는 증거다

안악의 고구려 고분벽화
말 탄 기사가 활시위를 당겨
달아나는 사슴을 겨냥한
생동하는 모습 또한
삼국시대 이 강산에 사슴이
많았다는 뚜렷한 증거다

내우외환의 구한말 고종치하
백두대간의 중심 이곳 인제땅
요소마다 장막(幟幕)이라는
사슴 밀렵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관리를 임명하여
엄격하게 보호했으니
이 또한 사슴을 소중히 하여
함께 살아온 증거다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조선말) 국권을 잃을 때까지
우리 겨레는 사슴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왜놈들의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멸종되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

“십장생”이라 하여
토착신앙으로 뿌리 박히고
지상과 천상에 다리를 놓는
영험한 존재로 믿으며
녹용을 선약(仙藥)으로 알아
애용해 온 이 겨레

사슴이 사라지니
적막강산이 따로 없구나
이제 이 江山에
사슴이 다시 뛰놀도록 복원하자

뜻을 같이 하는 동포여
일어서서
“사슴 생태복원”의 깃발 아래
힘차게 앞장서 나아가자

사슴 7(꿈)

산에는 사슴이 자취를 감추고
들에는 학이 날지 않는다
산도 들도 텅 비인 이 강산

착하고 목이 긴 사슴을 그린다
들과 산 어디에나
사슴이 뛰노는 꿈을 꾸다
나 또한 한 마리 사슴으로
어울리는 꿈을 꾸다

산에는 사슴이 살아 신비롭고
들에는 학이 날아 운치가 있다

사슴도 학도 없는
텅 비인 산과 들

진종일 먼 산 바라보고 서서
동화 속에 살고 있는
사슴을 생각한다

中國(동북 지방) 紀行文



이 만 철

인제 문화원 사무국장

● 첫째 날(2002. 7. 17)

1) 인천 공항 출국

서울 구의동 주변 호텔에서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 인제) 사무국장들과 숙박을 했다. 아침 일찍 서둘러 택시를 타고 인천 공항으로 떠났다. 이른 아침이라 교통이 막히지 않아 약 1시간쯤 되어서 인천 공항 3층 9번 출입문 입구에 내렸다. 9번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우리들은 한식 식당을 찾아 “소고기 우거지 국밥” 한 그릇으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하지도 않은 국밥이 9천 원이었다.

비싸다는 느낌에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다.

환전을 마치고 있노라니 함께 동행하는 타 문화원 가족들이 하나 둘 집결하였다. 이여서 연합회 회장님, 총장님, 상무님이 도착하면서 인원을 점검하고 가이드가 출국수속을 했다.

비행기에 출국탑승 시간은 12시 20분이었다.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이며 활주로를 감돌더니 비행장에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와 함께 고음을 내면서 드디어 비행으로 점점 높이 솟아 올랐다.

도시와 산과 바다가 작게 보이며 점점 멀어만 보이더니 어느덧 우리들은 구름 위에 올라 잠잠한 여행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2) 장춘 공항에 도착 후 연길 공항으로

오후 4시 10분 장춘 공항을 앞두고 비행기는 하강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가보고 싶던 중국 땅이 점점 가깝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듣던 말 그대로 웅장한 대륙의 이미지를 첫눈에 느끼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 웅기 종기 형성된 마을이 보이며 집들은 빨간색 지붕으로 일괄되어 있고 들과 야산에는 농작물의 터전으로 온통 이루어 있어 과연 우리 나라에 중국산 농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즉시 느끼게 하였다.

조금 후 장춘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공항 한옆에는 군사 전투용 비행기가 진열되어 있어 심적으로 긴장이 되었다.

잠시 입국 수속 절차를 마치고 가이드의 주의사항과 휴식시간을 접수하고는 공항 주변에서 구석구석을 구경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장춘(長春)은 일본 제국의 잔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제시대에 이름은 신경(新京)이었다고 하고 만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시의 건물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한다.

해방(1949년) 후 길림성의 성도가 되었고 개혁 개방(1980년) 후 부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곳곳에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한다.

잠시 후 우리 일행은 휴식을 마치고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 연길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마침 날씨가 좋아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니 높은 산은 없고 낮은 산 계곡 평야와 언덕 너머로 굽이굽이 차도가 늘어져 길게 뻗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마을 형성이 되어 있었으며 온통 농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전답이 엄청나게 넓은 벌을 이루고 있었다. 또 다시 우루과이 농작물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3) 연길에 체류하면서

약 40여분 후 연길 공항에 비행기는 멈추고 우리 일행은 가이드를 따라 1, 2조로 나누어 2대의 버스에 다시 승차하였다.

1조 버스에는 이수홍 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 동대문구 원장님과 일행 등 20명이 승차하였고, 2조 버스에는 하만기 연합회 총장님과 강원도 사무국장 등 16명이 승차하였다. 잠시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현지에서 나온 30대의 여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자기(차홍매) 인사 소개와 현지의 소개를 하였다. 아울러 나는(인제 사무국장) 이곳에 오기 전에 연합회 장부장으로부터 조장의 역할을 부임받고 왔기에 마이크를 잡고 탑승하고 있는 2조 차량의 인원에게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고 끝나는 날까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어느덧 버스는 연변 시가지를 지나게 되었다. 가이드는 지나는 곳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가이드 말에 따라 예전에는 이곳 연변에 조선족이 70%까지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39% 정도 살고 있다고 하며 연변은 그간 많이 발전되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차량이 지나는 차도에 중앙선이 별로 없고 삼거리와 사거리 등에 신호등이 별로 없는데 차량 소통은 잘 되고 있었고, 사고 또한 그리 없다고 한다. 역시 중국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리어커를 달아 짐을 운반하는데도 크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상점마다의 간판에는 한글이 위에 써 있고 밑으로는 한문이 써 있으며 오후 5시만 되면 대부분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며 불일을 본다고 한다.

잠시 후 연변에서 제일 맛있게 잘하는 냉면 집에 도착하였다. 안내를 받으며 우리 일행은 진달래 냉면집에 들어가 준비되어 있는 원탁

식탁에 6~7명씩 둘러 앉았다. 잠시 후 대형 유리 그릇에 냉면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냉면 양보다 3배 이상이 담겨져 나왔다.

모두들 놀라며 양이 많다고 하니 주인측에서는 먹고 더 먹으라고 권하였다. 정말로 냉면 맛은 구수하고 시원한 맛으로 일품이었다. 그러나 일행 모두는 반 그릇 이상씩 남기었는데 나올 때에 주인에게 맛은 너무 좋으나 양이 많아 남기고 간다고 미안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밖에 나와 공식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시 버스에 승차하였다.

잠시 후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중국 연길시 예술극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일행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예술극장 안으로 들어가 앞줄 네 번째 중앙 관람석에 안내를 받아 앉았다. 무대 위 현수막에는 “제4회 조선족 음악제 수상자 공연 및 축하공연”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주최는 “연변 조선족 문화 발전 추진회 연변 군중 예술관”으로 되어 있고 후원은 “한국 전국 문화원 연합회”라고 적혀 있었다.

잠시 후 막이 열리더니 사회자 김신애(연변인민 방송국 아나운서)의 소개로 우리 일행은 모두 무대에 나와 소개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었다. 백두산 천지가 화려하게 그려진 무대에서 기악합주와 독창, 그리고 무용과 춤 또한 민요 등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연길시 조선예술단의 물동이 춤은 선녀와 같은 어여쁜 연예인들이 나와 공연을 하였는데 매우 수준급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우리 일행과 공연 출연자들은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연회장으로 이동하여 롬 테이블 식탁에 현지 조선족 출연자들과 어우러져 앉았다.

잠시 후 동대문 원장님의 사회로 공식 행사가 있는 가운데 이수홍 연합회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서 준비한 푸짐한 음식과 술로 연회는 시작되었다. 서로 주고 받은 음식과 이야기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하였다.

얼마쯤 지나 노래방 기계를 틀어 놓고 현지 가수들의 노래 소리가

이어졌다. 반갑습니다, 노들 강변, 도라지 타령 등 귀에 젖은 음악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식당 종업원과 아가씨들의 찬조 노래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술과 밤 시간이 깊어 가는 가운데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한민족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한편, 희노애락이 섞여진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 회장님의 추천에 의해 나는 앞에 나가 한국측의 대표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란 노래를 불렀다. 밤이 깊은 관계로 내일을 위하여 연회장을 나와 비교적 시설이 좋다는 대우 호텔에 들러 숙박을 하면서 하루의 일정을 끝냈다.

● 둘째 날(2002. 7. 18)

이침 일찍 호텔에서 조식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1, 2조로 나누어 버스에 승차한 후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백두산 관광으로 떠났다. 가는 길은 좀 좁은 비포장 도로였으며, 도로 옆으로 나무 전봇대가 늘어져 있는데 전선줄은 많지 않아 60년대의 우리 나라 모습이 떠올랐다. 집들은 낮은 싸리문과 나뭇가지 울타리로 되어 있으며 다 허물어져 폐허가 되는 집에 사람이 기거하는 모습이 보였다.

가이드는 계속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가끔씩 지난 날 있었던 이야기와 체험담, 그리고 웃음 섞인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이드 생활도 공부도 많이 하였고 경륜도 많아 보이는 느낌이었다. 자기의 말로 가이드 생활 10년이라고 한 것을 보니 꽤나 이 생활에 여물기도 하였다고 느꼈다. 한 곳을 지나다 터널이 나왔는데 “오호령 차굴”이라고 적혀 있고 안에는 전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가이드는 이 터널에 예전에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는데 연유하여 오호령 차굴(차가 다니는 굴)이라 하였고 평상시 전등불은

밝혀 주지 않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 문화원 측에서 왔기에 불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백두산 장백폭포 밑에 온천탕이 있는데 그곳의 남탕은 “고추탕”이라고 되어 있고, 여탕은 “조개탕”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여 승차한 전원의 웃음 보따리도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한참 후 휴게소라는 곳에 들렀다. 집 한 채의 마당에 그리 맘에 안드는 물건들이 진열되었는데 중국 상인이었다. 화장실에 소변을 보려고 하였는데 가보니 기가 막혔다. 들어가는 문도 가려져 있지 않고 칸막이가 있으나 역시 여기도 가려지지 않았는데다 나무를 들성들성 건네놓는 위에서 불일을 보아야 하니 또한 냄새와 파리떼들의 비위생적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신차리고 정조준을 해서 짧은 시간으로 끝내야 할 정도다. 그 와중에 남, 여 함께 불일을 보아야 하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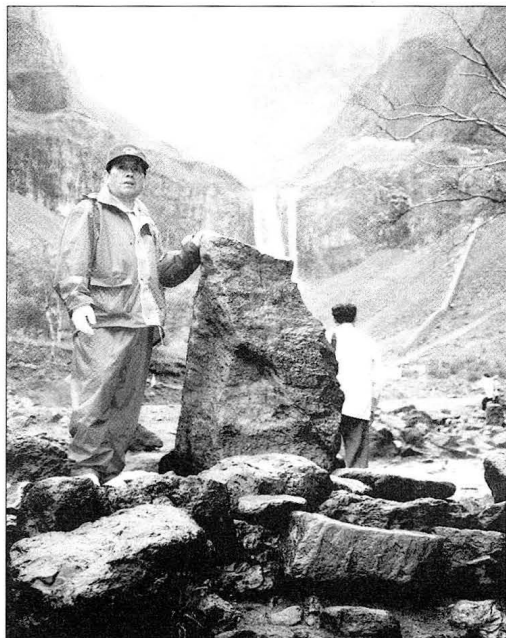
버스는 다시 백두산을 향해 달리다가 “백두산 한식센터”라는 곳에 멈춰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점심을 그런대로 마치고 다시 우리 일행은 다시 버스에 승차한 후 산비나무, 자작나무 밀림 속으로 백두산을 향해 계속 달리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모두의 생각은 아마도 모처럼 찾아온 백두산 천지를 못보겠구나 하고 아쉬운 생각이었다.

얼마쯤 가다보니 가이드는 이제 다왔다고 하고 버스가 멈추자 모두 내려서 대기하고 있던 현대차 겔로퍼에 6명씩 나누어 타라고 하였다. 잠시 후 우리를 나눠 태운 겔로퍼 차량은 천지를 향해 좁은 2차선 언덕길을 굽이 굽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가이드의 말대로 우리는 1인당 3천 원씩을 모아 운전기사 팀으로 주고 정상 주차장까지 오르는데 험한 길을 굽굽이 돌면서 운전하는 기사들은 정말로 1급 기사들이었다. 정상에 올라 차에서 내려보니 비가 계속 오는 것이었다. 우비를 입고 가이드 안내를 따라 옆으로 50여 미터 가다보니 천지가 밑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 보이질 않았

다. 한동안 기념사진을 찍고 쉬노라니 구름이 거치고 천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 일행은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가이드가 말하면서 이곳에 와서 천지를 못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다시 겔로퍼를 타고 하산을 하여 천지 폭포로 달려 갔다. 비는 계속 내리는데 폭포 주차장에 다시 하차하고는 천지 폭포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가는 도중에 야외 온천 물가에서 익힌 계란을 천 원에 3개를 사서 나누어 먹어 보았다.



천지폭에서(필자 이만철)

천지연 폭포 밑에 올라 사진과 구경을 두루 하면서 우리들은 잠간 휴식을 하였다. 이 천지폭포(장백폭포)의 낙차 68m의 물은 홀려 송화강을 이루었다. 일행은 오던 길로 내려와 온천 탕에 들어가 온천욕을 하고 숙박할 호텔로 차를 타고 내려와 저녁을 맛있게 먹으며 술과 이야기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강원도 사무국장들은 중지를 모아 식사 후 짐을 풀고 간단한 회의를 갖은 다음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다. 잠시 후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루의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 셋째 날(2002. 7. 19)

호텔에서 아침 일찍 서둘러 식사를 하고 곧바로 조별로 승차를 해서

다음 코스인 용정대성중학으로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 가이드는 무공해 밀원으로 양봉을 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꿀과 로얄제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내를 받았다. 일부 일행은 꿀과 로얄제리를 구입하였으나 본인도 5만 원 하는 로얄제리 한 병을 구입하였다. 잠시 후 자장나무, 피나무 등 잡나무가 우거진 도로를 따라 계속 갔다. 얼마쯤 오다 가이드는 이곳이 바로 김좌진 독립투사가 싸웠던 청산리 전투의 열이 서려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많은 설명을 해주었다.

다음 정차할 곳은 북한인이 운영하는 청심환을 구입할 수 있는 휴게소인데 얼마 후 우리는 이곳에 도착하여 현지 북한인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 35세 가량 된 남자가 들어오더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월드컵 4강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청심환 설명과 벽에 걸려 있는 여러 자수의 그림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를 독창하고서 청심환을 구입하는 시간으로 안내를 하였다.

일행 중 일부는 구입을 하고 나와 승차를 한 후 다시 용정으로 떠났다. 얼마 후 가이드는 다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건너편 멀리 보이는 일송정 위치를 가리키며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었으며 진짜 一松亭은 늙어 고사가 되어 없다고 하였다. 다시 승차 후 용정으로 달려 가는데 가이드는 저기 보이는 강이 해란강이라고 알려주었다. 드디어 용정에 도착하여 우선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해결했다. 또다시 승차 후 대성중학교로 이동하였다.

중학교 앞에 세워진 민족시인 윤동주의 시비가 아주 잘 단장된 채로 서 있었다.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이름모를 생체실험 주사를 맞고 죽은 시비 앞에 서서 시인의 애국혼에 고개를 숙였다. 29세의 젊은 나이로 애국청년 시인의 넋이 서려 있는 이국 땅에서 우리 모두는 뜻깊은 감회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교실 2층 안에 들어가 독립투사들의 그림과 사진 그리고 옛 글을 안

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잠시 후 곰 사육장으로 안내를 받아 곰들의 사육장을 잠시 둘러 보고 사무실에 들어갔다.

현지인들은 쓸개를 탔다는 소주 한 잔씩을 주고는 앞에 나와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응답 제약에 대한 설명을 유창하게 한다. 몇 사람은 구입을 했다. 다음은 두만강 코스로 차량은 달리고 있었다. 어느덧 차량은 도착하여 하차를 하게 되었다.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과 북한 마을이 건너다 보인다.

두만강은 강폭이 6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데 이상한 것은 쳐다봐도 내려다보아도 강바닥이 깊은 곳도 얕은 곳도 없이 4차선 고속도로처럼 환하기만 하고, 크고 작은 바위 돌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마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을 때 모두 주워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강 위에 띄워 놓은 집에 일행 3명과 함께 일인당 5천 원을 주고 보트를 타고 두만강 밑으로 올라 가면서 북쪽을 바라다보니 바로 50m 앞 육지 나무 밑에서 보초 근무를 하고 있는 인민군을 보았다.

다시 돌아 내려가면서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인민군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손을 흔들어 주어도 반응이 없었다. 타개한 원로 가수 김정구님의 두만강 푸른 물이 공사로 인하여서 인지 흙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도문공원 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노라니 열 살쯤 되는 허름한 남자 아이가 곁에와 북한에서 왔는데 좀 도와 달라고 손을 내민다. 도문교는 북한과 중국을 도보로 왕래하는 교량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도문은 본래 회막골인데 독립군이 주둔하면서 도문으로 부르게 되었고, 도문의 위치는 길림성의 동부가 되고 간도소에 속하는 도시라고 한다. 조선족이 60%, 한족이 40%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다음 북경으로 가기 위하여 일행은 연길 공항에 도착하였다. 시간이 없어 재촉하여 국내선에 탑승하였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떠나 하늘 높이 날았다. 지루함에 지쳐 모두들 잠을 자다 말다 하며 한 시간이 훨씬

넘도록 가고 있는데 북경에 비가 많이 내려 착륙이 곤란하다고 해서 심양공항으로 돌아가 착륙하였다가 가능할 때에 다시 북경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심양공항에 내려 잠시 대기하면서 꾸구리고 있는데 탑승하라는 소식이 왔다. 다시 북경으로 비행기는 심야의 하늘을 소리없이 비행하고 있었다. 지루함을 이기며 북경 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여자 가이드가 나와 안내를 하였다. 일행은 호텔 화운반점에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 넷째 날(2002. 7. 20)

부폐식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였다. 역시 조선족이 해주는 음식과는 달라서 대충 되는대로 해결하였다.

잠시 후 차에 승차하여 만리장성으로 떠났다. 가는 도중 소낙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주차장에 도착 후 우비를 입은 채 케이블카를 타고 만리장성에 올랐다. 모두가 신기하고 기술적인 시설이었다. 만리장성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고 두루 걸으며 관찰하노라니 참으로 웅장하며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돌을 가져다 만리장성을 쌓았는지 꿈같은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주차장에 내려와 차를 타고 가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다음 코스인 용경협에 도착하였다. 용경협은 이름도 이야기도 듣지 못한 곳인데 너무 신비의 운치, 경치가 있는 관광지였다. 50여 킬로미터의 길고 넓은 잔잔한 푸른 호수의 양 옆으로 높이 깎아 세운 바위 벽성, 그리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림같이 자라고 있고, 그 위 30여 명씩 타고 오가고 즐기고 있는 배들이 한가로이 즐기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함께 대~한민국 하고 소리를 쳐 보았다. 다른 배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손뼉을 맞추어 “짜잔짜 짹” 하고 힘차게 쳐준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한국인들이었다. 무응답으로 가는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필자 이만철)

배들은 외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호텔 화윤반점에 돌아와 저녁을 마치고 휴식 후 잠자리에 들었다.

● 다섯째 날(2002. 7. 21)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천안문 광장으로 갔다. 천안문 광장은 TV에서 보았듯 인산인해였다. 넓은 광장에 기념탑이 있고 한편에는 모택동 그림이 보인다. 역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았다.

또 하나의 웅장한 자금성 관광에 들어섰다. 웅장한 건물들을 지날 때마다 신화적이었다. 왕이 외빈객을 맞았던 곳, 병사들을 다루던 곳, 왕과 왕비가 기거하던 곳, 왕의 후손들이 살며 공부를 하던 곳, 연회를 하던 곳 등 한 건물 한 건물을 지날 때마다 웅장한 건물과 짜임새에 놀라움이 많았다.

후문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대련으로 가기 위하여 북경공항으로 떠났다. 비행기는 약 1시간 후 대련공항에 도착했다. 첫 인상이 대련시

는 깨끗하며 항구도시로서 마음에 들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안중근 의사의 수형소로 떠났다. 마침 일요일이라 여순 형무소에 근무하던 중국인 공무원들이 5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여기까지 와서 안중근 의사의 수형소를 못보고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들었다.

이윽고 시간을 지켜 버스는 도착을 했다. 가이드의 주의 사항을 듣고 일행은 들어갔다. 유럽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1902) 2층 본관 건물 입구에는 여순 일아 감옥구지라는 가로판에 붙어 있는데 정문 오른쪽 기둥에는 “여순 일아 감옥구 지진 열관”이라는 세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본래의 감옥(감방이 253칸이어서 2천~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에 진열관을 따로 지었으니(1971. 3)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붙인 모양이다. 2천여 점의 철기, 동기, 회화, 비, 갑오전쟁 자료, 노일전쟁 자료, 현대역사 문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진열관은 감옥이어서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감옥의 옥사는 큰 대자(大)처럼 방사상이고 가운데에 간수대가 있다. 물론 간수가 올라서서 감시하는 간수대는 2단 높이로 높았다. 좁은 감방 안에는 찌그러진 밥그릇, 물통, 변기통이 있고, 감방 문 옆에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인쇄된 감규(감옥 규칙)가 붙어 있었다.

감옥 안에는 검신실(신체검사실) 교회실(욕하고 때리면서 취조하는 방으로 여러 가지 구타 용기가 있었다), 교형실(목을 매 죽이는 사형장) 암뇌(반 평 정도의 지하실인데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사흘간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이 먼다는 감방이다) 각종 작업 공간(벽돌공장, 인쇄공장, 방직공장 등 15개소)들이 있었다.

높이 4~6m의 붉은 벽돌담 안의 면적은 2만8천m²여서 옛날 서대문 구치소 정도 크기였다.

이 감옥은 1945년 8월에야 감옥으로서의 기능을 끝냈고 1971년 7월 수리를 마친 다음 개방했다고 한다. 지금은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쓰고 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5개월만 갇혀 있던 방은 3평 정도의 햇볕이 잘 드는 독방이었다. 책상과 침대까지 있었고 국사범 대접을 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는 이 독방에서 이등방문의 죄악 15개조, 안응칠 역사, 동양 평화론, 인심 결합론, 옥중 한시, 옥중 편지, 동포에게 고함, 최후의 유언 등 많은 글을 썼고, 200여 폭의 유묵(간단한 글, 이 가운데 22폭은 우리 나라의 보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을 남겼다. 안중근 의사의 육신은 92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정신과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 남아 있다.

한 가지 남은 과제는 그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백골)을 찾아 조국에 안장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은 위대한 선조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 호텔(국제 호텔)로 돌아와 식사 후 취침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7월 22일 08시 30분에 대련 공항에서 출발하여 10시 40분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일행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꿈꾸는 內麟川으로의 여행

한 용 운

영월군(寧越郡)에서는 동강(東江) 살리기 운동이 한창이다. 영월댐 건설 반대운동인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동강에 7억 톤 규모의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기암절벽을 이리 저리 굽이치는 물굽이마다 단종왕의 한(恨)서린 충절의 강물이요, 어라연(魚羅淵)의 옥(玉)같은 물길에 얹힌 수 많은 전설도, 신비스러운 자연의 동굴들도 이제는 영원히 물 속에 잠길 판이다.

영월 군민과 환경 단체의 우이령 보존회, 녹색연합 등이 적극적으로 댐 건설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제 군민들은 새로운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정부의 댐 건설계획 백지화로 수몰 위기를 넘긴 동강이 안고 있는 몸살은 이만 저만이 아니라 하겠다.

댐 건설 백지화 투쟁 10여 년간 주민들은 대부분이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빚만 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영월댐 피해 보상을 74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지상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음주 레프팅에다 가는 곳마다 쓰레기 천지라고 하니, 내린천 강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린천 환경보존에 심혈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이다.

기기묘묘한 바위와 자연경관, 소(沼)와 담(潭)에는 희귀의 물 고기 떼와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인제의 내린천! 재작년에도 이곳 내린천에 댐에 건설되면 백두대간의 허리가 물 속에 잠기고, 국토는 기

(氣)를 잃어버리게 될뿐만 아니라, 조상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댐 건설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내린천 댐 건설 백지화 선언을 이끌어 냈었다.

이는 국채사업으로서 지금껏 그 어떤 타의에 의한 소수 국민들의 의사가 받아 들여져 백지화가 된 역사가 없는 그야말로 전에도 후에도 없을 오직 삶의 보존, 자연 환경의 영원한 보존과 인간의 승리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무 후무한 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크게 장식하고도 남을 인제 내린천 댐 백지화! 내린천은 흘러 가야만 하리. 영원히……

“내린천 너 영원하라.”

지난 1997년 9월 27일 내린문학회 주관으로 한국문인 협회와 환경보존단체, 내린천 댐 건설 반대 투쟁 위원회의 후원하에 “내린천 댐 건설반대 및 환경 보존 전국문인 시(詩) 낭송회”를 개최 하면서 한국의 원로시인 황금찬, 원영동, 구상 등 저명 인사들을 비롯한 전국 문인들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한 권의 “내린천 너 영원하라”를 시집으로 엮어 전국에 배포하면서 “내린천 댐 건설 반대 투쟁”에 앞장을 섰었다.

內麟川 너, 영원하라

오 정 진

江은 흘러야 자기 소명을 다한다/ 부단히 길을 열어 제 갈길을 가면
서/ 맑고 깨끗하게 가다듬어/ 만물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때문에/ 江이 흥겹게 어깨춤 추며/ 흘러 가면/ 삼라만상 이 모두 생
기에 넘치고/ 헤치고 막아/ 썩고 병들면 만물도 썩고 병든다 보라!/
어리석게도 생명의 모태 내린천을 막아/ 코 앞의 효용(效用)을 취하려
하지만/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만리를 날아도/ 삼장법사(三藏法師)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듯/ 대자연의 이법(理法)을 한치도 어기지 못
하고/ 벼락보다 무서운 재앙만/ 불러 들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신명(身命)을 던져/ 너를 천연(天然)의 모습 그대로 지
켜 나갈/ 결의를 다진다

태고의 신비 속에/ 구비 구비 칠십리를 휘돌아/ 그물 메아리꼴을 넘
치는/ 내린천!

조상이 대대로 너와 더불어/ 살아 왔듯이/ 우리 또한 네 품에서 살
다가/ 자손 만대에 물려/ 흐리게 하리라

내린천 너 영원하여라/ 그리하여/ 삼라만상을 끊임없이 안아 키우
리라

(내린천 댐 건설 반대 전국문인 시선 중에서)

정부의 국체 사업을 놓고 국내에서의 지역 사회운동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선례로서 크게 자리 매김이 되었던 내린천
댐 백지화가 2002년 1월 30일로서 제4주년을 맞게 된다.

당시 정부의 내린천 댐 백지화가 선포되면서 전 국민들은 안도의 숨

을 크게 쉴 수 있었고, 댐 건설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인사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백서 발간, 기념탑 건립 등을 추진하며 군민의 대축제 한마당 잔치를 치르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댐 건설 백지화 선언 이후 그 4주년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댐 백지화 백서 발간은 커녕 기념비 건립 등 대 군민 약속 사업이 안개 속에 표류하고 있다.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는가? 내린천 댐 반대투쟁 위원회 간부들, 삭발식, 헌혈선포식, 군민 서명운동, 중앙기관 항의 방문 등, 댐 반대 분위기 수위를 한껏 높이려고 동분서주하며 앞장서서 목청껏 외치던 그 사람들은 지금은 어디에서 무얼하며 살고 있을까?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정체성을 높여 주었던 내린천 댐 백지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간단하게 치르던 단체마저 한 곳도 없는 이 실정을 어떻게 무어라고 군민들에게 말 할 수 있으리오.

우리 나라의 시민 환경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되고도 남을 내린천 댐 백지화를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함양, 계승하기 위한 기록 보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나 하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영월군의 동강댐 건설추진과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을 보면서 말이다.

더구나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간 후에 수도권 주민 식수 생활의 필요성에 의하여 또다시 내린천 댐 건설이 추진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인제 군민들의 안이한 인식도 문제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오직 내린문학회가만이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998년 11월 14일 “댐 건설 반대 및 환경보존 전국 문인 시 낭송회” 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한국 녹색 시인회 후원으로 “제2회 환경보존 시 낭송회”를 개최했었다.

그리고 2001(10. 14~17)년도에 내린천 댐 건설 반대운동 4주년 기념으로 내린천 공동 유원지, 방태산 휴양림 일원에서 내린천 사랑

예술인회 주최, 한국 녹색 시인협회의 후원으로 “제3회 생명·환경예술제”를 개최했었다. 이 같은 사람은 계속 그 연륜을 쌓아가며, 군민들의 가슴 속에 자부심을 키워 나갈 것이다.

인제 군민의 영원한 내린천은 오늘도 말없이 침묵하면서 깊은 잠 속에 동면하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다. 내린천 댐 반대 투쟁에서 발벗고 나섰던 인사들도 유아무야하게 깊은 잠 속에 빠져 있고, 그 내린천은 그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깊은 잠 속에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내린천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하며, 그 물길따라 여행을 떠나 가기로 하겠다.

참으로 머나 먼길 인제(麟蹄)! 그리고 內麟川이여! 보이는 것은 모두 산들 뿐이요, 그 산뿐인 인제는 193,630km²의 넓은 면적에 35,000여 명의 인구가 6개 읍면에 흩어져 산촌 마을을 이루고 사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또 내린천은 소양강의 분류로서 내린천 강의 연장은 약 92.4km 정도나 되며, 그 유역 면적은 1081.3m² 정도가 된다. 그야말로 인제라는 곳은 태고의 원시림을 고이 잘 간직한 첩첩산중이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그리 많이 닿기 힘든 곳이다. 그래서 일찍이 일러 오기를 ‘자연이 자연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찬하는 곳 중의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전국 천정 제일 지역이다. 6,000m가 넘는 봉우리만 해도 96개나 되고, 이 같은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사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골짜기와 계곡이 마치 커다란 물뱀같이 꾸불꾸불 뒤틀려 있다. 그리고 맑고 맑은 강물은 때로는 폭포수가 되어 무지개 빛 같은 물보라를 일으키고, 천연 기념물인 열목어를 위시한 각종 희귀종의 물고기떼를 키우며 유유히 흐른다.

이 내린천에는 열목어를 비롯한 어름치, 금강모치, 돌마자, 빠가사리, 돌상어, 새코미꾸라지, 통가리, 꺾치, 밀어, 갈겨니, 버들치, 참종

개 등 다양한 어종들이 깨끗한 찬물 속에서 서식하고 있다.

또한 인근 점봉산, 방태산, 가리봉 등에는 수령이 200년 이상 되는 신갈나무, 금강소나무, 주목 등을 비롯해서 등대사호, 모데미풀, 금강초롱꽃, 진부애기나리, 그리고 하늘 다람쥐, 오색 딱따구리, 수달, 사향노루와 같은 희귀 동, 식물이 살고 있다.

특히 울릉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졌던 섬말나리, 모데미풀, 한계령풀, 점봉산 엉겅퀴 등도 생육하고 있음이 최근 어느 학술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된 바도 있다.

내린천의 일부분의 최상류지인 필레와 그에 인접되어 있는 점봉산은 한반도 식물의 남북방 서식의 한계선이 맞닿아 우리 나라 전체 식물의 20% 이상을 이루는 854종의 꽃과 나무들이 서식하는 보고지로 이미 유엔의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더 유명하다고 하겠다.

이왕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이 점봉산은 6·25사변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처절함을 담은 영화 “태백산맥”(임권택 감독)의 주된 촬영지였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번 기행에서 밝혀 두고자 한다.

봄이면 철쭉 군락, 여름이면 질푸른 녹음 속으로 타고 가는 레프팅의 스릴, 가을이면 오색무늬의 단풍, 그리고 겨울이면, 눈꽃등, 내린천의 사계는 철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 안고 맞이한다.

유일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유유히 흘러 내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신비의 내린천은 양양군 서면 북룡산에서 발원하여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서 소계방산 물줄기와 합쳐져서 방계천의 물굽이를 이루고, 또 광원리에서 내면 창촌리로 흘러 들어오는 자운천과 합류하여 이루어진 하천이 내린천의 최상류가 되는 것이다.

지명상으로 내린천은 상남면 하남리에서부터 기린면 현리까지, 그

리고 인제읍 피아시, 또 함강리까지의 물길을 인제에서 통상적으로 내린천이라고 일컫는다.

그 맑고 맑은 내린천 강변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전설,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필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들추워 보겠다.

상남면 미산리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소개인동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개인산 중봉에 있는 약수를 만나게 된다. 바로 이 약수가 개인약수인 것이다. 어느 학술서 기록에 의하면 1891년경에 함경북도 사람이 이곳 깊은 산골에서 수렵생활을 하다가 약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개인 약수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전국에서 위장병 환자들이 수도 없이 모여 드는 곳이다.

이 미산리에는 우리 내린문학회 막내둥이 이정 시인(문학세계로 등단)이 산골의 때묻지 않는 순진스런 처녀답게 맑은 시심을 키우며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 고향 美山村에는

이 정

비탈밭 마주앉은 美山/ 밭에 수 놓던 어머니의 손길이 멈추는 계절
이름하나 얻고 뜬 풍경이고저/ 노오란 색실 물고 가라나무 줄쳤고/
참꽃진 자리 떠나보낸 아픔으로 성숙한 단풍나무/ 바늘에 선홍빛 실
꿴고 있다/ 하늘은 깊은 마음 끝 보이지 않는 파란 색실 늘어 뜨리고/
어머니를 부른다.

허리 펴고 앉아 바라보는 美山/ 한숨은 바람결에 쓸리고/ 마디굵은
손가락 바늘귀 어둔 눈으로/ 색실 곱게 꿴 수 놓으면/ 어머니의 수
틀 속에/ 또 하나의 가을이 익어간다

(97 내린문학 제9집에서)

기린면 현리 시내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방골 계곡은 포장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찾아가기가 용이하다. 길 옆 곳곳에 벌통이 수 없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조선시대에 자연 석청을 임금에게 진상품으로 받쳤을 만큼 꿀이 유명했던 곳이다. 이 계곡은 최근 방태산 자연휴양림이 개장되면서 휴양림 안에 감싸 있기에 한 번쯤은 꼭 가볼만한 곳이다.

또 현리에서 8km 떨어진 곳에는 무색 투명한 광천수로 천연가스를 포함, 탄산, 철, 망간, 불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탁 쏘는 맛이 일품이다. 이 약수로 밥을 지으면 푸른기가 서리서리 감도는 방동약수가 있다. 1967년 경에 심마니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수령은 알 수 없는 늙은 엄나무 뿌리 밑에서 샘이 봉글봉글 솟는다.

그런가 하면 오지중의 오지로서 지프차로도 가기가 힘든 아침같이

(조경동)이란 곳이 또 있다. 이곳은 아침햇살으로 온 동네를 비추는 곳이라 하여, 옛날부터 아침 같이라 불리어 왔다고 한다. 방동약수터 윗길로 10여분 동안 고개를 오르고는 또 50여 분간은 내리막길을 내려 가야만 하는 곳이다. 곧게 뻗은 낙엽송이 여러 곳에 큰 숲을 이룬 곳으로 그저 적막하고 무서우리마치 고요하기만 하다.

점봉산의 용수골, 곰배골, 오작골, 황골을 시발점으로 하여 흐르는 실개천이 기린면 북리를 경류, 내린천과 합류되고, 가리봉을 발원한 물 줄기가 하추리를 지나 검무석에서 또 합류하며, 원대리 안삽재, 박갓저울에서 흐르는 냇물 줄기가 장수터의 원류와 합류되어 피아시, 텃말, 노루묵을 지나면서 합강대교 밑에서 인북천과 합해져서 소양강으로 흐른다.

內 麟 川

— 노루묵의 여울 —

한 용 운

인제 고사리 여울목에는/ 늘/ 물살/ 돌틈 사이로/ 안개의 시작을 본다.

새벽을 일으켜 세우는 바람/ 커브길 돌아서면/ 목을 추기는/ 속살
고운/ 흰 물살들

산울림/ 멀리/ 술발 떠나는 소리/ 아득한 구름다리/ 내를 건너가고
해 어스름 녀에야/ 낡은 시립문 들어서서/ 산 그늘/ 빈 장독대에 어
둠이 깃든다

(97 三瀑文學 제2집에서)

내린천의 굽이굽이 흐르는 강변에는 수도 없는 인명들이 바람과 같이 왔다가 소멸되고, 또 생성되면서 소박한 꿈을 키워 해 맑은 삶 속에 살아가는 현재가 있고, 자손만대의 무궁한 미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인걸(人傑)이 난다고 했드시 내린천 강변에는 이웃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웃어른들 공경과 어버이들을 극진히 모시고 사는 효자, 효부가 많다.

옛 문헌에서 보듯이 상남면 미산리에 효열부 강릉 김씨 정려각이 세워져 있다. 상남리에 열녀 전주 이씨 정려각이 있고, 기린면 방동 1리에 열녀 김해 김씨 정려각이, 현리에 효행자 이영순 정려각이, 북 3리에 효열녀 순천 김씨 정려각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인제읍 귀둔 1리에 열녀 전주 김씨 정려각이, 원대리 안삼재에 열녀 삼척 김씨 정려각이 세워져 있어, 후세의 귀감이 됨은 물론 한국 전통 미풍양속에 따른 효자 효부들이 대를 물려 이어져 온 곳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근래에 와서 필자가 직접 취재하여 기록 정리해온 효자, 효부들도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된다. 상남면 하남 3리에는 94년 제22회 어버이날에 “한국전통 모범가정”으로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을 받은 여산 송씨(宋奎燾) 5대가 한 지붕에서 오손도손 정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원대리에는 88년도 화홍상(華虹賞)을 수상한 趙玉女 여사, 하추리에는 보건부장관 표창 수상자인 효자 尹鍾郁 씨, 장수터에서는 97년 충효 부문의 인제 군민 대상 수상자인 효부 鄭順玉 여사, 또 내린천 하류지인 상동리에는 89년 국무총리 표창자인 효부 金福南 여사, 남북리에는 역시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효부 趙海恩 여사, 역시 대통령 표창 수상자 효부 李明子 여사님이 있는 곳이다.

요즘에 와서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한 급류에 젊은을 싣고, 숨막히는 쾌감 속으로 흘러 내리는 내린천의 레프팅!

“양현 앞으로 빠르게……!”

“후현 뒤로 뒤로……”

인제읍 고산리에 레프팅 하선장 2개, 전용 샤워장 2개와 원대교의 등 3개에 승선장 설치와 42km에 대한 산악 자전거 코스의 개발도 이미 지난해 끝마친 상태다.

또한 인제읍 기룡산(起龍山)에는 패저글라이딩 활공장 2개와 진입로 3km도 이미 완공되었다. 올해 말까지 합강정 일원에 국제 규모의 번지점프장을 개설하여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발을 묶어 들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원대리에는 산악자전거 지원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설하는데 이어 원대교 밑 주변 공원 8천여 평에는 레프팅 중심 공원을 조성, 연간 10만 명 이상의 레프팅 동호인들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데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이같은 내린천 모험관광 종합개발에는 총 53억 원이 투자되므로써 경제국 파급 효과는 약 9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內麟川 강변 — 강가 사람들 —

한 용 운

푸른 물결 흘러 내리는/ 내린천 강변/ 좌, 우측으로 언제나 늘/ 키잡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긴장하며, 좌충 우돌의 아찔한 묘비를 맘껏 느낄 수 있는 이곳의 레프팅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고감도의 레저스포츠다. 기린면과 인제읍의 경계가 되는 공동 유원지에서 시작 해서 하추리, 원대대교, 장수터, 피아시, 밤골을 유유히 지나 고사리 본 부락에 이르는 물길은 자그만치 총 연장이 16km나 된다.

인제와 내린천은 교통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서울과 춘천에서 속초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철정 검문소에서 바로 우회하여 상남면 하남리 쪽으로 들어 올 수 있다. 그리고는 철정 검문소를 지나면 인제에 이르게 되고, 인제시가를 벗어나면 1km쯤에 있는 합강대교 앞 현병 검문소에서 우회전해서 현리쪽으로 들어 서면 된다.

새 천년의 첫 해가 되는 2001년 말까지 인제군에서는 인제 내린천 모험 관광지 기반 시설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레프팅,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패저글라이딩 등의 기반 시설이 마무리 되면 전국 제일의 모험 레포츠 단지로 크게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길게 늘어 놓은/ 천년의 기기 묘묘한 바위들/ 그 조약돌과/ 이끼 푸른 청벽이슬 그/ 청류 흐름은, 땀들다가는/ 그 세월 사이로 보이지도 않는 바람따라 흐르고/ 흘러만 가고/ 흘러서 가리/ 예, 오늘 사는 내/ 그리운 사람들/ 대 물려 억겁을 살고가듯/ 숯빛 노을 속으로 아스라히 빈손들고/ 그 발길을 돌려 가누나

(97. 9. 29. 경향신문에서)

내린천에서 번지점프의 묘미를 맛본다

김 신 향

거리문학 추진위원회 위원장

인제에 가면 호주의 번지점프를 할 수 있다

여름 햇살이 강물 위로 산산히 부서져 마침내 질서정연한 물결을 이루어 내는 내린천.

눈이 반쯤 감겨 내린는 한 낮의 눈부신 태양을 앞으로 하고 번지점프장 난간에 섰다. 사면이 탁트여 날아갈듯 상쾌했다. ‘인제에 가면 호수의 번지점프를 할 수 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시사하듯이 세계 최고의 기술시스템 도입으로 시공된 호주 리빙타워형 번지점프장이 인제읍 함강정 공원내에 자리하고 있다. 번지점프의 유래는 남태평양 판타코스트섬 원주민들의 성인식 통과의례로 치르던 의식을 아이디어로 하여 뉴질랜드에서 레포트로 창안, 발전하였다.

국내 최고의 리빙타워형 번지점프로 최고의 안전성을 위해 번지점프를 60도 각도로 기울이고 타워의 양쪽을 강철구조물로 지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의 번지빅(Bungyvic)사에서 설계부터 건축감독, 그리고 필요한 모든 훈련까지 기술을 이전받았다.

내린천 번지점프는 두 대의 승강기로 빠르고 안전하게 번지점프대까지 오르고 바로 승강기에서 점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더욱더 안전한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내 최고의 높이 국내 최고의 리빙타워형 번지점프는 오직 인제에만 있어 첨단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인제에서 번지점프를 해야 하는 장점이 열 가지 있다.

첫째, 호주의 리빙타워형 번지점프로 국내 최초 도입이라는 점이다.

둘째, 안전 200%, 위험율이 0%의 도전으로 리프트를 타고 점프대까지 올라가서 안전한 번지점프를 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최고의 높이 55m를 자랑하는 상공에서 설악산을 받아래 굽어 보는 그 짜릿한 기분.

넷째, 하나, 둘, 셋 푸른 물 속으로 점프. 이름 그대로 강이 만난다고 해서 합강, 소양강 상류 내린천을 향해 점프할 수 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가 아닌 철저한 교육받은 안전요원의 완벽한 서포트.

여섯째, 두 대의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하여 기다리는 지루함 없이 한번에 점프대까지 오를 수 있다.

일곱째, 레프팅, 패러글라이딩, MTB. 번지점프장까지 인제는 레포츠의 천국이다. 최적의 자연환경과 최고의 시설이 갖추어져 진정한 이웃도어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제일의 레저 스포츠 관광지로 전국 최고의 모험관광지이다.

여덟째, '신개념의 숙박시설, 황토 찜질방인 민박집이 있고, 뜨근뜨근'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머릿속부터 발 끝까지 시원하게 청정 자연의 특별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아홉째, 인제 지역의 90%가 산과 들, 계곡으로 둘러싸여 계절마다 제각각의 향기를 지닌 산나물과 보기 드문 귀한 버섯, 그리고 1급수에서만 사는 민물고기들이 가득하다. 자연이 내려준 천혜의 산해진미로 자연산 건강식이 풍부한 곳이다.

열째, 춘천에서 홍천까지 시원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20분, 홍천에서 인제까지 1시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국내 최고의 모험 관광지 인제가 있다.

‘인제가면 언제오나’ 하는 말은 이제 먼 이야기로나 들려 일일 생활권 안으로 바뀌었다. 때문지 않은 청정 자연과 세계적인 수준의 이웃도어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 생기 넘치는 자연 그대로의 즐거

움이 있는 곳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황홀한 느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세상으로 용기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담력을 키우는 레포츠의 하나로 믿음을 가지고 점프한다면 튕겨 오르면서 창공에 매달리는 시간 2~3분 동안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으로 온 세상이 내것 같고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황홀한 느낌은 평생 느낄 수 없는 스릴감이랄까.

모든 자연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비추어 설악산 동해가 바로 눈 앞에서 푸른 장관으로 펼쳐지는가 하면, 부드럽게 곡선으로 그린 듯한 강기슭엔 나룻배가 오수(午睡)에 잠긴 채 누워있어 만해 한용운 님의 '나룻배와 행인'이란 詩가 저절로 떠오르게 한다.

주의 사항으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서명을 한 다음 점프해야 한다. 교통편은 서울에서 양평을 경유 홍천을 지나 인제까지 160km로 3시간이 소요된다.

참가자 이용요금은 성인 1회 3만 원이고, 단체 10인 이상은 27,000원, 단체 20인 이상은 25,000원이며 관내 주민 및 군장병은 15,000원이다. 이용가능 연령은 13세에서 50세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이다. 공원내 한 가운데는 합강정이 있다. 합강정 정자는 이 고장에서 가장 유서깊은 숙종 2년에 세워져 매년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제례를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왼쪽으로는 박인환 시비가 건립되어 있다.

인제가 낳은 시인으로 대표작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 등 주옥같은 시를 남겨 모든이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어 놓았다. 해마다 10월은 그의 시혼(詩魂)을 기리고자 박인환 문학상을 제정하여 박인환 문학제를 열고 있다.

그 옆으로 휴게소 겸 편의점 시설이 있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

다. 오른쪽으로는 분수대가 있어 하늘로 치솟아 하강하는 물줄기가 청량감으로 무더위를 식혀 주고 환상적인 불빛 아래 분수대는 자연의 빛, 달빛, 별빛과 어우러져 신비한 야경의 빛을 뿜어낸다.

레프팅으로 이어지는 모험 레포츠의 천국……

주변 경관으로 70km에 이르는 내린천 물줄기 위쪽으로 레프팅 코스가 있다. 레프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맑고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계곡의 경치가 함께 하는 스틸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여러 난이도의 급류 코스가 잘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제 궁동 유원지에서 고사리까지 16km 구간 코스는 수직하강이 많은 S자형 계곡으로 급류 타기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레프팅 구간은 기린면 서리에서 인제읍 고사리까지로 레프팅 업체가 14개, 안전요원 266명이며, 승하선상 5개소, 전용 샤워장 2개소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레프팅 코스는 4코스로 나누어진다. A코스(기본코스)는 원대교에서 고사리까지 6km,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1년 중 대부분 95% 이상 자연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코스로 급류가 주기적으로 이어져 있어 스틸과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코스다.

B코스는 하추리에서 고사리까지 9km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소요된다. 강우량이 50mm 내외 정도 내린 후에 선택되어 지는 코스로 형성되어 최고의 스틸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다.

C코스는 궁동유원지에서 고사리까지 16km로 3시간 30분에서 5시간 소요된다. 궁동 유원지에서 원대교까지는 급류가 없는 잔잔한 코스로 초보자나 물놀이 수준의 레프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후 코스는 급류가 이어져 성인들의 극기 훈련등의 코스로 적당하다.

D코스는 서리에서 밤골까지 19.2km로 5시간에서 6시간 소요된다. 장시간의 레프팅과 내린천의 모든 급류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

레프팅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기초 안전 교육을 따른다. 전문 교육 또는 가이드로부터 투어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30분 내외로 받는다. 레프팅에 승전하는 방법은 레프트의 좌, 우 옆쪽의 주튜브를 따라 앉게 되는데 레프팅을 바닥에 있는 발걸이에 한쪽 또는 두 발을 고정하여 패들링을 도중 또는 레프트가 급류로 들어갈 때 몸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어 도중 발생하는 돌발상황 즉, 참가자가 급류를 통과중인 레프트에서 떨어지는 경우나 레프트가 뒤집어질 경우 급류에서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말고 몸을 누운 자세로 머리는 계곡의 상류 다리는 하류 방향으로 떠내려 가면 아래쪽에 바위 등의 장애가 있다면 가볍게 발로 밀어 피해야 한다.

위험한 코스 곳곳에는 전문 가이드가 대기하고 있어 위험 발생시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참가자의 이용 요금은 어른 3만 원, 학생 25,000원이며 운영시기는 5월에서 10월까지다.

놀이문화가 눈으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온 몸으로 즐기는 운동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번지점프, 레프팅 같은 레포츠가 문명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나날이 절대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이다. 레포츠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로서 기계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구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포츠는 진취적인 기상을 키워주어 자신감 있는 생명력으로 삶에 자유를 주는 것이 묘미이다.

설악산이 시작되는 곳 인제, 내린천 물길 따라 흰 물새가 자연사(事)를 노래하는 저녁 풍경 속에 하루가 기운차게 흐른다.

유적지를 찾아서

최 병 현

금년 3월 중순이었다. ‘아마추어 성곽탐사 연구소장’ 직(職)을 맡고 계시다는 고성자(古成子), 김성호(金成浩) 씨로부터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다. 그 분은 서울 천호동에 거주하시고 서초고등학교와 오산공고에서 재직을 하시다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성곽(城郭) 탐사에 전념하신다고 자기 소개를 하며, 인제 관내에 소재(所在)한 성곽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왔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북면 한계리에 있는 〈한계고성〉 뿐이라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분은 합강리와 서화리에 있는 성은 모르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두 곳에 성지(城址)가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라 성(城)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제의 합강리에 만호터(萬戶堡)와 서화리 당봉(堂峯)이라는 곳에 축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성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며 성(城) 자가 들어 있는 지명(地名)이나 있을 만한 곳이 없겠느냐고 물으셨다. 그 물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 남면에 성재(城峴)라는 곳이 있는데 성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기린면 방동리(方東里)에는 지명과는 무관하나 전설에 성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곳이 있다고 하였더니, 한 번 기회 있으면 답사를 해보고 싶다고 관심을 표명하셨다.

그 뒤로 몇 차례 전화를 주고 받으며 나도 성곽에 대한 공부를 해 보리라 마음먹고 성곽에 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알게 된 것이 우선 성은 보통 내성(內城)만을 의미하는 것

이고, 성곽(城郭)이라 하면 내성과 외성(外城)을 통칭하는 것으로, 군사적 행정적인 집단의 공동 목적을 갖고 거주 주체의 일정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구조물이 역사성을 갖는 전통적인 건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종류별로는 거주 주체에 따라 도성(都城), 왕성(王城), 행재성(行在城), 읍성(邑城) 기타로 구분되고, 목적에 따라 행정목적인 성과 군사목적의 성으로 지형에 따른 산성(山城), 평지성(平地城), 평산성(平山城)으로 구별되고,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는 국경성(國境城), 해안성(海岸城), 강안성(江岸城), 내륙성(內陸城)으로 축성 재료에 따라서는 목책성(木柵城), 토성(土城), 석성(石城)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 전축성(傳築城)으로 평면성상(平面城狀)에 의해서는 폐합성(閉合城), 개방성(開放城)으로 대별되며, 선형(線形)에 따라 곡선형, 직선형, 혼합형으로 분류하고, 중복도(重複度)에 의해서 단곽성(單郭城), 복곽성(複郭城)으로 분류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4월 9일 저녁에 김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현재 인제에 내려와 있는데, 전에 이야기하던 성재라는 곳에 가 보자는 것이었다. 다음 날 김 선생님을 만나 성재를 안내하기로 하였지만 마음이 개운하지는 못했다. 왜냐 하면 그곳에는 이미 '78년도에 답사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 때 흙 속에 묻힌 채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석물(石物)들은 적어도 내 상식으로는 성이라 하기보다는 일종의 제단(祭壇)의 축대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기대는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가보면 알겠지만 성이 확실할거요.”

선생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성재라는 지명으로 보아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현지에 도착하여서도 나는 그나마 남아 있던 석물(石物)들이 다 휘

손되었으면 어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불안하기만 하였다. 서둘러 20여 년전에 살펴보았던 곳을 접근해 보았더니, 그곳에는 초라한 누각(樓閣)이 서 있었다. 아차 싶었으나 다행히도 그 옆으로 몇 개의 석물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이 불안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다.

“전에 보다는 많이 훼손되었으나 아직 흔적은 남아 있군요.” 하며 내가 말하자, 선생님은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리고 말았다. 그런 자세로 무엇인가 찾는 눈치더니,

“성이 틀림없습니다. 저것 보세요.” 하시며 손가락으로 건너편을 가리켰다.

“이쪽과 저쪽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길을 내며 원형이 훼손된 거죠.”

선생님은 상기된 표정으로 주위를 돌아보시더니,

“꽤 큰 성인듯 싶은데요.” 하시며 GPS(전지구위치과악시스템)라는 탐지기로 측정을 시작하였다.

측정이 끝난 뒤 선생님의 말씀은,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성곽의 둘레가 1,200여 미터는 될 것 같군요. 이 정도면 큰 성에 해당합니다.” 하셨다.

“축성 연대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나도 잘 모르지만 오래된 성은 틀림없어요.”

그때 구경을 나왔던 강동열(姜東烈 : 성재 식당 주인)이라는 분이 우리들 대화에 끼어 들면서,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마의태자가 이 곳에 와서 머무를 때 쌓은 성이라고들 한답니다.” 하고 말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1천여 년도 더 되었다는 논리이다.

선생님께 주위를 더 살피는 동안 나도 그 주변을 둘러보았다. 석축이 쌓인 선형(線形)을 따라, 석축 밑으로 지금도 군인들이 작업해 놓은 교통호가 구축되어 있고, 3군단 사령부가 이곳에 위치할 당시 군단

장을 지낸 오덕준(吳德俊) 소장이 당시 세운 비석(碑石)이 우거진 나무까지 사이로 소양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석에 새겨진 비문(碑文)은 다음과 같다.

포부

소양강 맑은 물가에
진치고서 이내몸은
부하장병 사랑하여
잘 먹이고 잘 가르쳐
조국통일 싸움터에
이겨보려 하노라

소장 오덕준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다음 날 방동(方東)을 가기로 하였다. 나는 또 전설이 사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미리 방동에 거주하는 원로 이장수(李長秀) 어르신을 수소문하여 성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느냐 여쭙었더니 놀랍게도 당신이 직접 보았다 하시며, 지금도 산에 오르면 찾을 수 있다고 하셨다. 반가운 마음에 다음 날 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정작 다음 날은 계획이 변경되었다.

김 선생님은 혼자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팀과 함께 내려 오셨는데, 방동에는 박물관의 조사팀만 가기로 하고, 박물관장 김기훈 대령과 선생님은 민통선 북방 지역에 위치한 성내동(城內洞)을 답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방동으로 갈까 하는데, 성내동으로 함께 가자는 제의가 있어 동행하게 되었다.

민통선을 지나 북상하는 이곳의 주인 없는 땅들은 수림(樹林)으로

덮여 있었다. 봄 햇살을 맞으며 하얀 꽃을 피우고 있는 복숭아, 살구 나무는 마냥 평화롭기만 하였다.

“손들어!”

금방이라도 옆에서 북한군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우리가 탄 차는 뒤뚱거리면서 뿌우연 먼지를 휘날리며 잘도 달렸다. 별천지가 따로 없었다. 새들은 자유로이 남과 북을 오가는데, 내 나라 내 땅을 마음대로 오고가지 못하고, 죄 없는 산천(山川)들은 저렇게 버림받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몽클하게 하였다.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며 속으로 되뇌어 본다.

성내동(城內洞)에 가서

이곳에 살던 이들
다 어디 갔나
잡목만 무성한 폐허
복사꽃 살구꽃 흐드러지게 피어
어깨동무 눈물나게 기다리는데
메아리도 없는 함성
들리지 않으니
그리운 이 마음
누가 있어 전하리오

목적지인 철책선 부근에 도착하였다. 초병(哨兵)들이 거처하는 막사에 들렀다가 초병들의 안내를 받아 성내동을 관망하기 좋은 곳으로 접근했다. 아직 나무와 풀들이 우거지지 않아 관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북쪽에 위치하였다는 성은 찾을 수가 없었다. 직선 거리로 1km(?)도 안되는 거리에 북한군의 막사(幕舍?)가 있었는데, 그곳

바로 밑에 지형(地形)이 토성(土城)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저것이 성이 아닐까요?”

내 물음에 김 선생님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아니예요.” 하였다.

“성내동이라면 성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인데,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최 선생도 이제는 많은 공부를 했군요.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 많은 성을 찾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갑시다.”

들어갈 때는 무척이나 멀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돌아오는 길은 아주 가까운 거리처럼 느껴졌다. 한 번 보고 지나친 때문일까. 옆으로 지나치는 나무와 풀들이 예사롭지 않고, 곁에서 보고 느끼는 것처럼 친근감이 들었다. 어디서인가 적막을 깨고 들려 오는 새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돌아오는 길에 서화리에 위치한 당봉(堂峯)에 들렀다.

“이런 것도 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반문하자 김 선생님은,

“현(縣)이 있었던 곳이니까 읍성(邑城)이 틀림없어요. 이런 것들은 대개 규모가 작지요.” 하였다. 나는 보통 성이라면 지면보다 높이 올라타리를 쌓는 것을 성이라고 생각하여 왔으나, 이 성은 밑에서 높은 곳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지면(地面) 아래 쌓았기 때문에 반문했던 것이다.

다음 날은 김 선생님과 함께 방동으로 향했다.

이장수 어르신이 보셨다는 성을 답사하고 돌아온 육사박물관 팀의 말에 의하면, 성이 실제로 존재하며 200m 정도가 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마을에 도착하여 안내자를 구할까 했으나 바쁜 농사철이라 포기하고 지리를 잘 아는 젊은이로부터 설명을 듣고 간단히 약도를 작성한 후에 입산(入山)하였다.

전설로만 믿고 있던 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설레임에 우리들

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 얼마를 걸었을까? 풀내음 향긋한 냇가에 앉아 쉬노라니 주위가 어둡침침하다는 것을 느끼었다. 계곡이 깊어서 그러려니 하였는데 하늘을 쳐다보니 비구름이 가득히 몰려와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어찌죠?”

“시간상으로 본다면 성터에 거의 다 온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다시 걷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젊은 친구가 말하던 것처럼 전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숲이 나타났다. 이 숲을 끼고 우측으로 돌아 얼마쯤 오르면 성이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우~하고 계곡이 울리며 부산스럽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것도 마냥 소나기가 아니라 황사(黃砂)를 동반한 소나기였다. 빗속에 가려진 전방은 3m 밖을 볼 수가 없고 더욱이나 안경에 달라붙는 황사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가기가 불가능하였다. 출발할 때 우의(羽衣)를 갖추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만 어찌겠는가.

“하산해야 되겠어요.”

김 선생님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서둘러 떠나지를 못하였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있는 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음에 다시 확인하기로 합시다.”
하시었다.

충충걸음으로 하산하는 길 옆에는 무심하게 풀꽃들이 비를 맞고 있었지만 선생님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랑과 칭찬의 대화

이 만 철

조물주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생활의 주성분을 사랑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기에 사랑은 인간생활의 중심 원리요, 근본 가치가 되는 것이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인간의 삶은 사랑을 주축으로 돌아간다. 사랑이 없는 인생을 생각하면 그것은 빛과 열이 없는 태양과 같고 풀과 꽃이 없는 화원과 같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옆자리에 집사람은 잠에 푹 빠져 있지만 나는 고상 앞에 다가앉아 아침 기도서부터 묵주 기도(구일기도) 등 30여 분을 몇 년째 감사 기도로 시작하며 가족과 가정, 직장과 사업,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지난 시간들에게는 감사. 앞으로는 원만한 기도를 구원한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집안 식구에 대하여 좀더 가까이 다가가며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말과 행동을 보여 주며 몇 명 안되는 직장 생활에 출근하여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로 또는 행동으로 움직이며 웃음 섞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잡고자 노력도 해본다.

하나에서 하나를 없애면 무(無)가 되듯이 인생에서 사랑을 제거하면 텅빈 껍데기와 같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대부분은 두 가지 결핍에서 온다고 본다.

첫째는 물질의 결핍이요, 두 번째는 사랑의 결핍이 되겠다.

나는 이 세상에 60평생도 못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시대적인 환경이 가난한 물질의 결핍을 낳게 되었고, 아울러 사랑이 결핍을 따르지 못하였기에 불행과 고통의 맛을

보았고 알게 되었다.

우리의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참기 어려운 허무감과 고독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이 풍부한 부부, 사랑이 넘치는 직장, 사랑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인간관계, 사랑이 흐르는 사회, 이것이 곧 행복이요, 희열이요,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의 최강의 힘이요, 최고의 덕이요, 최상의 보배요, 최대의 무기이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스승들이 한결같이 사랑과 자비와 인(仁)을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나는 천주교인으로서 사람이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천당을 가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자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디에서나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유하게 살아가기 위함이요, 후자는 이만큼 살아가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부처님은 대자비이시다.

또 사랑은 넓은 의미로도 생각해 보자. 친구에 대한 따뜻한 우정에서 시작하여 문화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간에 오고가는 뜨거운 정열적인 사랑이 있다. 연애는 젊은 시절에 누구나 한두 번씩 걸리는 인생의 열병이다.

애인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환상적인 사랑, 사람을 광기로 몰아 넣은 사랑, 연애 감정은 그렇게 강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연애는 성욕이 아니지만 성욕에 뿌리를 박고 있다. 성적 본능의 시적 표현이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살도 불사하는 일을 종종 보았다. 그만큼 사랑의 힘은 강하다. 피는 호르몬보다 강하다.

부모 자식간의 사랑은 피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천륜적인 사랑이다.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적인 사랑이다. 남녀노소의 사랑은 냉각해지고 만다. 그러나 부모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병신 자식에게 더욱 측은한 애정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이 많으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 사랑과 관심은 상호 비례한다. 사랑은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동시에 될수록 상대방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인간은 남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과 희열과 용기를 갖게 된다. 칭찬처럼 또 중요한 것은 없다. 현대인은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을 칭찬하려면 마음이 넓고 활달해야 한다고 본다. 마음이 좁고 웅졸한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칭찬하는 것을 배워 익히며 생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아울러 대화를 잘 하려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의 입장, 남의 처지가 되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며 내 입장, 내 주장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자. 이것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열심히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사랑의 마지막 속성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다는 것이 생활 속에 주고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을 주고 받고, 인사를 주고 받고, 미소를 주고 받고, 도움을 주고 받고, 물건을 주고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과거를 돌이켜 잘못된 생활을 통회하고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새로운 무장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행동을 옮기자. 나는 네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련다. 그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련다. 우리 모두 주고 받는 습관을 배양하며 모든 곳에 함께 함을 확산하자.

2002. 12.

제3장 향토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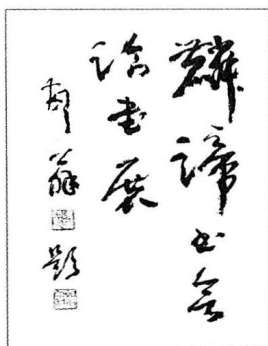
〈향토문예 1〉 제6회 인제 서예임서전

〈향토문예 2〉 제14회 인제 미술인회원전

〈향토문예 3〉 수필, 시

〈향토문예 4〉 환경문예작품 공모입상작

第六回



출품자 명단(가나다순)

강순복, 김두성, 김명옥, 김선희, 김영순, 김진옥, 문부자, 박복순, 박유수
 박희순, 송길숙, 송영숙, 신은희, 심용자, 양은주, 예병락, 오경희, 유금실
 육영숙, 윤숙현, 이가영, 이길자, 이봉자, 이승선, 이은복, 이재라, 이춘녀
 장상구, 전영숙, 전영옥, 전영자, 조남래, 최복희, 최순자, 최은희, 최종규
 한순자, 한주림, 허경순, 허월구, 홍현주, 김 향, 서성호 총 43명

격려사



방 효 정
인제문화원장

6월 강산에 실록이 푸르고 설악의 경치 아름다운 형상으로 더욱 펼쳐지니 나는 새는 울창한 숲속을 찾아들고 길을 가던 관광 나그네는 인제골에 멈추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문제가 급속하게 성장해 가는 경제기반 속으로 우리의 내면적인 진리와 악행이 혼돈되고 있는 때에 서예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여가를 선용하여 그 동안 틈틈히 익혀온 솜씨로 제6회 인제서회 임서전의 장이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서예는 인사상(仁思想)을 중점으로 강조되고 그 속에 심신을 단련하여 도덕과 윤리의 교양을 배양하는 교육적 가치로 승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우리 고장을 예향의 동산으로 꾸며가며 취미와 정서로 정해진 시간 속에 문화원 서예실을 넘나들며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회원님이야말로 장인정신이 앞서가는 선구자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예와 도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 사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장르의 교육이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세예를 좋아하는 회원님들의 전시회가 있기까지 늘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고운 김향 회장님과 서성호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회원님들의 자랑스러운 임서전을 축하드립니다.

초대의 글



古韻 金 香
인제 서예 회장

의연하고 깊은 내설악처럼 文香 더욱 깊어지기를……

내린천 가는 길가에 흐트러진 산나리며 홍자색 패랭이꽃이, 하얀 개망초가, 이름 모를 자잘한 들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름의 길목입니다. 올해로 여섯 돌을 맞이하는 麟蹄 書藝展, 가정과 직장의 바쁜 일상에서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공부한 모습들을 선보이는 조출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인제 군민, 그리고 모든 회원들과 함께 자축합니다.

21세기 物質萬能과 本能的 感覺에 휩쓸려 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삶의 指標이자, 文明의 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人間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우면서 굳세고 꽃꽂하면서 여유 있는 삶의 기품이라고 봅니다.

書藝는 부드러움의 藝術입니다. 墨과 線, 그리고 餘白의 조화는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이요, 남을 부정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劃과 點이 相存하고 다투지 않은 劃의 변화가 곧 書藝의 道입니다.

아직은 손끝으로 형상을 표현하기에 급급한 수준이지만 수많은 착오를 거치다 보면 是是非非의 지혜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조출한 자리이오나 많은 諸賢들께서 왕림하시여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展示에 도움을 주신 아름다운 분들에게 감사들이며 모든 회원님들의 의연하고 깊은 내설악처럼 文香 더욱 깊어지고 빛나기를 바랍니다.

王侍讀與沛國劉臻辯論經義臻屈焉齊
書黃門傳云集序君自作後加踰岷將軍
太宗爲秦王精選僚屬拜記室叅軍儀同
要御正中大夫殷英童女英童集呼顏大郎
是也更唱和者二十餘

壬午蚤月 班尹 金斗成 題

김 두 성

寓南苞八西羈戎北震五狄東勤九夷荒
遠既殞各貢所有張是輔漢世載其德爰
既且於君蓋其纁纁戎鴻緒牧守相係
不殞高問孝弟於家中嘗於朝治京氏參
聽擢略於從畋少爲郡吏

壬午春 幽堂 姜順福 題

강 순 복

人戎兵昔新羅錦未有身來朝貢廣邦土
境好太王僕勾朝貢十四年甲辰而倭不
軌侵八帶方界石城連船躬從平穰相遇
王惇要截盪剋倭寇潰敗斬斂無數十七
年丁未教遣步騎五萬王

壬午春望香金善鼎



김 선 희

只之相於是微之廣被採含類於三遠遺
訓選宣導羣生於十地然而真教難仰莫能
一其旨歸曲學易遵耶心於焉紛然所以雲宵
三論或習俗而是非大小之乘乍沿時而墮替
有玄奘法師者法門之

壬午立夏永彰金明玉



김 명 옥

師合輶斬斂蕩盡取稚鎧鉀一萬餘領軍
 資器械不可稱數盡破沙溝城麥城廿年
 庠戊東夫餘舊邑郡牟王屬民中板不貢
 王躬率住計軍到餘城而餘城國駢王恩
 普霽於是旋遯又其慕化

壬午春 楊額金英順

김영순

歸便城百殘王困逼獻出
 單王威赫怒渡阿利水宜剌迫城殘兵
 城羅城仇天城逼其國城賊不厭氣散出
 鄆城拔城古牟麥城閏奴城婁奴城三穰
 麥城析支利城巖門至城林城麥利城斂

壬午花月 祥軒金珍玉

김진옥

永後世焉其詞曰永樂五年歲在一未王
 以碑麗不歸人躬率住討過富山負山至
 鹽水上破其三部洛六七百營牛馬羣不
 羊可稱數於曼旋駕因固弩平直東來城
 力城北豐五徭徭趨觀土

壬午年春秀溪朴福順

박복순

股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
 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
 如是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
 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
 意識界無至明至無至明盡乃至至老死無老死盡無苦集滅道無
 智亦無得以至所得故菩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礙無
 礙故有無怖遠離倒夢想究竟空深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大明呪是無
 上呪是無等等呪能除一切苦真實不虛故說般若波羅蜜多呪即
 說呪曰揭諦揭諦股羅揭諦股羅僧揭諦菩提沙婆訶

賴桂文書

문부자

書省貞觀三年月兼行雍州叅軍事六年
七月授著作佐郎七年六月授詹事主簿
轉太子內直監加崇賢館學宮廢出補將
王文學弘文館學士永徽元年月三制曰
具官君學藝優敏宜加擢

壬午春德明朴熙順

四

박희순

祖諱協梁湘東王記室叅軍苑有傳祖諱
之推北齊給事黃門侍郎隋東宮學士齊
書有傳始自南入北今為京兆長安人父
思魯博學善屬文尤工詁訓仕隋司經局
校書東宮學士長寧王侍

壬午仲春柏勁朴裕壽

四

박유수

燒落出徵隱
平李儋拜練
市恤休除職
斯高四載位
照路歸城常
獨無賀長在
金子拾八股
賤遺英月肱
孔犁民出數
種宿煩不為
堅於閑從事
黃鄉四戲
巾隨門無
初就鵬細
起雲正間

壬午春月友田宋吉淑

송길숙

珪用披自君
於薦覽有誦
留菴詩周遷
文在雕周字
景帷煥宣公
出幕知其王
閒內祖中陳
有決高有留
張勝高有己
釋負龍興仲
吾午興吹人
千里有孝也
春出張友君
祐外良為出
亭永善行先
宋永善行先

壬午春祐亭宋永淑

송영숙

得莫新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
 叱來朝貢論事九年已死百殘違誓布
 倭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太
 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叱奴宕為民歸
 王請命太王恩後稱其忠

名牛立其忠壯沈周子

심용자

其無形也故知像顯可激雖愚不惑形潛莫覩
 在智猶迷況乎佛道崇虛乘幽於寂弘濟萬十
 品典御方舉威靈而無上抑神力而無下大之則
 示於宇宙細之則攝於毫釐無滅無生應千劫
 而不古若隱若顯運百福而長今妙道凝玄運
 之莫知其際法流湛寂

壬午春月始潭申銀姬

신은희

예 병 략

惠帝永使持節安西將軍護羌校尉涼州
刺史西平公七世祖素軌之第三子晉明
帝大寧中臨羌都尉平西將軍西海晉昌
金城武威郡太守遂家武威高涼州武宣
王大沮涼時建威將軍武

壬午季春心隱劉金實

유금실

貧致養不辭採運之勲年卅丁母艱勺飲
不入偷魂七朝罄力盡思備之生死脫時
當宣尼無愧深歎每過人孤風獨令譽日
新馳天紫以延中出身除奉朝請優遊文
省芻儕慕其雅尚朝廷以

壬午春拱念吳敬熙

오경희

司肉左宮時鳴古樂
象即農于及大田執
鳳雛鳳止同種南車
帛禾及異久

曉苑 李嘉英

이가영

惟昔始祖郢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
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
聖命駕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
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郢
牟王為我連葭浮龜應聲

壬午壬辰九鶴陸英洲

육영숙

거지말을지라도지리처럼말게해줄무한영
 가나리만거지말쟁이한사람이리우게영
 이란거지말하하면알아진다

한들



한들

청산은나를보그말없이살라하고창공
 은나를보그말없이살라하네영원도버
 어놓나리왕궁도버어놓나리왕궁
 령살나가라하네

한들



한들

운 숙 현

男女生一千人細布千匹歸王自誓從今
以後死為奴客太王恩赦迷之街錄其後
順之誠於昱得五十八城村七百特殘王
弟并大臣十人旋帥遯都八年戊戌教遣
偏帥觀阜慎土谷因便抄

壬午季春中景李鳳子



이 봉 자

司馬文公

車馬士上用保邦家

深元 李吉子



이 길 자

偽涼舉秀才本州治中西海二郡太守還
 朝尚祠部郎羽林監祖興宗偽涼都營護
 軍建節將軍饒河黃河二郡太守父生歸
 青衿志白首方堅君體稟河靈神資岳秀
 桂蘭儀點弱露以懷芳松

壬午花月雨汀李銀福

이 은 복

壬申日午屬不顯文武皇天不降
 己酉配我身曹庫軍大命從爾不
 因才上不罕于文武缺下壽天昌
 集己命夾壽光正岑薛己降壽星
 大命歸皇天仁天歸我身曹不
 神光王配命有天下

壬午花月思泉李昇宣

이 승 선

唐故祕書省著作郎薊州都督府長上護
軍顏君神道碑曾孫魯郡開國公真卿撰
并書君諱勤禮字敬琅邪臨沂人高祖諱
遠齊御史中丞梁武帝受禪不食數日一
慟而絕事見梁齊周書曾

辛丑春磨曾李在夏

이 재 하

捉之莫測其源故知泰之凡愚區之庸鄙收其
自趣能無疑或者哉然則大教之興其基手西土
騰漢庭而皎夢照東域而流慈昔者方行方跡
之時之求馳而成化當常規常之世民仰德而知
遵及乎海影歸真遷儀越世金容掩色不鏡
三千之光麗衆開面空滿壬午季春是中李貴女

이 춘 너

特遣使遽告曰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
住救新羅伐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
官兵方至倭賊退背急追至任能加羅伐
拔城城即歸歆安羅人戍兵拔新羅城倭
滿倭潰城九盡臣來安羅

壬午年 如砥 金英洲

전영숙

太宗嘗圖畫宗賢諸學士命監爲讚以君
與監兄弟不宜相褒述乃命中書舍人蕭
鈞依仁服義懷文守一履道自居下惟終
日德彰素里行成蘭室鶴籥馳譽龍樓委
當代以後夫人兄中書

壬午春 初蘭 張相球

張相球

장상구

於篆籀尤詁訓祕閣司經史籍多率一所
 刊定義寧元從太宗平京城授朝散正議
 夫勲解書省校郎武德中授右領左府鎧
 曹參軍九月輕車都尉兼直祕書省貞觀
 三年月行雍州參軍事六
 壬午春松淵全永子

전 영 자

忠弼出謨帝遊上林問禽狩所有苑令不
 更對問嗇夫嗇夫事於是進嗇夫令退令
 嗇夫釋出不可苑令有公卿出才嗇夫喋
 喋小吏非社稷出重上從言孝武時有張
 騫通廣風俗開史畿寓南
 壬午花月賢所田英

전 영 옥

好太王二九登祚号為永樂太王恩澤洽
 弓皇天威武梗被四海掃除庶寧其業國
 富民殷五繫豐殷昊天不弔廿有九宴駕
 棄國以甲寅年九月廿九日一酉遷就山
 陵於是立碑銘記勲績以

壬午春 加恩崔福姬

최복희

首溫大雅傳云初君在隋大雅俱仕東宮
 弟愍楚與彥博同直內史省愍楚弟遊秦
 與彥將俱典祕閣二家兄弟各為一時物
 之選少時學業頗氏為其後盛事具唐史
 君幼而朗晤識量弘遠工

壬午春月厚端趙南海

□

조남해

大唐三藏聖教序太宗文皇帝製知福寺沙門
懷仁集晉右將軍王羲之書蓋聞二儀有像顯
覆載以含生四時無形潛寒暑以化物是窺天
鑑地而思皆識其端明陰洞陽以資哲軍宗其
數然而天地苞乎陰陽而易識者其有像也陰
陽受乎天地而難窮者

壬午春書 昭月 崔銀輝

최 은 희

孝友光緡姬中興是賴晉大夫張先春秋
嘉其聲績漢初趙景王張耳浮沉秦漢之
間終跨土之世君其後也魏明帝初中西
中郎持使持節平西將軍涼州刺史瓌之
十世孫八世祖軌晉惠帝

壬午春月露州 崔順子

최 순 자

君諱彦字景昭河南洛陽都鄉
 光穆里人也恭宗景穆皇帝之
 曾孫侍中樂陵之孫鎮北將軍
 樂陵密王之世子襲封樂陵王
 王承光曰隙資輝月字仁峻五
 岳智汪四海岐孝敬分曾叅之
 霄忠節爭宣子之響文諱夏樂

壬午春節臨墓誌銘東愚崔鍾奎

최종규

卽爲連菽淨塵然後滯流谷念本西城山
 上而建都焉不樂世位因遣黃龍王王於
 念本東亞黃龍貢昇天頤命世子儒留王
 以道輿治大朱留王紹承基業遂至十七
 孫國上廣用土境平安好

壬午春看岩韓柱林


박 주 립

諱猛龍字神因南陽白水人也其氏挨介
 興源流所出故已備詳世錄不復具載盛
 鬱於帝皇之始德星曜像於朱鳥之間淵
 玄万壑之中魄巖千峯之上卉葉清高煥
 乎篇牘矣周宣時仲詩人

壬午春月平林韓順子


한 순 자

境田獫而遠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
 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
 為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利殘
 國軍南攻取壹八城曰模靈城各模靈城
 幹弓利城閣弥城牟靈城

壬午春毅旻許慶順



허 월 구

擢乃拜王屬學士如故遷曹王友無何拜
 祕書省著作郎君與兄祕書監師古禮部
 侍郎相時齊名監同時為宗賢弘文館學
 士禮部為天冊府學士弟太子通事舍人
 育德又奉令於司經局校

壬午春毅旻許慶順



허 경 순

萬戶生烟人海沸

集聯好太王碑字

三更看月天河橫

五年嘉吉韻金香



朗若新蘅之當春初荷之出水入孝出弟
邦閭有名雖黃金未應無軫郭氏父交蒙
人表年廿七遭父憂食過禮泣面情深假
使曾柴更世寧異今德既傾乾覆唯恃坤
慈冬溫夏清曉夕永奉家

壬午春 譚邱洪賢珠

홍 현 주

김 향

見山必其峻見水必其瀑危在寒溪瀑起自
萬文壁_二高不著冰蒼_二竟一石輕風拂中
流霧散飄南_二北餘沫久排徊_二颯_二歟楓栢
栢結陰深不可窺中谷西峰日_二隱東臺坐
不得將已向上源夜為招提宿

錄李昌翁大勝錄
壬午春石堂書

서성호

초대의 글



최 용 건
(인제 미술인 회장)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또다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살찌우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맞을 준비들은 되셨는지요.

내설악이 인제의 아버지라면 내린천은 인제의 어머니입니다. 그 맑고도 자애로운 자연의 정기를 받아 저희 인제 미술인 회원들은 올 한해도 저마다 혼신의 힘을 불살랐습니다.

더불어 천혜의 청정환경을 지닌 인제골이 모든 예술인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잠시 일손을 놓으시고, 와서 보아 주시고 아울러 많은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인제 미술인들의 활동을 위하여 평소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장준 인제 군수님과 관계기관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많은 인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2년 10월

축하의 글



김 장 준
(인제군수)

들녘엔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내설악과 내린천엔 단풍빛과 물빛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이는 가을입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을 맞아 제14회 인제 미술인회원전이 열리게 된 것을 모든 군민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산업경제가 사회의 뿌리요, 스포츠가 그의 튼튼한 줄기라 한다면, 예술이란 뿌리와 줄기로부터 최종적으로 개화한 한 떨기 아름다운 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것처럼 우리는 삶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를 염두에 두며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맘을 흘려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개화를 하지 못한 꽃나무가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듯, 예술의 활성화가 없이는 우리들의 어떠한 삶도 한낱 도로에 지나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제군은 모험스포츠의 고장이자,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 명실공히 예술의 고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동안 지역 여건상 다소 미흡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위하여 매년 ‘내린천 사람들전’을 비롯한 ‘인제미술인회원전’을 개최하여 주시는 인제 미술인회원들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특히 인제 미술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여러모로 힘쓰고 계시는 최용건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온 군민들의 성원 속에 행사가 알차게 치러지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인제 미술인회의 앞날에 크나 큰 발전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0월

축하의 글



박삼래
(인제군의회 의장)

존경하는 인제 미술인 여러분! 그리고 평소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호인 여러분! 초가을의 문턱에서 평소 즐겨 오시던 숨씨로 군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14번째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도회지와 멀리 있어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없었던 군민들에게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소 생업에 바빠 쫓기다보면 일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돌아볼 여유가 없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반복적인 일로 메마른 정서를 축축이 적셔 줄 이와 같은 행사는 우리 군민들에게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자연을 돌아볼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의 극치는 바로 지극히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미술인 회원님들 중에는 우리 고장 출신도 있겠으나, 산과 계곡 그리고 조용함과 쾌적함이 좋아 정착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연이 살아 숨쉬는 우리 고장이 미술을 포함한 각종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더할나위 없는 터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축하의 글



방 효 정
(인제문화원장)

미술 애호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옛부터 소금강이라 불리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의 자태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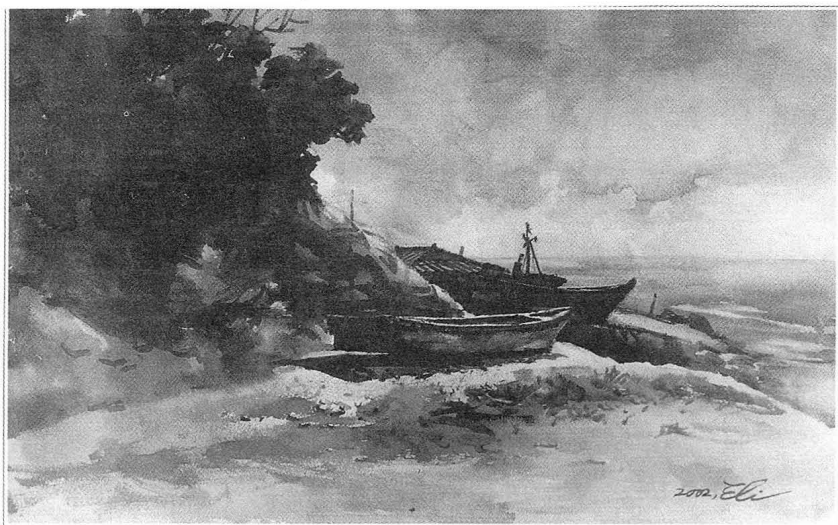
때를 같이 하여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내설악의 끝자락 인제 마을에 제14회 인제 미술인회원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술전시회를 마련해 주신 최용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술은 남다른 열정과 예술혼으로 우리 주변의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시각의 장으로 이끌어 주어 축제 분위기를 승화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정신세계로 인격을 고취시켜 준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회원 여러분들의 창작의욕을 더한층 고취시켜 보다 폭넓은 작품활동이 이 고장에서 연이어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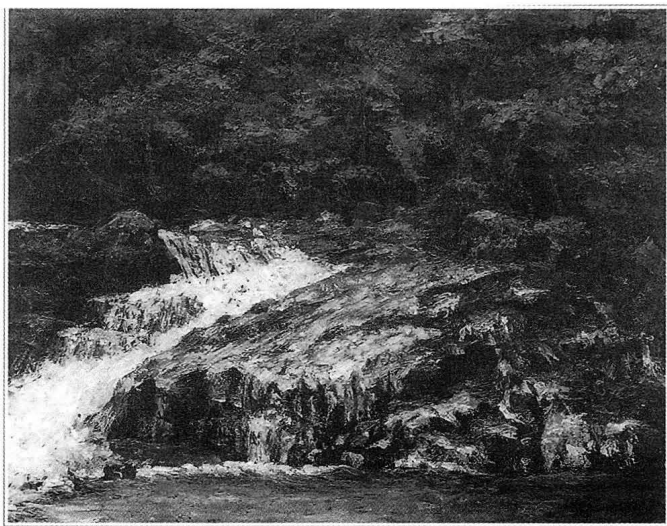
끝으로 다시 한번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2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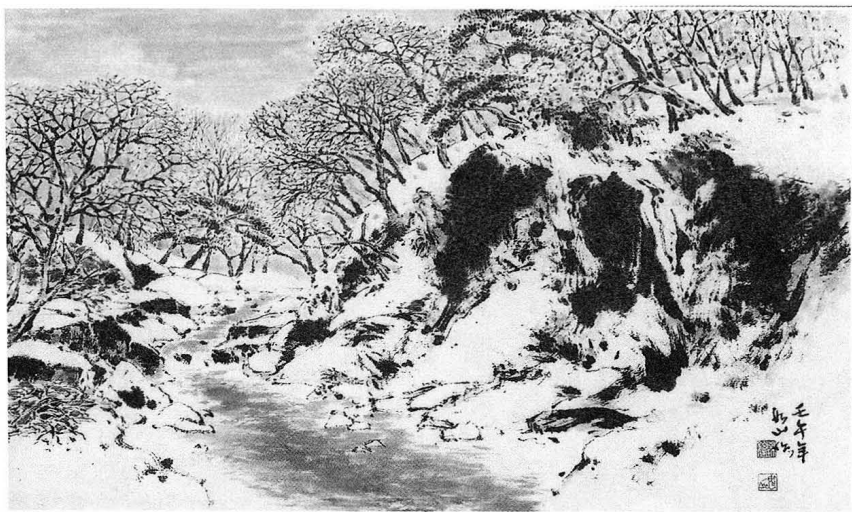
엘리의 바다 50/70cm, 수채화

김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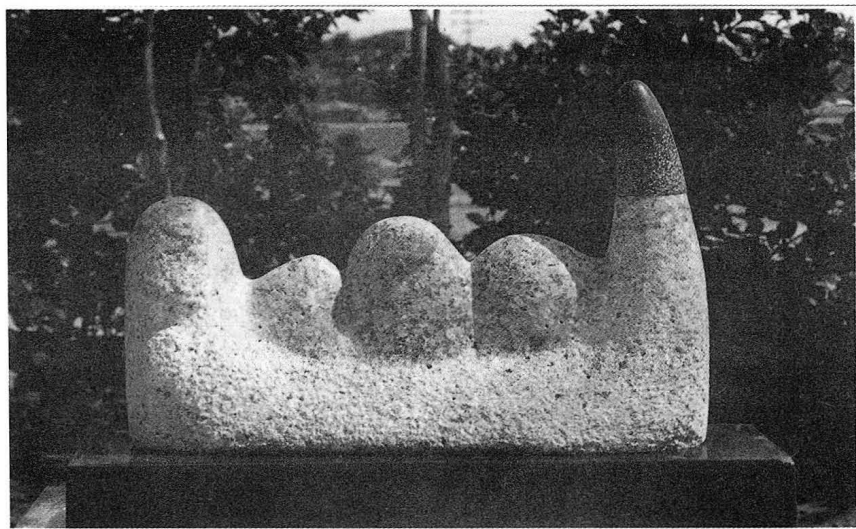
적가리굴-힘 III 50/70cm, 유화

김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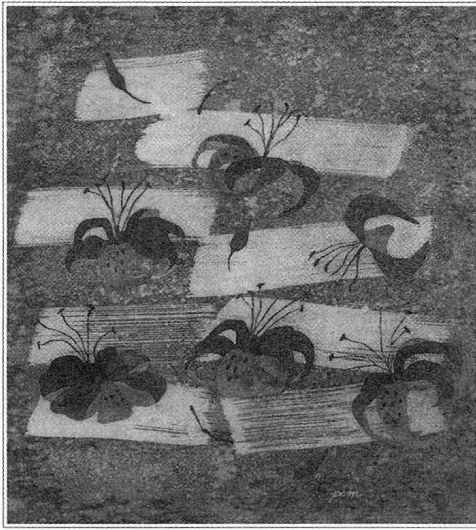
여산리풍경 45/70cm, 수묵화

남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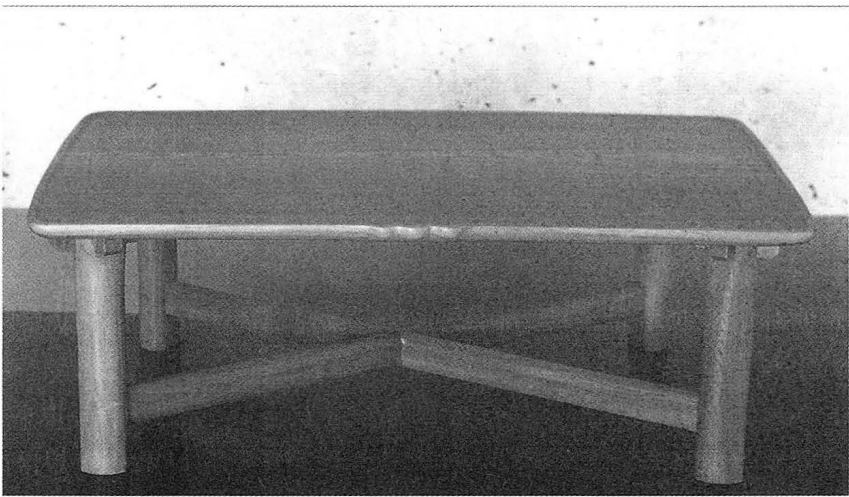
한계령-20 45/15/35cm, 조각

박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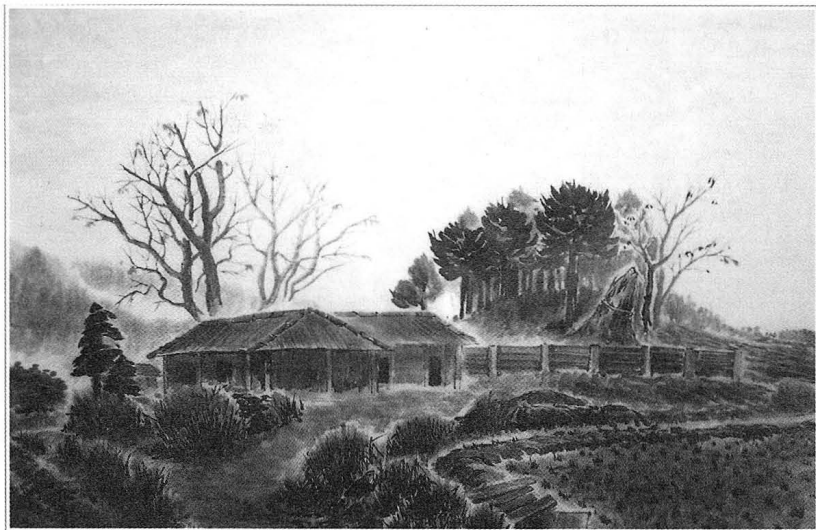
청나리 45/50cm, 섬유공예

박청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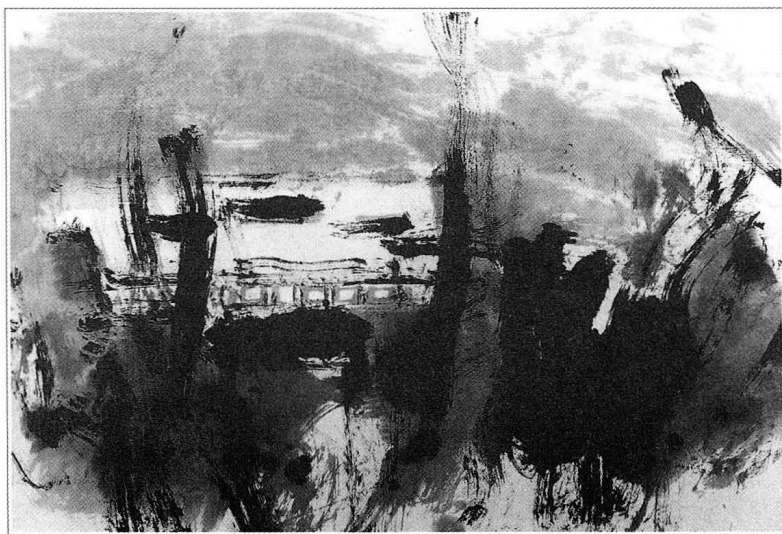
주인의 자리 52.5/78.5/31cm, 목공예

이정복



농가풍경 45/60cm, 수묵화

윤재복



한계령 휴게소 39/49cm, 2002수묵화

최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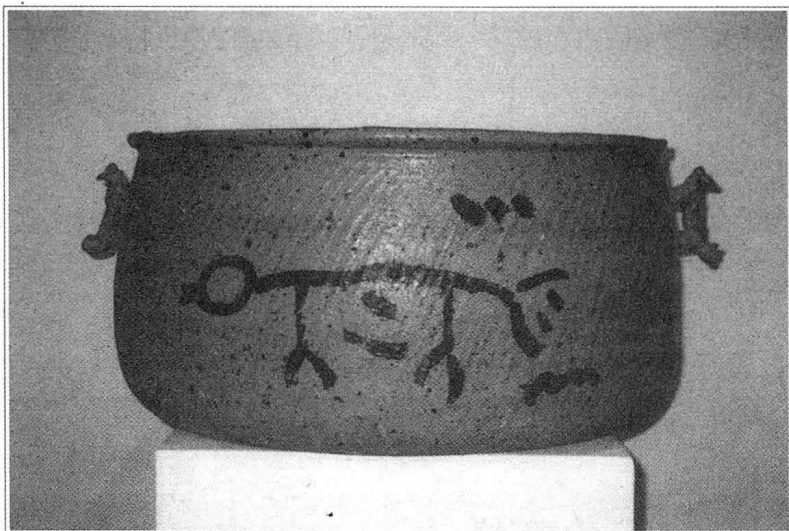
동심 28/19cm, 관화

김정매



이침 45.5/38cm, 유화

안동은



작품

안순영



신수화 36/70cm, 수묵화

김화자

사랑의 감정

한 용 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할 때면 시인 같은 마음과 감정을 갖는다고 한다. 사랑의 참된 진실은 인격을 높이고, 그 심정을 견실케 하며, 또한 생활 그 자체를 순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것은 향락의 달콤한 꿈도 아니며, 정욕의 광기는 더욱 아니다. 오직 선이고 평화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사랑이란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슬프도록 가슴 아리고, 또 마음 벽찬 춘정(春情)을 느끼며 살아가는 애뜻한 사랑도 있다.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갖는 연인들은 자기 외에는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만 그 사랑, 그것으로 충분할뿐인 것이다. 이 같은 사랑의 감정이 깊으면 깊은데로, 높으면 높을수록 하늘과 땅 사이의 이 넓은 공간도 사랑과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들만의 사랑인 것이 된다.

또 사랑이란 애원해서도 안되고, 요구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사랑은 오로지 자기 자신 속에서 내적 확신에 이르게 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성숙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때에 사랑이란 것은 그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끄는 것이 되는것을 알게 된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생각하고 노력 하기에 따라서는 봄눈처럼 녹을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광채를 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가 그 양자가 되는,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다 흐뭇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은 어

면 의미로 보나 순수하고 이해타산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고귀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는 끝없는 관용이요,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는 참된 희열을 느끼는 보람인 것이다. 그리고 의무적인 선의(善意)이면서도 완전한 자기 자신의 망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랑은 항상 그 안에 고귀함을 지니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곧 남의 좋은 점을 인정하며, 그를 소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사랑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좋지 못한 습성을 완화시켜 주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 하므로써 불행과 고통을 덜어 낼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랑 감정의 생활은 이웃에게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되고, 고통스런 환경을 무난히 극복하게 하는 것이 된다. 어디서나 늘 상대의 내적 상처와 피해를 생각하면서 그의 존엄성을 인정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여기에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근본적인 특징이 숨어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으며 사심(私心)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바라는 바 없는 사랑, 이것은 단순한 것이다. 사람은 삶과 그 가치를 높이고, 그 질을 풍부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높은 곳과 깊은 곳을 향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고귀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감정, 마음의 감정이란 것은 신체의 반사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의 감정은 자기 얼굴의 주름살을 늘리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남을 시기나 모함하기를 좋아하는 감정은 자기의 골상을 어지럽혀서 쉽게 내천자(川) 상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고와 질 수 있는 얼굴 모양을 아주 추하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사랑의 감정은 신체 내의 모든 신경통을 조화시켜서 따사로운 감정의 빛이 흐르게 한다. 그리고 맥박의 박동을 고르게 하므로 어느 평상시보다 갑절이나 힘차게 맥박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위장의 기능을 다채롭게 도와서 소화기능까지 잘 촉진시키는 것이 된다.

또한 사랑의 감정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한다. 가령 헤엄을 전혀 칠줄 모르는 아버지가 그의 자식이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 즉시 물에 뛰어들게 된다. 이것은 아주 순수하고 또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보다 나 이외의 사람에 대한 행복을 위해서 발휘되는 것이다.

인생들의 많은 모순들은 오직 사랑의 감정으로서만 해결되고, 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사랑의 감정이 강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인 나(我)에 연연하여 안감힘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자기의 팔이 안으로만 굽듯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으로만 하고자 한다. 돈이든, 물건이든, 권력이든, 지위가든, 명예이든 간에 무조건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것을 서로 다투어 가지고자 하니 자연히 다툼과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투쟁의 불길은 더욱 나 나의 것, 나의 승리만을 부채질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은 거의 대개가 그러하듯이 나(我)라는 것을 닦는 마음에는 집착 하지를 않는다. 이런 마음의 감정은 빈 마음이요, 빈 감정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는 상대방에 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빼기기 싫어하는 사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는 마음에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기에, 행여 얻지 못하면 어찌나(?), 또 잃으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이 뒤 따르지만, 베푸는 마음에는 상대

가 받지 않으면 어찌나(?) 하는 조바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로, 사랑한다는 문제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기 보다는 주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사랑스러워 지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는 한때 무척이나 사랑을 찾아 헤메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황홀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다. 그 황홀함은 너무나도 찬란해서 몇 년 몇 시간, 아니 생활 전부를 그 즐거움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의 감정으로 사랑의 무지개를 찾아 헤맸던 것이다. 아직 남은 생애의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희생하며, 불태워서라도 좋겠다는 일념으로 사랑을 찾아 헤메이고 싶은 감정만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감정은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삶을 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항상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지닌 마음, 이것은 사람의 삶을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하는 힘을 지닌다고 본다.

옛부터 인간의 순수한 사랑을 일러 오기를 단장춘심(斷腸春心) 이라고 하여 남녀간의 슬프고도 애뜻한 사랑을 예찬했었다. 그리고 애급옥오(愛及屋烏)이라 하여, 진정으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지붕 위에 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고전을 통해서 일러온 사랑의 감정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삼홍미(三紅美)

한 용 운

삼홍미라고 하는 것은 미인(美人)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의 요건 중 맨 나중이 되는 것의 하나이다.

이는 옛날 당(唐)나라 시대부터 전해 오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신 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인을 가름하는 첫째 기준으로, 삼백미(三白美), 둘째로 삼흑미(三黑美), 셋째로 삼홍미(三紅美)를 들었다. 다시 말해서 미인은 세 가지 흰 것, 세 가지 검은 것, 세 가지 붉은 것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동양적인 미인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미인 선발도 이런 기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삼백미라고 하는 것은 살결, 치아, 손, 등 이 세 가지가 하얀 것이 좋은 것이고, 삼흑미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 눈썹, 머리카락이 검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홍미라고 하여 입술, 볼, 손톱이 붉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신문명이 들어오고부터는 옛날의 세 가지 미인의 조건을 앞세우고 미인을 가름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머리 염색약이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다. 또한 입술을 칠하는 립스틱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색상이 다양해진 것이다. 거기다가 손톱도 요즈음은 빨갛게 칠하지 않는 여인이 많아져 버렸다. 옛적에 선인(先人)들이 일러오기를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어버이로부터 물려 받은 자기의 몸 그대로 잘 보존해야 한다던 이야기가 새삼스러울 때가 있다.

요즈음은 그 무슨 유행가의 한 소절처럼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잔소리야” 하는 식으로 “막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에 깊이 젖어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님들은 참으로 이해 할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뻘 되는 10대들에게서 그 유행을(?)을 마구 뜨겁게 달구고 또 들볶고 있는 것이다.

단 하루도 끊이지 아니하고 신문 지상이거나 TV 화면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 가운데 그 하나가 10대 소녀들이 소위 “내 몸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인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채팅에 “원조교제 원함”을 올려 놓고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그 얼마 안되는 돈 몇 푼에 채여물지도 않은 자기 자신의 귀중한 몸(?)을 마구 못 사내들에게 헐 값으로 팔아 버린다는 뉴스는 이제는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인 것이다.

이십여년 전에 우리집 건너편 시장내에 “하얀집”이란 술집을 차려 놓고 영업을 하는 홍춘미(洪春美)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나이는 삼십오육세 정도 됨직 했었다. 슬하에 네살짜리 아들 하나을 두고 있는 청상과부였다. 그 여인은 할 수 없이 비록 술장사를 하고는 있지만 오직 아들 하나만을 잘 키우는 것이 큰 보람이요, 소망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었다. 또 이 여인은 평소애 몸 행실이 착하고 지조가 굳어서 못 사내들의 짓궂은 유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의 생김이거나 몸매가 남들 보기에 아주 좋게만 보이는 그런 미인이었다. 특히 하얀 살결에 붉고 도톰한 입술이 덧 보였다. 좀 더 쉽고 적절한 말로 사실 그대로 표현하자면, 허리는 마치 개미허리 같이 잘록하고, 엉덩이는 둥글고 평퍼짐했다. 그리고 젖가슴도 아주 풍만했다. 또한 이마가 넓고 반듯하였으며, 하얀 치아 역시 가지런한게 보면 볼수록 그저 아름다웠다. 또 눈웃음을 지을 때마다 작은 볼 보조개가 예쁘게 들어가는 매력이 있어서 이 여인을 보는 못 사내들이 오금을 제대로 퍼지를 못하는것 같았다.

나는 이웃에 살면서도 그 하얀집을 별로 들어가 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업무상 할 수 없이 술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서 그 하얀집에서 손님 대접을 한적이 있었다. 다만 평상시에는 그녀와 만나거나 마주치게 되며는 의례히 서로 목례만 하는 정도였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술집은 별로 손님들이 없었지만, 이 하얀집에는 언제나 술 손님들이 몰려 들었다. 것처럼 평소에도 술장사가 잘 되어서인지 아가씨도 여러 명이 있었다. 술 손님 거의 전부가 아가씨가 많거나 특별한 메뉴가 있어서 매일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여주인의 미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이 하얀집 여주인은 전에는 수원에서 그저 평범한 가정 주부로 행복하게 살았었다고 했었다. 그녀의 남편은 모 기관의 중견 간부로 근무하는 관계로 인해서 안정되어 있는 생활가운데 첫 아들을 낳았다. 그 무렵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었던 그의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사랑하는 가장을 잃어버린 청상과부가 되어 앞으로 살길이 그저 막막하기만 했었다. 평소에 남편과 같은 직장의 동료로 매우 절친한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날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남편의 사고사로 받은 보상금마저 그에게 사기를 당해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처음에는 나 하나만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자살까지도 결심했었다. 그러나 차마 어린아들 때문에 죽지를 못했다. 그리고 곧바로 수원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었다.

이 여인은 비록 술집을 하고는 있었지만, 평소에도 언제나 몸 가짐을 바르게 하였다.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아가씨들도 그런 쪽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간혹 가다가 행실이 아주 좋지 못한 아가씨들은 이내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리고, 또 다른 아가씨들을 선별해서 데려오고 했었다. 못 사내들에게 술만 파는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인네의 해픈 웃음도 팔아야 하고, 또한 그 다른 것(?)도 팔고 살 수가 있는 곳이 술집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이 술집에서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가 자연히 많은 시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다. 더구나 술집

여주인이 미인 중에 둘도 없는 미인이고 보니, 그런 다툼이 더 많이 벌어졌었다.

삼복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늦은 밤에 나는 더위를 시키려고 문밖을 나섰다. 그리고는 건너 그 하얀집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리로 급히 갔었다.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다. 이내 구급차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는 가운데서 곧이어 경찰이 달려와서 홀 안에 있는 어떤 사내를 붙잡아 수갑을 채워 끌고 갔었다. 그리고 구급차에 급히 실려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하얀집 여주인이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은 과거 수원에서 한때 그녀의 남편 직장의 동료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었다. 이 치한이 예전에 그녀를 성폭행하고 보상비까지 가로챘던 인물이었다.

그로부터 10일이 무심하게 지나갈 무렵에, 그 여인은 결국 죽고 말았다. 예리한 흉기로 가슴 밑에 두 곳이나 찔리는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었다.

시장 내의 몇 안되는 이웃들의 부역으로 그 여인을 가넛고개 마루 공동묘지 한켠에 묻었다. 그 날은 그녀의 죽음이 그렇게도 서글퍼서인지 하루 종일 굿은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진흙탕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겨우 작은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치고 말았다.

모든 사람들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쓸쓸하게 하산을 하였다.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 붉은 칙꽃 몇 송이를 가지런히 얹어놓고 머리를 숙이고 고이 명복을 빌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해마다 칙꽃이 그녀의 붉은 입술빛 같이 빨갛게 피는 계절이 되며는 지금도 문득 그 여인이 생각날 때가 있다. 본인의 본의는 결코 아니겠지만, 이 세상의 그 무슨 운명처럼 뇌여 보는 말 한 마디……

“그 누가 일찍이 미인박명(美人薄命)이라 했을까?”

N.G.O 그들은 누구인가



최인철
인천경찰서장

비정부 조직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하며 말 그대로 정부조직 계선상에 있지도 않고 성격도 순수 민간기구로 한국 N.G.O 총연합 중앙회에 가입한 단체로서 예를 들면, 반부패국민연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 추방실천시민회, 밝은 사회 클럽, 강원 미래연구소, 교통문화 운동본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등이 되겠으나 집회, 시위 대처와 관련한 강원경찰 제4분과위를 보면 아마추어 무선사, 가족 편지쓰기, 모범 운전자회 등으로 실로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눈에 흐르는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며 아주 멀게만 느껴져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여겨왔던 것이 불과 지난 5~6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와 친근하기까지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그들과의 관계는 생각할수록 은혜로운 만남이라고 본다.

아마도 1998년 4, 13 총선을 계기로 그 목소리가 커지다가 총선 시민연대의 적극적인 말과 행동에 영향을 보아왔으며 그와 더불어 다른 비정부 단체들도 정의의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이 진실에 가까운 사실들이라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공천과 관계없이 떨어질 사람이 떨어지고 당선될 사람이 당선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기존 정부조직 내부 사람들은 근시안적 편협된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생의 전환을 하지 못한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런 점에서 N.G.O. 그들은 내부의 시각이 아닌 세계의 눈, 즉 다른 각도에서 본 부분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만도 거짓 겸손도 찾을 수 없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뢰하리라.

인간이 이성적이지 못하면 대부분의 말이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良藥苦口, 忠言逆耳란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이 지역에서 N.G.O가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였던 것은 인제 내린 천, 영월 동강댐 설치를 위한 정부 계획이 이 지역 주민과 녹색 환경 연합 등 여러 단체들의 환경 생태계 파괴와 인류 멸망을 가져온다는 끈질긴 설득 끝에 주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 정부가 이를 수용, 백지화했다는 점은 꽤거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원주 캠프롱 기름 유출사건 전말을 밝혀낸 것도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단, 카톨릭 농민회 기타 N.G.O 등의 투쟁의 결실이며 정의의 승리라 하겠다.

그러고 보면 N.G.O의 역할은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진실이 가려 졌다가 늦게나마 제 모습을 나타내며 공직사회나 시민사회에 파고들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들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먼저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다.

N.G.O와 계속 말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국민의 참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길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치안, 환경, 위생, 청소년 선도 등 잘못 되어가는 행정을 가장 생생한 모습으로 보고 듣고 노트한 것을 이제는 해당기관에 들려

주어야 하고 보여 주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감마저 생겼는데 그것은 정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이고 들을 권리이기 때문이다.

시민 참여연대는 권력과 금력, 방대한 조직은 없지만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그들 편이며, 신세대 정치인,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머슴의 정신을 가진 정치인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함으로 정의의 함성이 모습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고요한 영혼, 평온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고마워한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저들은 저소득 하위계층에서 반정부, 반국가 성향을 가진 빠뜨려진 사고를 가진 자들이라고 사시(斜視)눈으로 보아 왔었으나 이제는 지역 치안도,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의 장래까지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과 행동의 올바른 길잡이로 등장하였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 갈 때 사회는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권위적 국가 권력구조, 더 큰 국가 이익에서 개인 이익을 신장시키는 시민사회로 한발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가 교통경찰과 여경만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평화적 진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무단히 도로를 점검하여 시민의 교통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썩은 계란을 컛볼에 빨간 여자경찰관 얼굴에 투척하고 있는가를 공정하게 사진 찍고 있는 사람 N.G.O 그들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감시자, 가해자와 피해자와 중간에 있는 심판자로서 그들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에 우리 모두 그들의 나갈 길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설레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고발자, 충언자, 권고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며 높이 평가받고 그 목소리 커져 갈 때 민주주의는 더 성숙될 것이다. 이제 그들은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 환경 생태계 보존, 비행청소년 선도, 도덕·

안전불감증 해소, 선진 교통문화 창출 그리고 준법정신의 함양까지도
목소리 높여 노력할 때 이 땅의 영원한 슬기가 우리 국민들의 몸 속으
로 스며오는 소리를 우리 모두는 조용히 듣게 될 것이다.

民 · 官 · 軍 화합의 필요성

최인철(인제경찰서장)

산자수명한 고장 인제읍 접적 지역으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곳이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평온함 그 자체일 뿐이다.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땅에서 흘러 들어오는 송내천은 서화 · 원통을 거쳐 인북천과 합류되며 금년 폭우에도 인민군 하전사 모자가 떠내려 오기도 했다.

대단위 군부대로 산악부대, 을지부대 그 예하 수없이 많은 부대가 인제 전체를 에워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영토를 철통같이 지켜주는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은 잠시라도 잊고 있는지 모르겠다.

군인들이 많이 참여해 경품 당첨 때 냉장고를 타는 사람도 군인,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군인, TV를 타는 사람도 군인이다보니 경품 추첨장은 웃음바다가 되고 사회를 맡은 사람도 신바람이 나서 좌중을 웃기는 모습은 아마도 이 고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함과 낭만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한다.

내가 처음 부임한 금년 1월 16일 취임식을 끝내고 육군 산악부대를 방문했을 때, 그때가 강설기라서 국도, 지방 도로가 공룡 얼어붙어 있었으며 기상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도 제설작업이 잘돼 도로가 양호한 편이었다.

그 때 산악부대장의 설명에서 군부대 월동장비가 98대 정도 투입되고 도로관리청, 행정기관은 겨우 28대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부임 10여일만에 경찰서장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 관할내에 있는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찰이 팔건고 나서서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번 태풍 ‘루사’를 포함한 2회에 걸친 수해로 도로유실, 토사유출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군의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 한계령, 진부령 등 도로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그 현장을 나는 지켜 봤다.

더욱이 인제군에는 ‘軍의 郡民化사업’을 펼쳐 우리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애로 감싸안아 여기서 면회하고 외출·외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민관군이 공존공영하면서 동질화되어 가자는 발성을 쌍수로 환영한다.

복지행정을 조장행정과 치안행정이 잘 조화가 이뤄지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한다는 등식을 머리에 두고 민·관·군의 화합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화합과 통일의 길

문 부 자

비득고개 아래로 새로 뚫린 외곽 도로가 강바람과 어울려 시원스럽다. 하늘 맑고 풀빛 서늘한 가을로 접어들며 코스모스 꽃길엔 달리는 관광차로 연일 붐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제4땅굴이 있어 안보 관광차 수학 여행은 학생들과 동해안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잠시 들러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휴전선 부근에 여러 개의 땅굴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땅파는 기술은 두더지 공법을 능가해 지하철도 우리보다 한 해 먼저인 73년 9월 천리마선 개통이 되었다고 하니 가히 놀랄만하다.

화강암으로 단단한 돌을 성능미비한 수작업으로 그 길고 습한 터널을 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애썼을까도 생각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 힘과 노력으로 좀더 건설적인 곳에 투자하였더라면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의 배를 조금은 더 불리지 않았을까.

음침하게 입 벌리고 선 땅굴 위용에 비해 그 들이 버리고 간 진열대 위에 놓인 성긴 실장갑, 곡괭이, 삼태기 등의 모양이 난삽하고 허술해 보여 이념체제의 어두운 맹점이 여실히 드러나 보인다.

어린 날 6·25사변을 격는 세대로 휴전선 넘어 북한을 지척에 두고 산 세월이었으나 반세기 넘어 긴 세월은 상상으로만 감지할 수 없는 다른 먼 세상으로 알고 무관심 속에 산 세월이었다.

그러나 어쩌다 군사 접경지역 가까에서 삶 비상시엔 민첩하게 대처하는 군사활동을 직감으로 느끼며 우리 나라는 역시 분단국이라는 실체를 절감하기로 한다. 몇년 전 동해안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에서 탈

주한 무장괴한들이 탈주로가 되어 삼엄한 경비가 구축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직도 반공이라는 풀지 못한 숙제가 난제로 남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우리 나라 민족통일 정책은 햇볕정책으로 투명해지며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북한도 개방무드로 국제 무대에 나서고 있다. 그들도 중국과 같이 저소득계층 서민들이라도 배는 굶치 않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세계사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다. 그 아픔이라도 북쪽 부모형제 가까이 살기 위해 이곳에 정착했던 몇 분 남지 않은 이산 일세대들이 눈을 감기 전까지 그들의 혈육이라고 마음 놓고 상봉할 수 있는 일들이 쉬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하늘 높고 바다 푸른 부산에선 지금 아시아 체육대회가 열려 '우리나라는 하나'라는 통일기를 높이 들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남과 북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멀게만 느껴지는 그들이 역시 한민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쿨하게 느낀다.

머지 않은 날 남과 북이 경의선 경원선으로 내륙 깊숙히 평화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면 끊어졌던 핏줄이 쉽게 이어지리라 기대해 본다.

특히 내가 사는 강원도는 분단되는 남북 강원도의 경제협력을 개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만남이 분분하고 보니 남북의 먹장 같았던 장벽은 서서히 견혀지고 보니 있는 분위기이다. 빠른 속도의 북한 대외관계 변화로 살아 있는 동안 아이들도 즐겨 부르는 통일의 노래는 역사속으로 묻혀 버려도 좋을 우리 모두의 소원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나 비관의 목소리도 있고 보면 땅굴은 관광으로만 보고 웃고 떠나는 수도 없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서해안 총격전으로 무참히 살아져 간 젊은 해병들의 덧없는 죽음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라는 마음이다.

2002년 10월

인제의 사람들

문 부 자

인제의 자연은 그대로가 아름다움이다.

아직은 인간의 손길로 덜 닳아진 중후한 백두대간의 품안이 이 지역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산림보유지이다. 전 면적의 8~90퍼센트가 자연 수풀림으로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청정수를 제공해 자연으로부터 받는 무상의 혜택은 과히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이 고장에서 살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경제, 문화, 교육이 중앙 도시로 편중되고 도시가 비대해지며 도시 기능은 수용 능력의 한계로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곳에 뿌리 내리고 메마른 도시 생활에 식상한 현대인들은 정서적으로 풍요로왔던 고향을 점차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그런 귀향 본능에 힘입어 내설악과 골골이 등지를 틀고 자리한 인제 사람들은 점차 늘고 있다.

시인 고상순 씨는 인제 사람들에게선 청솔 타는 내음이 나는 것 같고 백담사 겨울새의 빨갛게 언 발을 보고 가슴 아파할 줄도 아는 순박한 사람들이라 했다.

사방 보이는 곳마다 절경으로 자연 사계의 극치를 신의 섭리는 소홀함이 없어 그로부터 영감을 얻고 순화된 언어들로 자연을 노래하고 시상을 일구는 시인 묵개들이 도처에 뿌리 내리고 있어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년 전 인제골에 자리한 최용건 화백의 하늘발 화실이 있는 진동리 계곡엔 겨울로 접어들며 눈꽃이 하늘에서 내려오다 숨이 차 다시 나비되어 방태산으로 오르고 소리라고는 골깊은 나무들의 숨쉬는 소리

뿐 태고의 고요 적적한 방음지기 금방이라도 산신령이 하산하는 길목인 듯하다.

그곳엔 지명도 아름답다.

동해로부터 넘어오고 내륙의 소양호로부터 해후한 바람들이 노을빛에 몸을 푸는 갈대의 설움같은 ‘바람부리’ 키가 못자란 나무들이 군락을 이뤄 하늘 꿈을 꾸는 ‘단목령’ 아침나절이면 밭 갈이가 끝나는 골짜기 작은땅 ‘아침가리’ 그런 신령스러운 자연 속에 등 비비며 사는 최화백은 자연으로부터 감화된 묵화 또는 혼을 불사르는 강한 텃치로 자유로워지고 순수한 언어들로 수필집을 내어 많은 독자들로부터 관심 있는 유대관계를 이루고 목하 행복중이시다.

서필 좌수서로 대가이신 여초 선생이 칩거하는 한계리 구룡동천은 하늘가는 꿈길 같다. 깊은 골짜기 등성이에 온통 잔디가 깔리고 인공 분수대며 현대식 유리건물 추녀 끝에 목을 맨 인경소리, 잔잔한 바람과 어울리며 서방정토의 적음(寂音)이 되어 마음 자락자락 파고 들며 이곳이 혹시 극락이 아닌가 하여 영혼조차 맑아지는 느낌이다.

또한 서예가 남전 선생이 몇 년간 머물며 작품에 전념했던 미산골 가는 길엔 선녀 손길에 때 벗은 백자빛 바위 짬으로 선홍색 철쭉이 보아 주는 이 없이도 생을 불태우느라 온 내린천 물은 붉은색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들은 세상 흐름에 방관자로 삶을 살지만 도시를 그리워 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산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없이 순박한 삶을 살아 가고 있다. 한계령에서 필레 약속 가는 길은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운둔의 비경으로 소설가 이순원이 쓴 단편 은비령(隱秘嶺)으로 명명되어 가슴이 멈출 것 같아 신선한 산세는 적막함과 숭고함이 감춰져 있으나 그 이름으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더욱 잦고 태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이 안타깝다.

인간은 땅에 발 붙이고 살며 정복하려는 야심은 높은 곳으로만 치달

는가. 예전엔 감히 오르지도 못했던 대청봉이나 울산바위마저 사람 발길에 닳아 자연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으나 머지 않아 하늘가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저속이 염려스럽다.

산기운도 은밀하고 싶고 신비스러움을 품고 싶어하리라, 언젠가는 인간들이 자연을 방임한 죄의 대가로 자연의 분노를 대책 없이 격게 될지도 모르는 일에 이곳 사람들만이라도 소홀하지 말아야 하리라.

모두는 내린천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열정도 보인 향토 지킴이들이다. 산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길이 좀 더디고 불편하다고 백년 뿌리 내린 자생 나무들이 파여 나가는 것을 이들은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대로 이곳은 자연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지 않은가. 수목으로부터 정화된 질 높은 산소와 청정수가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생의 꼬달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예술의 혼으로 문화의 향기는 인제골에 널리 퍼지리라.

문화의 성장은 정신을 살찌우게 하는 질 높은 삶의 바탕인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 산 저 산 분홍빛으로 하늘까지 불태우는 진달래꽃이 막지고 소금을 뿌린 듯한 하얀 조팝꽃이 숲의 질서대로 목청을 돋우고 봄의 절경이 꿈 속 같은 5월이다.

정신이 피폐해지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편해지고 싶은 도시인과 예술인들이여 이제 영혼을 맑게 잠재울 인제골에서 그 허기를 채워 보시길.....

2002년 10월

소중한 나의 가족들

이현애(인제 주부 독서회)

오늘 저녁은 화가 언니와 이쁜 딸과 장성한 두 아들을 대동하고 닭갈비집에서 맛있는 닭갈비로 저녁을 해결했다. 고기보다는 야채를 선호하는 나로서는 기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알맞은 음식이다. 깻잎에다 쌈을 싸서 한 입 먹으면 매콤하고 쫄깃쫄깃한 그 맛이 일품인 닭갈비. 달작지근한 고구마를 골라 먹는 재미, 쫄득쫄득한 가래떡을 골라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거기에다 소주도 한 잔 곁들이면 더 없는 옥반가효라.

오랜만에 한 가족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저녁이라 더 의미가 깊은 날이었다.

나의 실제 가족은 어머니와 딸과 아들 이렇게 네 식구다.

아들은 종종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서 닭고기를 먹는 자리에 열외가 되는지라 어마님도 같이 못 나가시고 딸과 둘이서만 외식을 할 때가 있기도 하다.

저녁을 함께 한 사람들은 친 혈육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힘들게 살 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가족 이상으로 정이 듬뿍 든 사람들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해 살아갈 의욕을 잃고 탈진해서 어찌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때가 있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언니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질곡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하던 바램으로 온갖 정성을 다 해주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 하면

서 용기를 주려 하던 언니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평범한 생각으로서
는 하기 힘든 배려라는 걸 알 것만 같다.

워낙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이 넉넉하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던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때 길을 제시해 주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준 언
니였다.

세상이 비록 냉정하다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일이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절망도 따지
고 보면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란 걸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웃음이 안나와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이면 그 미소가 때론 내
얼굴이 되기도 하듯 항상 불행한 것만도 아닌 것이 삶이려니 웃는 만
큼 행복해지고 우울한 만큼 불행해지는 것이 꼭 아니더라도 그래도 웃
어야 되지 않겠는가.

타인을 위해서라도 웃어주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도 늘
마음 한 구석이 빈 얼굴을 하고 카운터에 덜렁 앉아 있던 나. 무표정한
내 얼굴을 나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행동에서 말에서 도대체 왜 그
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야 하느냐고 은근한 눈짓을 하며 제발 좀 웃어
보라는 듯한 그들의 여망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이란 것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욕이 일어나지 않던 그런 시간들이
었다. 늘 마음 속에 불행함만 있고 행복이란 얼썌도 하지 않을 것만 같
던 그런 때였다.

그 때 불쑥 건장한 청년 두 명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동안 여러 번
마주쳤지만 마음 없이 주고 받는 대화였을 뿐 손님과 주인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클로즈업 되던 두 얼굴. 유난히 잘났거
나 뛰어나게 흰칠하거나 한 인물들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친근
하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근 부대의 부사관들이다. 가게 바
로 앞 군인회관에 주차를 하고 종종 내 가게에 들어서 물건을 사가곤
하던 그들.

둘이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같은 집에 산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런 친숙한 사이였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부탁을 해왔다. 아줌마,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시지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자꾸만 늦잠을 자게 돼서요. 저희들 좀 깨워주세요.

나야 항상 일찍 가게문을 열어 버릇하다보니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게 된다. 늦게 자건 일찍 자건 일어나는 시간은 변함이 없으니 깨워주는 것쯤이야 간단히 버튼만 눌러 주면 되는 것이니 알았어. 깨워 줄게. 적어 놓고 가.

부탁대로 6시 30분에 버튼을 눌러 주고는 출근하는 모습도 제대로 못봤는데 퇴근 시간에도 한참이나 지난 후에 두 청년이 가게로 들어섰다. 맥주 한 캔씩 마시고 가고 싶다면서. 그 날,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앉아 통닭을 시켜 놓고 맥주를 마셨다. 그들은 대뜸 내게 엄니 하면서 그래도 그 친근한 수다가 싫지는 않았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군생활을 하자니 그리운 것들이 많았으리라. 가슴에 그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도 많아지는 법.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움에 절절히 젖어 있었나보다. 그래서 더 빨리 친숙해질 수 있었나보다.

그 날 이후로 거의 매일 가게에 들러 음료수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면서 안보면 궁금해져 못배기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다.

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들은 두말 않고 나서서 해주었다. 무거운 박스 나르는 것, 창고 정리하는 것, 물건 진열하는 것 등 시간만 나면 와서 거들어 주니 내 얼마나 든든하던지. 일 년이 넘게 헌결찬 두 아들로 자칭하면서 힘든 가게 일을 많이도 도와주었었다. 나로선 너무도 고마운 일이었다.

때론 정말 그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할 때가 있다. 저렇게 장성한 두 아들이 있다면 살아가는 일이 하나도 겁이 안 날 것만 같으니 말이다.

가게를 정리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전화 한 통화도 못해주었더니
엄니는 요새 뭐 하길래 그렇게 바쁘냐고 성화를 해대는 바람에 하던
일을 뒤로 미루고 저녁을 함께 먹고 돌아온 지금 마음은 날개 큰 새와
같다. 세상은 훨훨 날 것만 같은…….

〈신작 詩〉

수마가 할퀴고 간 곳에 미소를

최인철(인제경찰서장)

실개천이 곱개 흐르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수마가 할퀴고 가 버린 폐허
찢긴 가슴에 흐르는 전율을
연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네

울부짖다 눈물도 마르고
돌처럼 굳어 버린 그 얼굴에
고운 미소 사라졌다 해도

은하수가 흐르고
별 빛 쏟아지는
아담한 전원 주택
황금 물결 넘실대는
문전옥답이 하천으로 변했어도
절망을 딛고 재건의 깃발 휘날리세.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눈이 오면 눈에 젖는
저 말없는 청산이 지켜 봄을 잊지 말고,

해맑은 바람 불어오는 희망의 언덕
밝은 달과 은하수 손짓하는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며 미소의 꽃 불어 넣자.

통일의 빗장은 열리고 있다

최인철(인제경찰서장)

산 그림자 길게 여운 남기고
여름의 모습 저만치 가고 있을 때
민족의 영산 금강의 정기를 받은
전사들의 통일 행군이 너무나 아름다워
역사 앞에 알알이 반추되고 있네

자랑스런 깃발 나부끼며
내딛는 통일로 이어지는 길목마다
산천초목 이름 모를 산새들이
통일노래 불러주네.

저녁노을 붉게 드리운 서울에서
여명의 태양 두둥실 떠오르는
통일의 불씨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성까지
천리길 행군하는 그대들의 발길을,
그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무쇠같은 천근 발 길 옮길 때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통일의 향기 풀풀나는
영롱한 아침 햇살 쏟아 붓는
통일 동산 그곳으로 굳세게 진군하고 있네.

아! 숨막힐 듯한 벽찬 감격
이 길이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는
통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념이란 장벽이 가로막는 어두운 그림자 한 자락
가슴 억눌러 저어오는 서글픔이 내 심금 울리네.

짙한 가슴 한아름 앓은채
북녘땅 저곳을향해 통일을 외쳐 보며
이념의 장벽 무너지는 그 날
통일의 마지막 빗장도
우리 모두가 활짝 열어 나가세.

꿈의 길, 희망의 길

최인철(인제경찰서장)

달빛이
가만히 창문 두드리는
아늑한 을지용사들의 보금자리
기동화 발자국 소리 사라지고

낭만 속에 웃음꽃이 피어나네.

산새들 노래 부르고

솔 숲 흔드는 바람 풀꽃들이 춤출 때

“서호” 맑은 물엔 먹감는 선녀들 갈길 서두르고

가슴 들어내 살갗 부벼 대며

옥자갈 구르는 소리 고요 속에 흐르네.

꿈의 길 희망의 길

이름을 들어봐도 그 길을 걸어봐도

신바람 속에 휘파람 저절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어라.

연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새가 되어

꿈의 길 희망의 길로 날아가고 싶네.

산과 물 그리고 바위

한 용 운

물은
늘 물이라고
억겁의 세월을 두고
조약돌 얼루며 흘러간다

산은
또 산이라고
큰 산 앞에서 작은 산이 서서
하 없는 흥얼거린다

바위는
저도 언제나 바위인지라
천년 만년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오고 가는 인적의 발길 같은
끓을 수 없는
바람의 가락을 엮고 있노라

동그라미 파문

한 용 운

가슴 속 일렁이는 물길에
동그라게 동그라미로
그려지는 얼굴
만났다 왜 헤어져야 하는지

여닐곱살 쫓 사랑이라고
그토록 울어야 했던 분이야
누구가 돌을 던진
동그라미 파문이던가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라미로 번지는
그 작은
동그라미 하나

내 그리움 넓혀 가듯
동그라미 속으로 젖어드는
가슴아픈 사연이여

저물어 가는
저푸른 하늘가에
꽃잎으로 떨어져

그저 흐르기만 하는 물결이었을까?

우울한 여정

한 용 운

사람은
만나는 기쁨보다
기다리는 조급함이
더 많은 그리움을 동반하는가 보다

꿈 꾀 새벽에 눈을 뜨면
창밖에
지저귀는 새 소리

산 그늘
길게 누울 때면
풀벌레 울음소리 깊어 지지만

세월의 안과 밖을 구별치 못하고
어디에서 걸어 왔는지
분간할 수 없었던
잃어 버린
나

긴긴 여정에서
남 몰래 흘린 눈물은
빈 공간 속에서 쓸쓸히 말라가고 있었네

아내와 어항

한 용 운

지조 있다는
아내의 품위는
수관이 아름다운 어항 때문이다

촛촛한 수초 사이에
작은 물바람
일으켜 세우는

아내의 잔잔한 외로움
외로움
외로움

그 외로움은
마치 늘 푸른 소나무와 같이
늠름한 모습이다

허리

팔 다리 쭈시는
세월이 흘러 가도

아내는
어항 곁에서
오늘도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주부 독서회

정 순 덕

봄은 더디게 온다

지난 겨울은 겨울답지 않았으므로
우수, 경칩이 지났는데도
함박눈이 내린다

집 앞, 은행나무 장미나무 은사시 나무는
빈 가슴에 봉긋봉긋 새움을 품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꽃
제 가지에 받아준다

마지막 눈꽃축제이리라
더디게더디게 다가서는 봄의 전령들
아직도 못 다 그린 겨울 풍경에
맨 살 고스란히 들어내 주고
아득하니 숨 고른다

원체 느리니 망정이지
서둘러 왔더라면
여린 싹이랑 봉우리들
에이는 그 아픔을 어이 견디리……

그래서 봄은 더디게 더디게
그렇게 오는가 봅니다.

추천리 역

정 순 덕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오고 가는 일이 없는 나는
그림 속에서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오늘
이충재 시인이 보내 주신 시 속의
추천리 역에 가보았다

물론, 그림 속이긴 하지만 필시 한 번 다녀온 듯
하나도 낯설지 않았다

그 글 속의 추천리 역은 가을 싸리꽃이 만발한 풍경이었고
내가 오늘 보는 추천리 역은
온통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엽서 속에 들어앉은 외로운 역이었다

855m 고지 위에 하얗게 덮힌 눈은
몸져 누운 싸리꽃이 되어 지천으로

백색의 눈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꽃

정 순 덕

겨우내 시린 살
보듬어 안았다가
이른 봄 뒤질새라
서둘러 피어나는 꽃, 꽃

침침이 접었던 아픈 가슴을
활짝 열어 한 순간에 피를
토해낸다 화-아

향기는
꽃이 흘리는 피의 노래다
이미 쓰러질 줄 알고도 터뜨리는
꽃의 붉은 각혈이다

피는 쏟아져 대지 위에 내리고
대지의 꽃의 아픔
고즈넉히 받아 안고
다음 해에 다시 살아보자고

등 토닥여 잠재운다

바람부리를 지나며

정 순 덕

바람 부리 갈대밭을 지나
곰배령, 단목령 양 갈래길에 서면

왼쪽으로 세 쌍둥이네 가는길
오른쪽으로 꽃님이네 가는 길
나즈막히 이정표말 정겨웁다

곰배령으로 들어서 오솔솔 들꽃 길을 걸어갈까
단목령으로 들어서 하늘 찾집 찾아가
꽃, 나무, 열매 담긴 약주 한 잔 마실까

햇빛 따사롭게 골짜기 물 만나 입맞춤하는
들 꽃 흐드러진 길가에 오래도록 앉았다가
질펀질펀 산골향기 온몸에 담아두고
일 년 동안 조금씩만 되새겨 살아볼까

〈최우수〉

우리 하나가 되어

이 정 우

아! 우리는 하나인 것을
 저 넓은 우주의 수없이 많은 별들도
 온 땅 가득한 모든 생명도
 저 청명한 하늘과

햇살 가득 품은 푸르는 산과 은빛 반짝이는 물결
 꿈틀 거리는 벌레들
 이름 모를 가냘픈 새들의 창명한 울음소리
 아! 이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일부인 것을

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밤마다 포근히 속삭이는 별들의 눈빛에
 산들의 메아리 속에 스며 있는 저 메시지에

저 맑고 아련한 흐르는 물소리
 아! 우리는 그들의 간절한 소리에 답하여야 한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인 것을

오! 푸르는 하늘과 그윽한 향기의 산들과 명량한 물들의 흐름이여
 우리가 숨쉬는 것은 너희의 힘찬 호흡 때문이요
 우리가 기뻐하며 뛰노는 것은 너희의 희생적 사랑 때문인 것을

아! 우리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 영원의 참 벗이여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 되어 주려무나

〈우수〉

은어

기린초교 2학년 장미반 정혜진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은어야!
숨쉬기가 힘들지

너희가 살 곳을 빼앗아서
정말 정말 미안해

깨끗한 물에 서만
사는 은어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되돌려 줄게

꼭! 꼭! 약속해

〈우수〉

마음이 예뻐야 지구도 좋대요

월학 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송희

몰래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엔
내가 버린 양심이 숨어 있고요

지독한 쓰레기 냄새 속엔
지구의 한숨이 숨어 있어요

공기가 나쁘다고 불평하는 말 속에
지구의 신음이 숨어 있고요.

마구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
빗방울은 지구의 눈물이 되어요

내가 먼저 분리 수거
지구는 눈물을 거두어 가고요

웃으면서 재활용
지구는 한숨을 거두어 가고요

우리 모두 환경을 아끼면은요
나도 지구도 활짝 웃어요

〈동시〉

이슬

인제 남초등학교 6학년 한솔반 김연경

새벽에 일어나 보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겨 주는
꽃들

꽃들 곁에가서 인사하면
보답이라도 하듯이 꽃잎에서
사르르~ 내 발에 떨어지는
이슬

진주같은 나의 친구
오색의 이슬

나는 지금도
작년 그 이슬을
떠올린다

〈장려〉

아름다운 점봉산

기린초등학교 2학년 국화반 김상진

깊고 깊은 점봉산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맑고 맑은 물 속을 들여다보니
물고기들이 아주 즐겁게
헤엄치고 있네

언제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맑은 물이 흘러서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장려〉

꽃들의 표정

월학초등학교 3학년 박권균

길가의 꽃들이
왜 찡그릴까?
쓰레기를 버려서이지

길가의 꽃들이
왜 울까?
오염된 물을 먹어서지

왜 오염이 되었을까?
모두 모두 환경의 귀중함을
몰라서이지

개구리

원통중학교 3학년 최윤희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로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간다
펼쩍, —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로
커다란 차가 지나간다
끼익 —

차가 지나가고
뛰어가던 개구리는
뜨거운 도로에 납작히 눌러 붙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개구리는 다시 꿈을 꾸다
달릴 수 있는 꿈을
펼쩍 —

〈동시〉

앞강

인제 남초등학교 4학년 한빛반 이종수

아빠와 같이
물고기 잡던
깨끗하고 맑던

나 6살 때 앞강
물은 더러워지고
물고기도 이사가고

쓰레기는 산을 이루네
사람들도 찾지 않는
나 11살의 앞강

마음을 새로이 하여
쓰레기는 떠나보내고
맑은 경치
맑은 물고기
맑은 사람
불러모으자!

〈동시〉

바람

인제 남초등학교 4학년 한빛반 안태금

휘~익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영영 울고 있네요
왜냐고 물었더니
뛰어놀다가 쓰레기랑 부딪쳤대요

또 다른 바람이 울고 있네요
왜냐고 물었더니
산책하다 쓰레기랑 부딪쳤대요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이 집이래요
쓰레기도 집에 못가
해매고 있는 거래요

집가는 길 잊어버린
불쌍한 쓰레기의
집을 찾아줘요
그러면 바람도
신나게 놀 수 있어요

〈동시 장려〉

지구의 의사

하남 초등학교 6학년 유희진

콜록 콜록
지구가
감기에 걸렸어요

공기가 아주 많이
오염되었나 봐요

홀쩍 홀쩍
지구가 울고 있어요

온 몸이 병에 걸려
많이 아픈가 봐요

나는 이제부터
지구의 의사

공기가 깨끗해지도록
가까운 길을 걸어서 가고

땅이 깨끗해지도록
쓰레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물이 깨끗해 지도록
세제는 조금조금씩 아껴 쓰고

언젠가 나는
지구의 치료 위해
노력할 거예요

지구야
이제 부터 내가 너를
지켜 줄께

〈동시 장려상〉

자연은……

하남초등학교 5학년 1반 김 솔

자연은 자연은
참 좋은 친구예요
맑은 공기를 선물해 주니까요

자연은 자연은
참 좋은 친구예요
위험한 일들을 막아 주거든요

하지만 전 나쁜 아이예요
자연에게 선물도
자연에게 기쁨도
쓰레기 밖에 안주니까요

자연아!
내가 지금부터 널 아껴 주고
가꾸어 사랑해 줄 것을
약속 할게……

〈글짓기 수필 최우수〉

환경도 16강!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한빛반 김혜림

월드컵 대회로 인해 요즘은 아주 즐겁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어떤 나라가 이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많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 도시에서 오존주의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지만, 오존이 많이 발생해서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검색어에 오존을 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존은 특이한 냄새가 나며 스스로 분해되어 산소가 되어 다른 여러 물질을 분해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 산소가 되는데 오존이 많으면 안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선생님께서는 오존이 오존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고, 그 오존이 많으면 인간의 건강을 해치며,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존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오존은 차에서 내뿜는 배기 가스가 오존을 많이 생기게 한 것입니다.

모두 차를 타지 않으면 되겠지…….

하지만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저희는 아마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차량 2부제나, 10부제를 합니다. 저는 차가 없지만 삼촌께 꼭 지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존을 줄이는 것은 이번 월드컵 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서도 항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경보존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월드컵이 환경도 세계 16강, 아니 세계 4강, 우승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필 우수〉

덕산 정수장과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찾아서……

인제종합 고등학교 1학년 2반 원고연

오늘 우리반 아이들과 함께 학급 현장학습도 하고 우리가 매일 먹는 수돗물이 어떻게 깨끗하게 정수가 되어지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 관하여 공부도 할겸 덕산 정수장과 복면에 있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에 가는 날이다.

5교시가 끝나자마자 나와 친구들은 체육관 옆의 주차장에 가서 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날씨는 4월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날씨를 띠고 있었다. 난 너무나 더워 목이 말라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우리를 그 곳으로 인도해 줄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버스 안은 시끌벅적해졌다.

이 버스의 여건으로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창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창이 있었다라면 정말 여행가는 기분이 느껴져 지금 내가 쓰는 이 소감문에 '차창밖으로 스쳐가는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다.'라고 덧붙여 독자에게 더욱더 여행가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을 것 아니냐! 어쨌든 버스는 신나게 달려 다리를 건너 덕산 정수장의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다. 나는 이런 곳에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인제에 산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나는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들어가 우리는 계단을 올라서 정수장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들어가 우리는 정수장에 관련된 비디오표 보기 전에 원통과 인제의 상수돗물이 깨끗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분담의 모

습을 보여 주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상수도 담당에서는 수질 오수시설, 수계를 기금.

수질 환경 담당에서는 상수도간이 상수도를 시설하고,

종합 상수도 운영팀에서는 정수장을 관리한다고 하셨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뒤 우리는 중앙 제어실로 갔다. 그 곳에서는 담당 지도자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구경하게 될 시설들의 역할과 모습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 주셨다. 이 곳에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냥 외상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강물이 투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심성이 나쁜 사람이 강에 농약같은 불순물을 넣었다 하면 물고기들이 그것으로 인해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 하셨다.

나는 중앙 제어실에서 밖으로 나와 배수지를 구경했다. 그것은 만들어진 수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데 마치 할머니가 등을 구부려 김을 매는 모습과도 흡사하였다. 이 곳의 겉모습은 저장된 물의 양을 알려 주는 듯했다.

이 곳을 지나 착수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취수된 원수가 정수장에 처음 도착하는 곳이라 한다. 처음 도착하는 물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청정 지역인 인제라고들 하지만 그리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 곳을 거쳐 혼화, 응집지라는 곳으로 갔는데 착수정으로 들어온 물에 약품을 넣어 찌꺼기를 크게 하는 시설이라 하였다. 이 곳에는 개구리 한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런 지식 없는 나로서는,

‘저 약품으로 인해서 저 개구리도 커지면 어찌나?’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곳에 빠지면 안돼”라고 밀씀하셨다. 이 곳은 둔한 내가 보기에 너무나 깊어 보였다. 돌맹이를 떨어뜨려 그 높이를 가름하고 싶은 정도로 말이다.

혼화. 응집지를 거쳐 침전지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이 곳의 이전인 혼화. 응집지에서 약품으로 인해 커진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곳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그리 좋지 않은 내 눈에는 너무나도 깨끗해 보였다. 이곳을 거쳐 여과지에 갔다. 그 곳은 남은 불순물을 걸러 주는 곳이라 하는데 불순물이 걸러진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그 길로 계속 가다보면 염소 투입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과된 물을 소독하는 시설이다. 이 곳은 담당 지도자님께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다. 과학 시간에만 Cl_2 라는 것이 물을 깨끗이 소독한다는 것은 귀로만 배웠지만 막상 이곳에 오고 나니 염소라는 기호가 더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 곳을 지나 실험실에 갔는데 그 곳은 최종 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각종 검사하는 곳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어떤 아저씨들께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나는 뒤에 있어서 화면에 찍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으로 덕산 정수장의 볼거리는 끝이 났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이렇게 맑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팬스레 세제로 설거지를 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이 곳을 다녀오기 전에는 머리를 감을 때도 샴푸를 사정없이 발라 물을 계속 틀어 놓고 감은 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빨래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그러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괜히 물을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일깨웠고 앞으로는 염소도 아끼고 정수장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물을 절약해야겠다고 세제를 점점 줄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난 이번 계기로 이 글에 더욱더 공감하게 되었고 수궁하게 되었다.

물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아니, 어쩌면 우주일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 무슨 이유로 만물이 존재되어질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가 숨쉬는 이 곳에 그 무엇이 존재하겠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을 꽉 찰 즈음 버스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향하여 신나게 달렸다.

이 곳에서는 소각로와 파쇄기, 캔 압축기와 스티로폴 용기를 볼 수 있었다. 소각로 옆에는 캔 압축기로 압축해 놓은 캔들의 높이가 나의 키보다 훨씬 더 컸다.

스티로폴 용융기로 만든 스티로폴을 녹인 것이 있었는데 변 같기도 하였고 돌 같기도 하였다. 또 그것은 단단해 스티로폴였다는 사실도 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 모양은 완전히 변형되었다. 이런 것들을 다 구경한 뒤 내리막길로 내려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동했다. 그 곳은 내가 보기에는 정체가 분명치 않는 그 무언가로 쓰레기를 썩히고 있었는데 지표면 바로 위에 그와 같은 것으로 덮여 쓰레기가 땅에서 썩는 것을 막는다 했다. 이곳을 지나 여러 군대를 구경했다……

이것으로 이 곳의 볼거리도 모두 끝이 났다.

쓰레기는 너무 많았다. 캔들도 수없이 많았고 타이어 같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도 널리널리 퍼져 있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이렇게 자연을 훼손시키다니……

이것 또한 편의주의가 불러일으킨 우리의 도를 넘어선 지나친 욕심 때문이 아닐까……

편하게 살려 하다보니 이로움은 있지만 쓰레기로의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으니……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다. 또한 너무나도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라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인제라는 곳이 청정 지역이라 말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인제도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허욕과 이기심이 불러일으킨 과학의 발달로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잘못이지 그 누구의 잘못이라 탓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잘못이기에 그것을 자연에게 떠맡길 수는 없는 법.

지금 이 시대……

자연은 인간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 지금 인간에게 분노를 토하고, 복수를 하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비속어로 빠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자연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명료하게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다.

〈수필 우수〉

나보다 환경 먼저

기린고 2학년 박영미

지난해 봄부터 철부지 내 어린 동생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바로 우리 동네에 뚝이 생긴다는 것이다.

뚝이 생기면 비가 와도 개울물이 넘치지 않아 예전 같은 물난리는 격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으레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동생은 뚝 때문에 물이 줄어 들면 앞으로 물놀이를 못할 것이냐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여름이면 매일같이 헐레벌떡 뛰어나가 툇하면 옷을 훌쩍 적시고 올 정도로 물놀이를 좋아하는 동생에게 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없는 세상을 만난 것처럼 크나큰 아픔이겠지만, 그깟 물놀이쯤이야 안하면 어때? 하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한동안 우리 동네는 공사로 인해 시끄러운 날을 보내야만 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좋은 동네 만들어 주려나 보지……라고 생각하며 그 온갖 소음들을 참아냈다.

기나긴 공사 끝에 우리는 완성된 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앗!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풀과 함께 어우러져 힘차게 흐르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는 건 오직 회색의 네모진 뚝과 큰 돌덩어리 뿐이었다. 또한 동네 한 가운데로 흐르는 물줄기는 더욱 약해졌다. 동생 말대로 물이 줄어든 것이다. 동생은 앞으로 이 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워했다.

그 해 여름 햇님이 목이 말랐던지 그나마 없던 물을 뭇땅 마셔버렸다.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소꿉놀이도 하고, 물고기들과 인사도 했을 텐데……. 내 동생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다. 나가 봤자 물구경도 못한다고 말이다. 그 순수하고 정겹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후……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 누구인지는 몰라도 우리의 추억들은 모조리 빼앗아 버리고 환경도 많이 망가졌다. 좋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더 삭막한 시골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제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난번 우리 동네로 놀러온 피서객들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악취까지 그것을 보고 이곳 저곳 버려진 쓰레기만큼이나 더러워진 우리들의 양심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어느 책에선가,

“우리는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입으로는 ‘내 탓이오’ 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니 탓이다’ 하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서로 쿡쿡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란 끝이 없나보다.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만 해도 그렇다. 환경이 오늘날까지 오염된 이유는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끔찍한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모두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다.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뒤에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숨어 있다.

또 자연이 없다면 인간은 결국 외로운 존재가 되어 버리듯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어떤 이의 말이 생각난다.

세상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다면 환경은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초록별인 지구는 쓰레기 더미에 짓눌려 검은 색으로 변해 빛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죽은 별이 되고 말 것이다.

예전에 한 광고업체는 물로만 빨래하는 세탁기를 소개했다. 이 제품

은 환경을 먼저 생각한 듯 싶다. 세제가 땅 속으로 바다로 흘러감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이처럼 우리에게도 나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을 사랑하는 일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웃고 있는 이곳, 이 지구가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기를 소망한다.

〈수필 우수〉

환경 견학을 다녀와서……

(주부가 앞서면 세상이 바뀐다)

황 변 주

연두빛 짙은 초록의 향연인듯 상큼한 바람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진다.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는 김에 옆집 복도 물청소까지 끝내놓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 경비실 옆으로 갔다. 음식물 냄새가 뭐 그리 좋을 리 없건만 난 나름대로 냄새를 맡으며 ‘음, 냄새, 잘했네’ 속으로 한 마디 하고는 흐뭇해 한다.

작년에 군청에서 마을별로 환경 견학을 갔었다. 처음엔 의례적인 대충 격식에 지나지 않는 견학이려니 생각했던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그건 큰코 다칠 하마터면 무식한 아줌마가 될뻔 했다.

한 해가 바뀌었어도 아직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보면 어릴적 학생처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나 보다. 덕산에 있는 정수 처리장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을 모두 책임지는 그야말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자동 시스템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돗물이 보내지는 과정을 둘러보며 어느 곳보다도 몇 배의 깨끗한 물 그 자체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분들이 어찌나듬직해 보이던지……

평소엔 웬지 찝찝한 느낌이 들어 사실이지 수돗물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냉동실 어름물은 그냥 얼려 먹어도 아무 생각이 안든다. 당연히 믿으니까.

다음은 원통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갔는데 쓰레기가 밀집돼 있어 냄새가 많이 날거라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체 개발했다

는 EM을 뿌림으로서 냄새는 물론 인체에 무해하고 거름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설명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거 같아 누구나 한 번쯤은 모두 견학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곳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다시 재 분류하시는 연세 지긋한 분들의 손길도 보았다. 플라스틱통이나 요구르트병 같은 건 한 번 물에 행구어서 분류하면 냄새도 덜하고 만지는 분들도 좋을 텐데, 두 번 손길 안 가게 한 번에 우리가 제대로 잘하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살아가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뭐 그리 바쁘다고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에 대해 너무 무관심 속에 살았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신남 가는 쪽의 정화조 처리장도 마찬가지였다. 그 곳에서도 EM을 넣음으로 해서 정화시키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었다.

견학한 곳 어느 곳이든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줄마춤처럼 인체에 무해한 삶의 터전을 단단히 다지는 모습들이었다.

인체만 해도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아직은 환경오염이 피부에 와 닿지 않게 느껴진게 사실이었지만 미리 앞을 내다보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실지로 체험하고 나니 저절로 의식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살림하는 가정 주부님들 모두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견학을 하고 온 다음 우리 아파트에서는 EM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 음식물이 나올 때마다 EM을 뿌려만 주면 손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점차 이웃에도 설명하고 권하여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야말로 예쁘게 모으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해 주니 쓰레기 봉투도 필요 없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환경보호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 기분

도 좋다.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해서 내놓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엄청 줄어들어 옛날보다 비교도 안되는 적은 양이 된다. 방금 환경미화원 차가 지나가자 경비 아저씨의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깨끗한 물청소가 시작된다.

쓰레기장도 깨끗한데 당연히 깨끗하고 반듯하게 분리수거를 하면 얼마나 예쁠까?

무슨 일이든 우린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같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주 큰 별일인 것이다.

미래에 가장 잘 사는 나라는 환경오염이 덜 된 나라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 밝고 환하듯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처가 될 이 곳이야말로 우리가 남겨 줄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무리 기계화, 자동화된 삶의 흐름이라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자연과 조화’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관계자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기초를 다지는 몫은 각 가정이다. 아주 조금씩만 신경을 써서 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내 고장이 되도록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동참한다면 우린 가장 행복한 미래를 준비한 멋진 아줌마인 것이다.

〈수필 장려〉

내 · 린 · 천

기린고 1-7 김재선

나는 이곳 강원도 인제군의 기린면에 살고 있다. 이곳에는 내린천이란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인제군의 가장 큰 자랑이다. 전국 제1의 청정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내린천은 전국에서 찾기 힘든 제1급수이다.

내린천이란 이름은 홍천군 내면의 내(內)자와 인제군 기린면 린(麟)자를 합쳐 내린천이란 이름 붙였다고 한다. 여름에는 전국 수많은 관광객들이 피서를 오갈 정도로 인제는 모험관광의 고장으로 이름나고 있다. 올해에는 레프팅과 페러글라이딩, 번지점프 등 여러 시설이 늘어나 작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로써는 인제를 알리고 수입을 높일 수 있어 박수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성격상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가만 놓아 두려하지 않는다. 서로 만지려고 그러다 보면 금방 때가 타고, 훼손되고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이다. 깨끗하고 맑은 걸 보존하려들지 않고 추억이 된다는니 하며 자꾸 더럽히고 망가뜨리려고만 한다. 그래서 나는 인제가 걱정스럽다. 지금도 점점 오염되고 있는 내린천이 십 년쯤 지나면 일급수고 뭐고 그런 말들은 더러운 시궁창 밑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 2002년 한·일 월드컵 중……

우리 나라는 작년에 히딩크 감독을 영입해 현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우리는 히딩크의 천재적인 지도력으로 네델란드를 바라보고 있

지만, 세계의 눈은 조금 다르다

네델란드는 지금 천적을 이용한 농사법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천적 농사법이란 농사를 망치는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이나 곰팡이를 길러 논이나 밭에 풀어 놓는 방법이다 네델란드의 농가에서는 이러한 천적 농사법 덕에 농약병들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논과 밭에 풀어 놓아야 할 곤충들을 기르는 일은 농약을 치는 일보다 힘들긴 하지만 현재 네델란드 농민들은 전국적으로 천적 농사법을 권장하며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천적 농사법의 성공은 우리의 환경문제를 푸는 큰 열쇠가 되리라 본다.

이처럼 지구 한쪽에서는 자꾸만 환경을 파괴시키려는 일이, 그리고 다른 반대쪽에서는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상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다. 거기에서 나는 우연치 않게 인제군 주민으로 보이는 한 아저씨가 분노를 토하고 있는 글을 읽게 되었다. 이제 겨우 한 달 지난 글이었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환경 훼손 심각!! 나몰라라 공무원들”

글쓴이, 환경 지킴이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에는 내린천 상류가 인제군 상남면 쪽으로 흐르는데 홍천군과 인제군 경계 900m 정도 못가서 내린천 옆에 온갖 짐승을 키우는 대규모 사육장이 아파트 경비원 같은 복장을 하고 경비를 하는걸로 봐서 똥개나 쾨는 유지인 모양인데 왜 단속을 못하는지, 안하는지……

서울 사람이 농사 좀 지어 보겠다고 밭뽕기를 사서 2평짜리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 늑대같이 달라들어서 불법건물 치우라고 씹어대는 똑똑한 공무원들이 상기 불법적인 환경훼손은 왜 못보는지, 맹인인지, 장님인지…….

* * * 환경 파괴실태 * * *

수많은 짐승들이 배설하는 배설물로 내린천에 서식하던 다슬기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도태되었는지, 짐승사육 전에는 다슬기 왕국이었으나 작년에는 다슬기가 100분의1로 줄어 들었으며 물고기도 손으로 잡을 정도였는데 고기도 잘 안되여…… 난 장님이 아니라 시력이 꽤 좋은 사람인데……

물 좋고 경치 좋은 그 오지에 여우같이 들어가서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한 그 똑똑한 사람과 단속을 나몰라라 하는 공무원들 환경부에서 한번 나가보시구라. 많은 자연사랑 지킴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구……

많은 업소들을 하천에 방목하는 것도 작년, 재작년 보았다우 돈 많은 놈이 무슨 돈을 또 벌자구 자연을 파괴하는지, 쫓쫓 공무원들이 손을 못대는걸 보면 거물급인 것 같은데 거물급들이 나라망쳐. 내린천에 들어가서 다슬기 잡는데 짐승들 배설물 냄새가 나더라……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분신자살 할끼다. 나쁜놈들……”

나는 글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게 되었다. 내 고장 이야기라고 하니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글쓴이의 어투로 바서는 무척 화가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장난은 아닌듯 싶었다. 글쓴 이는 오죽했으면 환경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겠는가. 나 또한 돈만있는 자들이 우리 고장의 환경을 파괴시키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것에 대해 화가 났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걸 보고도 나몰라라 하는 공무원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단속반 사람들에게 무척 화가난다. 우리 이 자연은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우리들의 것인데 이것을 돈으로 함부로 사고 파는 행동이 너무 괴씸하다.

이처럼 이곳 인제도 환경파괴란 이름을 피할 수는 없는 지경이 되었

다. 우리가 전국 제1의 청정 지역인 인제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사항을 알아보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장의 사랑하는 마음이다. 내 고장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고장을 지키겠다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몸만 이곳에 있을뿐 타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고장 지키기에 들어갈 때이다. 이제 여름이다. 휴가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쓰레기 문제인 것 같다. 피서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양이 오죽 많겠는가.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 양보다 산과 강에 버려진 쓰레기가 더욱 많을 것이다.

비록 내가 버리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아는 그런 행동을 하는 군민이 되어야겠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실천사항이다.

세 번째로는 나무와 꽃을 꺾지 않는 일이다.

인제는 산이 많다. 그 산은 울창한 소나무들이 메꾸고 있다. 이러한 나무는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욱 빛내 줄 뿐더러 공기도 맑게 정화시켜 주는 일을 한다. 이러한 나무가 한 가지 한 가지 꺾여지고 나아가 한 그루 한 그루 베어진다면 이 울창한 숲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연은 우리 조상들이 남기고 간 유품들이나 다름없다. 만약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물도 정화시켜서 먹는 그런 지저분하고 삭막한 사회가 된다면 나중에 조상님들의 얼굴을 어떻게 뵈는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재 우리 자연이 많이 오염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만 예전처럼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이 그 옆으로 옆으로 나아가갈 때 우리는 웃고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세계의 눈이 한국을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게 우리의 깨끗하고 선진화된 자연환경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수필 장려〉

인북천 그 곳에는

이 은 희

5월의 햇빛이 평화의 마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높은 산 바둑판처럼 잘 정돈된 넓은 논 그 옆으로 인북천이 흐르고 있는 아담한 마을 서화리다.

때때로 포성이 들리는 최전방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평화의 마을인 곳이다.

내가 이곳에 이사 온지 햇수로 3년 살면 살수록 정이 드는 곳 그래서 인간의 냄새와 자연의 냄새가 나는 곳이다.

군인인 남편과 8년 전 결혼하여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환경에 대해 가끔씩 걱정하고 반성하는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가 종종 있다.

특히 가정에서 먹고 쓰는 작은 것 하나 하나가 환경 오염에 주범인 줄 누누히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기 어려운 중병에 걸린양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편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8년 전 천도리 APT에 살 때만 해도 휴일이면 이곳 서화리 개울가에서 다슬기 잡고 미나리도 뜯고 낚시도 하였는데 지금 이곳 서화리에는 다슬기가 살지 않는 오염된 개울로 변해가고 있다.

작년 여름 방학 때의 일이다.

둘째 형님네 아이 둘이 놀러 왔었다.

아이들은 눈만 뜨면 개울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 속에서 놀곤 하였는데 저녁에는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생기는 것이었다.

가려워 긁고 약 바르고, 미끌 미끌한 돌에 넘어지고, 개울가 곳곳에

는 무얼 그리 맛있는 것을 해 드셨을까. 검게 그을린 돌들이랑 타다 남은 나뭇가지들이 불쌍해 보였다.

어디서부터 오염이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공장이 없는 이곳은 분명 우리들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방보다는 아직까지 덜 오염되었다고는 하나 흐르는 하천은 점점 그 빛깔이 죽어가고 있어 물고기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다.

늘 물 부족을 겪었던 서화리 주민 모두가 먹는 물 만큼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찾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냥 이대로 두고만 봐야 될까.

미나라랑 갈대, 연꽃을 심어 물을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방법을 이용해 본다면 사라진 물고기는 물론 겨울엔 철새들도 모여들 것이고 아무튼 또 다른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의 예의라고 본다.

깨끗한 물로 다시 살아 난다면, 밤에는 쏟아지는 별들을 가슴에다 한껏 주워 담으며 소쩍새 울음소리랑 개구리 소리도 듣고 언제나 그래 왔듯이 두 딸이랑 농로길을 걸으며 달팽이랑 잠자리도 잡고, 그리고 다슬기를 잡으며 내 기억 속의 추억을 내 딸들에게도 만들어 주고 싶다.

물이 많은 강원도, 물이 깨끗한 인제군, 물이 건강한 서화리, 그래서 세월이 흘러 딸들이 추억 속에 다슬기가 살고있는 깨끗한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랐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날을 꼭 기다리며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수필 장려〉

우리들의 자연

인제종합고 3-1 김선정

옛부터 우리 인간들은 자연의 일부로써 순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들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은 과학의 발전으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자연을 보호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자연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구 훼손하고 있다. 산을 깎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나무를 베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 자연환경을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수학여행 때에는 이렇게 환경을 보존해서 관광지가 된 곳을 다녀왔다.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언제나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하나의 정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되었다(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 보다는 못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그런지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자연환경을 상품화시켰다는 점이다. 꾸며진 미인보다는 꾸미지 않은 미인이 더 아름다워 보이듯이 나에게서는 포장된 자연환경보다는 포장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보기 좋았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그런지 상품화되지 않은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이 더 깨끗해 보

여서 더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관광객을 위해서 자연을 보다 편하게, 보다 아름답게 한다고 개발하는 것이 더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닐까?

나도 어떤 때에는 모든 공장들과 기계들이 멈춰서 옛날처럼 살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아마도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다. 모든 생활이 기계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모든 기계들이 멈춰 버린다면 물건도 만들 수 없고, 업무도 볼 수 없고, 아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조금만 퇴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 초록색 빛을 띄우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인양 마구 해치고 파괴하였다. 산을 깎아서 길을 내고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비료를 줘서 땅을 오염시키고, 가축을 팔면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죽이고……

인간들이 자연을 위협하고 파괴한 것을 쓰면 끝도 없을 것이다. 인간들이 자연을 생각없이 파괴한 덕분에 자연은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재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온난화현상,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환경파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생긴 단어들이다. 예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난 후부터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어느 소설 책에서는 미래의 과학자들이 환경오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컴퓨터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조사하게 한다.

그러다가 컴퓨터는 인간들이 환경오염의 원인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서 괴물을 만들어서 인간을 말살시키려는 계획

을 꾸민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이 언제 현실로 닥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인간들이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아무도 먼 훗날에는 우리들은 이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조그만 이기심 때문에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괴의 길로 몰아 넣고 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나짚이야'라는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짚이야'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폐수를 버린다면 이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욕심을 줄이고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들은 언제나 입으로만 환경보호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내가 환경보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분리 수거와 쓰레기는 지키고 있는 편이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환경보호에 앞장 서고 있는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을 것이다(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이실 테니까……).

우리 인간들은 느껴야 한다. 우리 주위의 자연을 지금 바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라. 지금 우리의 하늘이 얼마나 맑고 화창한지를…… 아니면 매연 가스로 인해 얼마나 어두컴컴한지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그래도 우리 나라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소문난 곳이니 하늘이 어두컴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보라. 서울 하늘을 그곳은 언제나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다. 매연으로 가득찬 하늘만이 보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점점 오염되고 있다. 예전에는 수돗물도

믿고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는다. 끓이거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금도 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연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수필 장려〉

환경을 살리시다

한계초등학교 6학년 1반 유현미

요즘 우리 지구는 멍이 들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고, 그 자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연에게 관심없이 행동하고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여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환경 파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환경이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환경을 살리기 위한 몇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에서 우리는 흔히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이나 강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이 산소공급을 못하여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질오염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쌀뜨물을 이용하여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을 이용하여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기를 아껴 쓰는 것입니다. 전기를 만들려면 화력발전을 이용하는데 이것의 원료인 석탄이나 석유 등은 태우면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섞여서 공기가 나빠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오염된 공기를 마

신다면 폐암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원자력발전에서는 원자폐기물을 아무 곳이나 버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대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폐기물들을 아무 곳이나 버린다면 자연 속에 사는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질병 또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원자력 발전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작은 양의 원료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을 이용하는 태양열이나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 물이나 바다를 이용하는 수력이나 조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자원들을 이용하면 환경파괴나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로는 일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나무 젓가락이나 종이, 은박지로 만든 그릇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회 용품의 쓰레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 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일회 용품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물이 먹는 사료에 쓰인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배기가스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배기가스는 심각한 대기오염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지 질환에도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부제나 5부제를 사용하여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거나 자전거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옛날보다 대기오염이 줄어들었으며 더욱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오염입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폐기물이나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 등은 심각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농약은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천적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유기농법을 활용하고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조상에게 물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후손에게 빌려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작은 실천에도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산문 장려〉

환경보존

원통초등학교 5학년 꽃반 박서희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우리 나라의 환경보존이 얼마나 무심한지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지금의 우리 나라의 환경은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처절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이다. 환경문제가 심해 물도 부족한 우리 나라 국가가 이렇게 환경을 무심하게 외면해도 된단 말인가?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우리에게 끝없는 자연과 멋진 풍경, 맛있는 밥과 여러 음식들을 주는 우리의 환경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 버리고 말 것이다.

환경이 없는 세상은 인간도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지금의 우리는 아무것도 환경에게 해준 것이 없다. 올바른 생각을 해서 환경을 지켜 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노력을 다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은 환경에게 아무 것도 못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과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득을 줄 우리 환경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 나라의 물을 합성 세제 등으로 아프게 하지 말고 열심히 쓰레기 등을 주워 깨끗한 우리의 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

우리 나라 대도시의 공기가 정말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두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더러운 우리 환경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순 없다. 정말로 방책을 써야 한다. 우리는 합성세제 쓰지 말기, 쓰레기 줍기 등의 이런 일밖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라서 환경을 지키는데 보탬이 된다면 우리의 아래로 여러 자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동화 우수〉

숲 속 동물나라

월학초등학교 3학년 신다영

어느 화창한 날 숲 속의 오후, 아기 노루는 즐겁게 나들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다니던 아기 노루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푸른 숲 속에 왜 이런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일까?

아기 노루는 불쾌한 냄새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갈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졌습니다. 드디어 아기 노루가 도착한 곳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패트병, 일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종이컵, 유리병, 종이조각 등등 아주 많은 쓰레기들을 본 아기 노루는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린 채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아기 노루의 집에는 동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노루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숲 속에는 쓰레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자 아기 노루가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나들이를 하다가 느티나무 밑에서 많은 쓰레기들을 보았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아빠 사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빠 사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염소 할아버지가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다 줍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표지판

을 곳곳에 세워 두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면 어떨까요?”

동물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노루는,

“좋습니다. 염소 할아버지,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토끼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곳곳에 쓰레기통을 놓아 두어 쓰레기는 모두 쓰레기통에 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노루가 말했습니다.

“네, 토끼 어머니, 좋은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끝난 후, 동물들은 쓰레기를 다 줍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표지판과 쓰레기통을 곳곳에 세워 아름답고 평화로운 숲을 만들었습니다.

〈동화 장려〉

양철 도시

원통중학교 2학년 3반 이다솜

여기는 도시 한복판이다. 언제나 자동차의 경적소리로 소음이 가득하고 매연과 공장의 연기로 나날이 하늘은 시커멓게 변해 간다. 민들레꽃 한 송이 없는 이 도시에는 밤, 낮으로 바뀐 사람들은 똑같은 발소리들이 일정히 들린다. 시끄러울 정도로 들리는 기계 소리만 있을 뿐이다. 이곳의 자동차들은 언제나 찌푸린 얼굴로 괴성을 지른다. 기다림이란걸 모른다. 금방이라도 어딘가에 박아버릴 것처럼 조마조마하게 달린다.

“빵빵-여어 거기 빨리 빨리 가란 말이야, 거기 아줌마도 그만 씹씹 대고 파랑으로 바꿀 수 없어?”

“기다려 나도 화난다고 갈 수 있으면 가보라지 흥”

얼굴이 빨갛게 된 신호등이 말하였다. 이것이 양철 도시의 일상이다.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도 없는 삭막한 도시에 고물상이 있다.

나에겐 그나마 제일 아늑한 곳이다.

많은 친구들도 있다. 뒷바퀴가 고장난 자전거 아저씨, 네 개의 타이어가 없어진 찌그러진 자동차 할머니, 폐타이어 할아버지, 녹슨 쇠파이프 형제들, 다리가 빠진 의자 아줌마는 나의 식구들이다.

“오 애야 니가 여긴 어인 일이고?”

폐타이어 할아버지가 물었다.

“어쩌다보니…… 오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다, 아냐 잘 왔구나. 다만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며 말씀했다. 제법 고물상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란해지는 네온사인의 빛이 비추었다. 이젠 밤이 되었다.

“다리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다니, 이젠 죽는 것인가?”

의자 아줌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죽게 되다니 나는 무엇인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살 가치를 못느끼겠수.”

“그래 할멈 말이 맞소. 이런데 있어 보았자 무얼 하겠소. 가기 전에 나무와 파란 하늘을 보고 싶구려.”

나무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봤지만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태어나 나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파란 하늘은 어렴풋이 본 기억이 난다. 물론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점점 시커멓게 되어 가는 하늘만 있을 뿐이다.

“할아버지, 나무란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하는 얼굴을 조금하시다가 입을 열으셨다.

“나무란 머리쪽에 초록색의 종이쫄가라와 같은 잎사귀들이 주렁 주렁 달려 있고 그 주위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들지 물론 인간들도 그랬었지 언제 봤는지 그림구먼.”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쓸쓸함이 배어났다. 그리고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맞아요. 저도 어릴 적엔 그래도 심심치않게 보았죠.”

자전거 아저씨가 말하셨다. 뒤 이어서 “주인이 좋아했던 강 주위를 달리면 물고기가 헤엄치고 태양이 물빛에 비추어 반짝거리는 광경을 보며 곧잘 달렸었는데 말이죠.”

이런 폐수라는 검은 물이 태양에 비추어 반짝거리다니. 나는 의아해서 가우뚱했다. 이해할 수도 없었다.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그 시절로 되돌아 가고 싶네요.”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말하셨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다. 웬일인지 고물상 식구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무거운 침묵만이 계속 흐르고 있을 뿐이다. 이윽고 내가 일을 냈다.

“왜그러세요? 어제 듣고 보니 저도 나무란거. 한 번 꼭 보고 싶어요.”

식구들은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 보았다.

“이젠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아가야, 너도 이젠 준비하거라.”

할머니가 알 수 없는 말만 하셨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하 할머니도 나무가 무척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분위기란걸 알았다. 더 이상 물어 보지 않았다. 가만히, 조용히 기다렸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우리 식구들을 하나 둘씩 데리고 갔다. 식구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자전거 아저씨 만이 나에게 쓴 웃음을 지어주셨다. 그렇게 모두 떠나 갔다. 사람들이 나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 내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나보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고물상도 텅 비었다. 이제는 혼자 가 되었다. 웬지 외톨이가 된 기분이라 쓸쓸하고 외로웠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인거구나. 처음부터 내가 설 자리는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내가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고물상의 문에는 지저분하고 너털너털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저것이 나무인가? 하늘은 파랗네 아름다운 그림이네. 후훗”

그 그림에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강물이 흰히 들여다보여 물고기가 있었고, 유난히 푸른색의 파란 하늘이 있었다. 너무 아름다웠다.

나는 위로 하늘을 보고 옆으로 건물과 강을 보고 또다시 그림을 봤다.

“그런거지 여기는 제대로 된 흙 한 줍이 없는 그러한 양철 도시지 그렇지.”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익숙했던 도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언제나 보았던 도시 광경이 양철 도시에서는 모두가 당연했던 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정도로 아프게 느껴졌다.

눈물이 왜 흘렀는지는 나도 모른다. 가느다랗게 흐르는 눈물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림 속을 계속 보았다. 그림의 한 구석에는 쓰레기통이 있었다. 그 쓰레기통에는 고물상 식구들이 있었다. 그 쓰레기통 안에는 나도 있었다.

“도시 냄새와 양철 도시는 쓰레기통 속에 있는 거야 그 위에 파란 하늘은 알아 줄까? 그럴까…….”

눈물이 펄펄 흐른다. 다 마를 때까지 흐를 모양이다. 이젠 아무 생각도 없이 눈물이 계속 흐른다.

그러는 사이에 한 사람이 왔다. 그 사람 옆에는 쓰레기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를 주었다.

“아이고 계속 버리는군 이걸 어지할까? 쫓쫓.”

그 여자는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하였다.

“손 한 번을 움직이면 되는 것을 휴- 그 아름다웠던 하늘을 이제는 눈을 감고서도 볼 수가 없구나.”

많이 바쁜 것일까. 그 여자는 더욱 더 손을 재촉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봉투 속으로 들어갔다.

“왜 내가 떠나야만 하는거지?”

“맞아, 이 곳을 떠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여러 가지의 말들이 들렸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젠 파란 하늘 속으로 가는 거야, 꽃이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다면 그걸로 된거야.”

모두 나를 미쳤다는 눈초리로 보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이제는 나만의 영원한 꿈을 꾸는 것이니까.

〈동화 장려〉

외로운 소나무

원통 중학교 2학년 3반 42번 이우란

나는 나무다.

인간들은 날 ‘소나무’라 부른다. 그리고 나무들은 날 ‘소나리’라 부른다.

몇 년 전부터인가…….

나는 이 곳에 살기 시작했다. 나와 내 친구, 가족들 덕에 내가 사는 이 곳은 항상 푸르다. 내 손 위에는 새들이 놀러와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가끔씩 집을 짓기도 한다.

인간들도 찾아와 우리가 만드는 그늘 밑에 앉아 쉬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난 굉장히 즐거웠던 듯하다.

하지만 어떤 인간들은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인간들은 톱, 도끼라고 불리는 것들과 트럭이라 불리는 거대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 동산에 찾아 왔다.

처음에 우리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간이 친구들을 데려간다.

나무 할아버지들께서 사라지신다!

하는 말이 이 곳에서 저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들께서는 트럭에 실려 사라져 가셨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곧 일어날 불행을 예감했던 것 같다. 인간들은 매일같이 우리들의 동산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그들을 나쁜 인간이라 불렀다.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나무들은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증오란 감정이 싹튼 것이다.

항상 기쁘게 살던 우리였다. 행복이란 감정만을 알고 그것을 나눠주며 살던 우리였다.

나무들은 서로를 헐뜯고 비난했다. 몸에는 상처를 입힐 수 없었지만 마음 속에 상처를 주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무는 하나 둘씩 사라져 갔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남을 헐뜯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나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들…… 나쁜 인간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신경쓰지 않는다. 무참히 밟아간다. 우리가 비명을 질러도 상관이 없다. 아마도 들리지 않으니까.

오늘은 우리 아빠가 사라졌다.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가족은 슬픔에 젖었다. 할아버지께선 이미 사라지신지 오래였다.

이제 우리 동산은 푸르지 않다. 그 동안 많은 나무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의문이 들었다.

인간들은 우리 나무들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

오늘은 엄마도. 언니도 사라졌다.

“나리아!”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인간들은 나 혼지만을 남기고 갔다. 동산에는 나 혼자 남았다.

내일이면 내일이면 나는 사라진다. 이제 이 동산에서 나무는 어디에 서라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멀리 떨어진 주변에서 내가 모르는 낮은 나무들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인간들은 이걸 바랬을까. 이 황량함. 하루가 지났다. 왜 인간들은 오지 않을까. 혼자 남은 것은 싫다.

이틀이 지났다. 아직도 오지 않는다.

3일째……

드디어 인간들이 온다. 나도 사라진다. 이 동산에서.

그런데 오늘은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못 보던 것들도 있다. 트럭 크기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다. 무얼 하려는 걸까.

“드르르~~탕! 탕! 웅~~”

곧이어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땅이 아파한다.

이제는 내 가족들과 친구들 뿐 아니라 내 터 마저도 고통스럽게 한다.

인간들은 무언가를 짓고 있다.

그 속에서 난 자란다.

시간이 흐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몇 개월이 지났을까. 난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도 없기에 시간은 무의미해져 버렸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난 이제 커다란 나무로 자랐기 때문이다. 사라져버린 우리 아빠만큼 아니 아빠 보다도 크고 할아버지보다도 크게…….

이제 내 주위에는 나무 대신 건물도 이 숲을 이루고 있다. 난 건물들의 중심에 서 있다. 작은 놀이터의 나무가 되었다.

인간들은 왜 나만을 남겨 놓은 걸까. 난 항상 외롭다.

“아하하! 엄마, 여기야, 여기,”

“그래, 아가야.”

인간들은 내 주위에서 장난도 치면서 논다. 즐거운 걸까? 난 이렇게 외로운데?

아직도 내 주위에 나무는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건 너무 싫다. 인간들은 날 잘 대해 주지만 그럼에도 나는 싫다.

나의 집은 어디로 갔을까. 친구들과 가족들이 살던 그 곳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 나는 너무 아프다. 이제 죽으려나 보다.

어차피 예전에 죽었을지도 모를 나다. 그것도 두렵지는 않다.

‘나리아…….’

이제까지 잊고 있던 내 이름을 누군가 부른다. 곁에는 아무도 없는 데…….

난 이곳에서 사라진다. 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친구들을 따라 간다.

내가 사라진 곳에 다른 나무가 자리를 잡는다. 저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저 나무도 나처럼 외로움 속에 혼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립다. 그때가 행복만을 알고 살던 그때가, 모두 내 곁에 있던 그때가. 그리고 증오한다. 그들을…….

나에게 증오를 심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빼앗아간 그들을…….

내 집을 빼앗아간 그들을…….

즐거던 그 때는 어디로 갔을까.

‘나리아……!’

잊혀져 버린 내 이름만이 먼 곳에서 들려 올 뿐이다.

임원 현황

직 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원 장	방효정	인제군 인제읍 남북 2리	461-0050
부원장	최병헌	" " 상동 4리	461-0788
이 사	정시화	" " 합강리 283-4	461-9133
감 사	길호섭	" " 상동 5리 4반	461-2532
이 사	권원희	" " 남북 1리 5반	461-2720
"	김진태	" 남면 신남 1리 3반	461-6439
"	민종식	" 인제읍 상동 2리 2반	461-2298
"	육영숙	" 북면 월학 3리 2반	462-3864
"	정 균	" 북면 원통 4리 1반	462-9999
"	남덕우	" 인제읍 상동 2리 5반	461-2738
"	안승규	" 북면 원통 8리 1반	461-1191
"	최태운	" 인제읍 남북 2리 2반	461-2640
"	박유정	" 기린면 현 1리	461-5324
"	이상각	" 인제읍 상동 3리 4반	461-2779
"	최용건	" 기린면 진동리 690	463-9975
"	박삼래	" 인제읍 상동 2리	461-1783
"	서성호	" 서화면 천도 4리 2반	462-4330
"	김대현	" 남면 관대리 650	463-6416
"	김 봉	" 기린면 현 2리	461-7562
"	김관용	" 남면 선남 1리	
"	용수운	" 상남면 상남 1리 4반	461-0239

직원 현황

구분	직 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사무국장	이만철	인제읍 상동 1리 9반	461-4801
	간 사	김연희	" 상동 4리 7반	461-2856
	관 장	백계현	" 상동 4리 7반	461-2375
	관리인	안옥순	" 남북 1리	461-5724

인제문화원 회원 현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한용운	인제군 상동 1리 내설악APT 102동	461-2623
조해숙	서화면 천도 4/10	462-0337
김신향	북면 원통 2/1 김씨 부띠끄	461-3437
오정진	인제읍 남북 1리	461-2350
한성국	인제읍 남북리 371-8	461-8173
김규중	인제읍 상동 3리1반	461-2985
이순복	인제읍 상동 4리 낙원APT 602호	461-1889
순흥기	인제읍 상동 3리 목계장터	462-9627
황민숙	북면 원통 1리 2반 김운홍 씨택	461-8417
박돈구	인제읍 상동 4리 2반	461-2246
이재화	북면 원통리 극동연립 307호	462-3344
이창준	북면 원통리 647번지	461-6859
임동수	북면 원통 4리 3반	461-8001
박현순	북면 원통 3리 4반	461-3133
정균	북면 원통 4리 5반	462-9999
김정미	인제읍 합강 1리 1반	461-7103
박선임	인제읍 남북리 1/7	461-0580
한순자	인제읍 상동 4리 6반	461-0788
이은복	인제읍 상동 4리 5반	461-2656
최순자	인제읍 덕산리 3반	461-1803
전영진	인제읍 상동 3리 2반	461-2730
허경순	인제읍 상동 4리 낙원APT 202호	461-2891
박희순	인제읍 상동 4리5반	461-2954
유금실	인제읍 상동 4리 5반	461-2269
김우진	인제읍 상동 5리 3반	461-6398
송영숙	인제읍 덕산리	461-2956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부자	서화면 천도 4리 6반	462-4031
강순복	인제읍 상동 4리 6반	461-4879
신은희	북면 원통리 설악빌라 B동 101호	462-9178
김혜영	북면 원통리 미진APT 708호	462-9257
전영옥	인제읍 상동 3리6반 군인APT 502호	462-8930
송길숙	인제읍 상동 4리 7반	461-9128
안미영	인제읍 상동 4리 3반	461-2920
김명옥	인제읍 원대리	462-0886
이춘녀	인제읍 상동 4리 낙원APT 308호	461-0818
최종규	인제읍 남북 2리 6반	461-4997
김혜정	인제읍 상동 5리 극동연립C동 202호	461-2751
최은희	인제읍 상동 방림화원	461-4969
이효연	서화면 천도 4리	462-4123
김정례	서화면 천도 2리	462-0077
박광순	서화면 천도 2리 설악빌라	462-9183
함평순	서화면 천도 4리	462-4437
함인자	서화면 천도 2리	462-5106
김향숙	서화면 천도 4리	462-9240
임광준	북면 원통리	461-9984
김향	북면 원통리 고은서예실	462-2435
한상문	인제 군청 건축민원	461-2122
임규현	인제 군청 건축민원	461-2122
김영옥	북면 원통리	461-5060
방용옥	인제읍 상동 1리 내설악APT 102동	461-2556
강순자	인제읍 남북 2리 5반 군인관사	461-1853
심계선	북면 원통리	461-3018

성명	주소	전화번호
최명순	인제읍 상동 4리	461-4370
장선희	인제읍 상동 4리	461-7303
이은경	인제읍 남북리 쌍호APT	461-6231
소미진	북면 원통리 우진빌라 다동 404호	461-7614
심미향	인제읍 상동 5리 4반	461-1702
어윤희	남면 신남리 대삼APT 504호	461-1655
정외자	인제읍 상동 2리 6반	461-6435
이영숙	서화면 천도 4리 9반	462-5660
김금희	인제읍 상동리 7반	462-2110
김화자	인제읍 상동 4리 7반 낙원APT 209호	461-6847
곽희경	남면 신평리 군인APT 402호	461-6191
김현미	북면 한계 2리 1반	461-4006
강미순	북면 한계 2리 2반	461-9684
박춘희	서화면 서화리 서화APT B동 307호	462-0130
김종각	인제읍 남북 1리	461-0316
김장현	인제읍 상동 4리	461-9549
차종진	북면 원통 1리	461-2111
김은중	기린면 현리	461-7535
정희은	인제읍 상동 4리	461-2289
이충섭	인제읍 합강 2리	461-5553
이강의	인제읍 상동 5리	462-2879
정을권	기린면 현리	461-3763
김남호	인제읍 합강 2리	461-9488
한순이	인제읍 상동 1리	461-2993
박해운	인제읍 남북 1리	462-0904
박석영	인제읍 남북 2리	461-2296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갈한덕	인제읍 상동 3리	461-2416
신현철	인제읍 덕적리	461-2274
강인석	북면 한계 2리 2반	461-6927
전송규	북면 한계 2리 2반	461-4142
김봉준	서화면 천도리 538-1	462-4017
이운철	인제읍 상동 4리 269-8	461-4050
이정복	북면 한계 2리 2반	461-7750
이은자	기린면 현1리 2반	461-1230
백창우	서화면 천도 3리	462-0211
황영일	인제읍 귀둔리 산 234	463-0993
황지호	인제읍 귀둔리 산 234	463-0993
남지현	인제읍 가리산리 418번지	463-5325
김두성	인제읍 상동 4리 4반	461-2279
김기호	인제읍 상동 1리 내설악APT 101	461-2851
김명수	북면 원통리 고려 공예사	461-3279
최태홍	인제읍 덕산리	461-4984
허병도	인제읍 남북 2리 9반	461-8849
김옥준	북면 원통리 영광보일러	461-0440
김종걸	인제읍 덕산리	461-4790
최태석	인제읍 상동 4리 6반	461-4541
최광윤	인제읍 상동 5리	461-2752
김진산	인제읍 덕산리	462-6241
신호산	북면 원통 2리 2반	461-5933
이성복	북면 원통 7리 3반	462-3175
안상규	북면 한계 2리 3반	463-8602
이종혁	서화면 서화리 2반	462-9267

성명	주소	전화번호
김완수	북면 원통 2리 2반	461-9981
전찬영	북면 원통 7리 2반	461-0319
이원태	인제읍 덕적 1리 1반	462-9434
최천식	서화면 천도 3리	462-1313
정진우	북면 한계 2리 2반	463-2001
김명수	북면 원통 1리 6반	461-3279
전상도	북면 한계 2리 1반	463-8318
김태환	북면 원대 2리	462-0377
박금덕	인제읍 덕적 1리1반	461-1970
강대영	서화면 천도리 3반	462-3292
이대완	북면 원통 6리 3반	461-8718
김경운	인제읍 상동 3리	461-7854
김광열	인제읍 상동 1리 8반	461-1881
김국련	인제읍 상동 3리 2반	461-4524
김기호	인제읍 상동 1리내설악APT 101동	461-2851
갈무만	인제읍 합강 2리 6반	461-2616
김순철	인제읍 상동 2리 7반	461-2930
김장준	인제읍 상동 1리 8반	462-5717
김종호	인제읍 고사리	462-3334
김종희	인제읍 상동 1리 1반	462-0094
김진성	인제읍 상동 4리	
김재완	인제읍 상동 5리	461-5501
박경옥	인제읍 상동 5리	461-4817
박일섭	인제읍 상동 2리 3반	461-2245
박창빈	인제읍 상동 3리 2반	461-2534
백계현	인제읍 상동 1리 8반	461-2375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심영유	인제읍 남북 1리 4반	461-0885
안종우	인제읍 상동 1리 내설악APT 102동	461-6565
안봉화	인제읍 합강 1리	461-4805
안형석	남면 남전 2리	463-6466
유지녀	인제읍 상동 2리 나래피아노	461-2985
오봉교	인제읍 상동 3반	461-8311
엄문섭	인제읍 상동 3리 3반	461-2339
권원희	인제읍 남북 2리	461-2720
이용식	인제읍 합강 3리 1반	461-0107
이종화	인제읍 상강 3리 2반	461-2439
임대혁	인제읍 상동 4리 7반	461-7157
정광벽	인제읍 상동 3리	461-9596
장헌귀	인제읍 상동 4리	461-7209
전재홍	인제읍 상동 1리 1반	461-4080
정연근	인제읍 상동 4리 5반	461-2409
최광일	인제읍 상동 3리 3반	461-7064
최영운	인제읍 상동 1리 내설악APT 102동	461-2370
하광수	인제읍 남북 2리	461-2039
심재필	인제읍 상동 4리	461-2235
남상묵	인제읍 상동 3리	461-2396

원고 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18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 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를 꾸며질 수 있도록 지역 주
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 문화재 소재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예술헌을 위한 시 · 시조 · 논문 · 산문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효친수기 : 효행수기 · 사례담

마. 기타 : 옛 사진 · 관광사진 · 옛문헌 · 사료집 · 전설 등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18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모집 부문

2003년 1월 11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3. 접수처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사무국

TEL : (033)461-6678 FAX : (033)461-0220

편집후기

선입견이나 관념없이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인제문화지는 열일곱번째로 태동된다.

멀고 험한 항해를 할 때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영원의 길을 가는 인제문화지가 지역민의 많은 옥고가 있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므로 가장 평화롭고 슬기롭게 인제문화지는 자신의 갈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이 한 권의 책이 독자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히 간직되는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2002년 12월

이 만 철

麟蹄文化 第17輯

- 발행인 : 방효정
 - 편집인 : 이만철
 - 발행처 : 인제문화원
 - 전 화 : (033) 461-6678
 - 팩 스 : (033) 461-0220
 - 인쇄처 : 책과 마음((02) 2277-0762
 - 인 쇄 : 2002년 12월 19일
 - 발 행 : 2002년 12월 21일
-

〈비매품〉

■ 이 책은 국고보조금과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